

제1일

7월2일(화)

10 : 00 a. m. 개교식

모두 25명의 참가학생과 디자인 캠프 운영위원과 대전지역 건축사, 건축과 대학교수등이 참석한 중에 개회식이 있었다. 디자인 캠프위원장인 건축사 협회 대전지부 송승호 회장의 개회사 한남대, 공대학장 김성옥교수의 격려사, 건축가협회 대전지부 박홍우 회장의 축사, 그리고 학생대표 임공빈군의 선서로 진행되었다.



11 : 00 a. m. 강의 3

초청강연/한국건축의 외부공간

한국 건축의 외부공간이라는 주제로 안영 배교수(서울시립대건축공학과)의 강의가 있었다. 풍부한 슬라이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건축에서 외부공간이 갖는 중요성과 외부공간의 구성방식 등이 설명되었다. 학생들뿐 아니라 참석했던 건축사와 교수들에 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던 인상적인 강의였다.



14 : 30 p. m. 강의 4

계획안의 표현/도면과 모형

설계과정에서 계획안의 표현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송인호 교수(한남대)의 강의가 있었다. 강의는 1. 도면의 의미와 약속 2. 입체적 표현 3. 모형 4. 판넬의 구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번 디자인 캠프에서도 도면의 종류와 내용, 도면의 표현방식, 그리고 모델의 척도 및 제작 방식등이 강의되었다.

19 : 30 p. m. 강의 5

대전의 건축/설계교육과 실무

송승호 회장이 지금까지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195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대전 건축의 현황에 대해 그 줄거리를 강의 해주었다. 아울러 학교에서의 설계교육이 설계 사무소에서의 실무교육과 연계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 강의실 및 설계실 그리고 디자인 캠프 본부와 휴게실은 이공학관 5층에 배치하였다. 학생들의 식사는 한남대학교 교수식당에서 준비하였으며, 남여숙소는 역시 이공학관 5층에 각각 침상을 설치하여 마련하였다.



제2일

7월3일(수)

10 : 30 a. m. 평가 1

대지분석 및 설계개념

팀별로 제작된 대지모델을 놓고, 조사 분석된 대지 상황, 주어진 주제 및 대지로부터 추출된 설계개념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이번 평가의 목표는 초기에 설계개념을 창조적이며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각 팀이 혼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계획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각 팀의 발표는 꼭 의욕적이었으나, 팀별로 주어진 대지를 정리하고 어느정도 개념의 윤곽을 잡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점심식사후 12 : 45분에 계속된 평가 1은 2 : 00에 마무리 되었다. 오후 2 : 00에 예정된 지도 1 : 개념과 기본구상은 평가 1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되어 생략되었다. 1,2차 디자인 캠프는 설계지도가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계획안의 발전에 일관성이 결여 되었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건축사 및 교수로 구성되는 설계지도 위원이 동시에 집중적으로 설계지도를 하기로 하였다.

18 : 30 p. m. 강의 6

소규모 공공건물의 사례

박만식 교수에 의해 일본과 유럽등 외국의 파출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슬라이드 강의가 있었다. 파출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이 강조되었고, 작으면서도, 도시속에서 어떻게 기념비적인 성격을 표현하고 있는가 등이 설명되었다.



건축디자인캠프

제3일

7월4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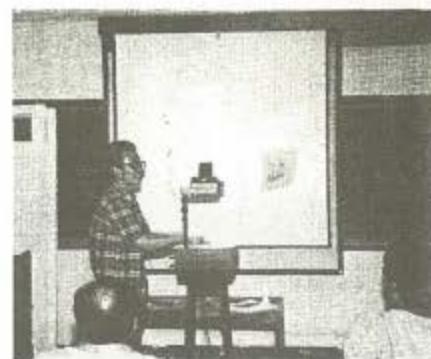
14 : 00 p. m. 평가 2

기본계획 평가.

원래의 의도는 평가는 5개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세미나실에서 공개 critic형식으로 진행하고, 지도는 설계실에 설계지도 교수들이 함께 들어가 팀별로 critic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도와 평가의 구별이 애매하고 작업시간도 촉박하여, 팀별로 공개critic형식으로 진행하는 설계평가로 통합하여 진행하였다.

이번평가는 지난 평가 및 지도에서 압축된 개념을 토대로 평면, 입면, 단면의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예년에 비해 진행이 순조로운 팀도 있었으나, 어느 팀은 팀내의 불화가 노출되기도 하였고, 또 아직도 개념이 혼란스러운 팀도 있었다.



19 : 45 p. m. 강의 7 : 근대화 과정에서 도심의 규모 공공공간

김정동 교수 (목원대)가 근대건축 중에서 소규모 공공건축에 대해 강의하였다. 해외의 사례와 더불어 우리나라 20C초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방서, 파출소등의 역사적인 근대건축물의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제4일

7월5일(금)

14 : 00 p. m. 평가 3

기본계획안의 발전

각 팀별로 기본계획안을 놓고 공개 critic이 계속되었다. 예상보다도 진도가 늦어 걱정되었다. 이번평가(지도)

는 저녁에 있을 예정인 구조critic을 준비하기위해 계획된 것이다.

19 : 00 p. m. 평가 4

기술관점에서의 설계평가

정수영 교수(충남대), 박성무 교수(목원대), 오영석 교수(대전대), 신영수 구조기술사 (한남대강사)등의 구조 전공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조와 계획안의 발전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critic이었다.

우선 설계실을 돌면서 각 팀이 갖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이어서 각 팀중 비교적 진행이 빠른 C팀의 계획안을 대상으로 공개critic이 진행되었다. 준비가 부족했고, 구조전공교수와 설계전공교수의 관점이나 어휘도 서로 달라서 예상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구조와 설계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남짓한 시간동안 진지하고 건축적인 논의가 진행될수 있었다는 점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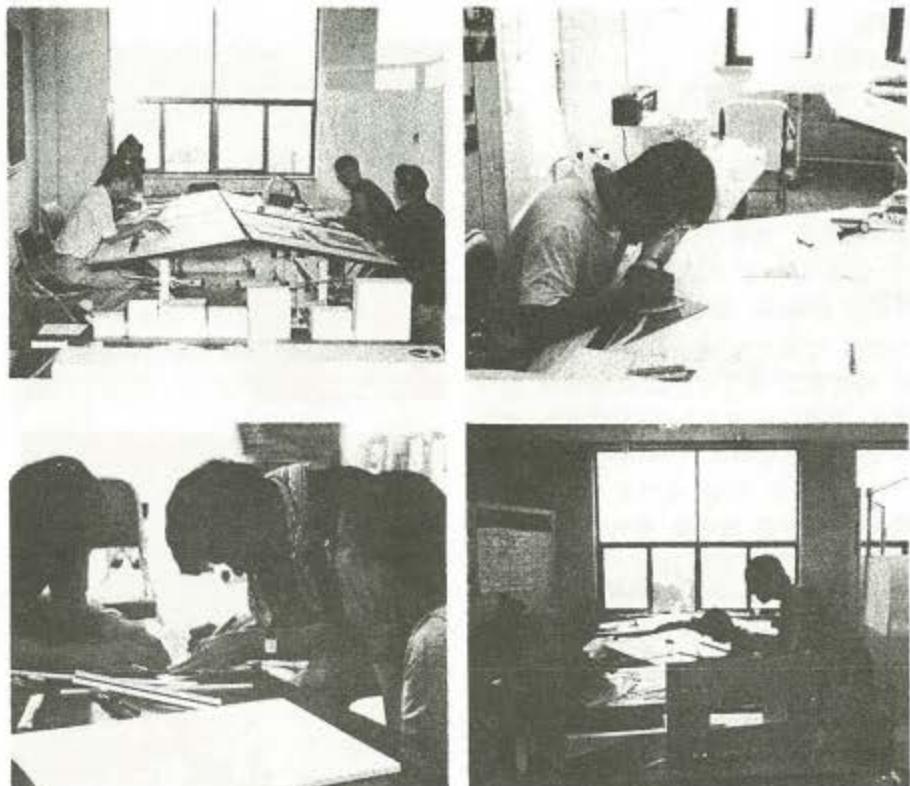
제5일

7월6일(토)

19 : 00 p. m. 평가 5

기본설계 평가

14 : 00 p. m. 에 예정된 지도 3 : 기본계획의 발전은 진도가 늦은 몇 팀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진행되었고, 종합적인 지도는 생략되었다. 각 팀별로 거의 정리된 기본계획안을 대상으로 마지막 공동critic이 있었다. 학생들은 계속된 밤샘작업으로 피곤한 상태였고, 기본계획안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팀도 있었다. 원래는 충북지역의 충북대학, 청주대학의 교수님등을 모시고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여의치 못해 이루어지니 못했다.



제6일

7월7일(일)

14 : 00 p. m. 1, 2기 수료생 초청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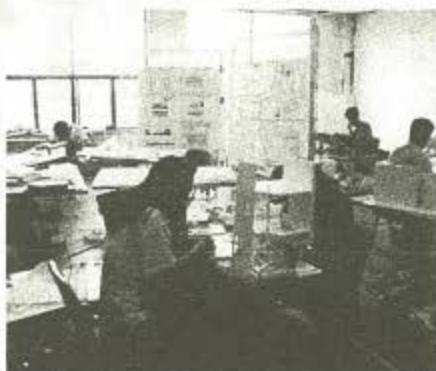
건축사협회 이영순 간사의 사회로 건축사 및 교수, 참가학생, 그리고 1, 2기 수료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디자인 캠프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의문 및 건의사항에 대해 건축사 및 교수들의 답변이 있었다. 아울러 1, 2기 수료생들의 소개와 후배들에게 주는 격려의 말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5 : 00 p. m. 체육대회

이어서 한남대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 실내에서 가능한 종목만이 치루어졌다. 족구와 농구 경기가 있었는데, 족구는 교수 건축사 학생 혼성팀으로, 농구는 교수, 건축사팀대 학생팀의 경기로 진행되었다. 운동이 끝난 후 임근수 부회장이 마련해 주신 음식과 음료, 술로 간단한 잔치가 있었다.



건축디자인캠프



제7일

7월8일(월)

14 : 00 p. m. 하마마쓰 (浜松)건축
사협회 내방

대전건축사 협회의 자매단체인 일본
하마마쓰 건축사협회의 내방이 있었
다. 상견례에 이어 이번 디자인 캠프에
간단한 설명이 있는 다음에, 설계실을
돌면서 대지 및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
었다. 이어서 건축사협회가 마련한
파로연이 있었으며 하마마쓰에서 학
생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과 이에 대한
디자인 캠프측의 답례품 전달이 있었
다.

제 8일

7월9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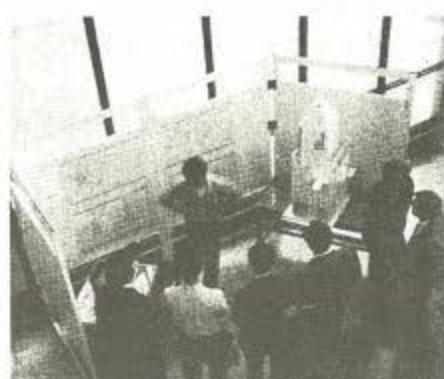
17 : 30 p. m. 최종안 전시 및 평가

한남대 이공학관 로비에서 최종안
및 1/20척도의 모델이 전시되었다. 송
승호 회장과 박만식교수 그리고 많은
건축사와 교수들이 참석한 중에 전시회
개막식이 있었다. 서울에서 건축과
환경의 박순관기자와 플러스건축의
류치열기자등이 와서 취재를 했다. (
건축과 환경 9108 및 플러스 9108에
게재)

18 : 30 p. m. 수료식

박만식 교수의 종합평가, 송승호 회
장의 수료증 수여등의 순서로 7박8일
간의 디자인 캠프가 막을 내렸다. 계
속된 밤샘작업으로 지친표정이었으나
모두 밝은 표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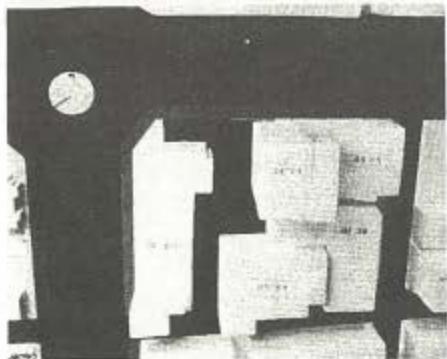
이어서 극동대반점에서 만찬이 있었
다.



계획안

A팀 : 마당과 두면

이용식, 이병선, 김남식, 이향재, 김민경



■ 설계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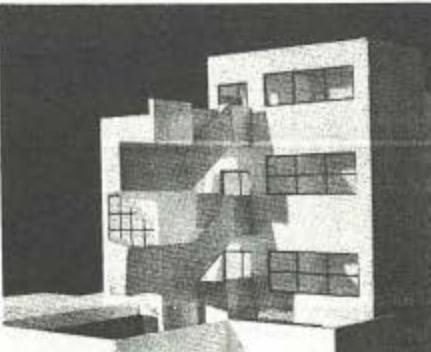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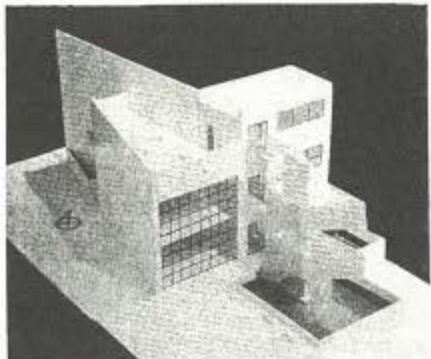
먼저 대지의 위치 및 주변현황을 보면, 대전의 중심도로인 대종로와 중앙로가 교차되는 부근에 존재하는, 현재의 은행동 파출소와 주변의 상공회의 소, 여성회관, 대우증권등으로 둘러싸인 내부의 오픈 스페이스가 주된 고려대상으로 대두된다.

본 설계는 현재의 은행동 파출소를 다시금 건축적으로 디자인하면서 블럭 내부에 버려진 오픈 스페이스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도심속에서의 대상 블럭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현 상공회의 소, 여성회관 등과 더불어 대지가 본래 가지고 있던 공공성을 찾아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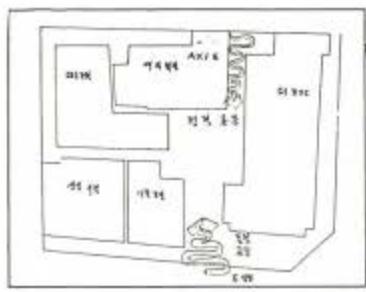
본 대지의 특징으로는 첫째, 남측과 북측으로 오픈 페이스가 있어 현재는 담과 경찰서 등으로 동선이 차단되어 있고, 둘째로 내부에는 버려진 공지, 체육관 등이 혼존하며, 주변건물에 의해 일조, 시야 등이 제약받고 있으며, 셋째로는 대전문구센터, 스카라극장 등을 거쳐 중앙로 쪽으로 향하는 북측의 외부도로가 본 블럭에 의해 동선이 교차되고 있다.

이러한 대지의 문제점을 설계의 목적에 접목시켜 디자인의 접근방향을 모색해 본 결과 크게 세 가지의 주된 개념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중의 하나는 위의 첫째, 셋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으로 블럭을 관통하는 도로를 두자는 것이며, 다음으로 둘째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주변 건물에 의해 애워싸여진 정적인 마당을 형성하자는 것이었다. 그밖에 세부적인 처리로는 마당의 수공간을 인지케 하기위해 파출소 현관부에 동적인 물을 두었고, 현관을 강조케 하기위한 필로티를 설치하였다. 또한 현관과 수공간을 사선으로 처리하였고, 2층과 3층의 공간적인 기능을 관입시켜 공공 공간의 활성화를 기했다. 마지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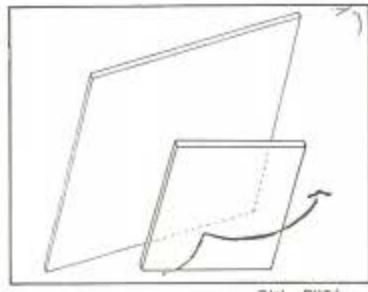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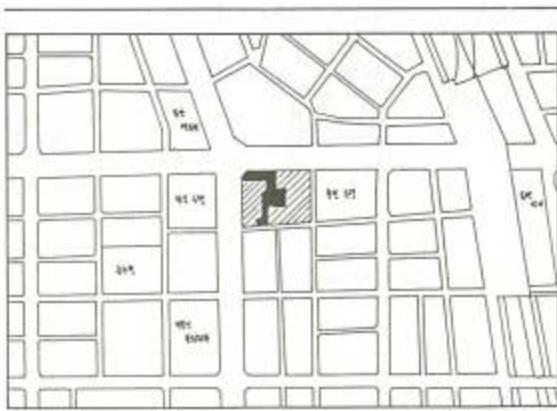
남북의 동선축과 동서의 건물면을 잇는 선과의 만남부에 마당의 중심이 되는 오브제를 두어 수공간과 더불어 마당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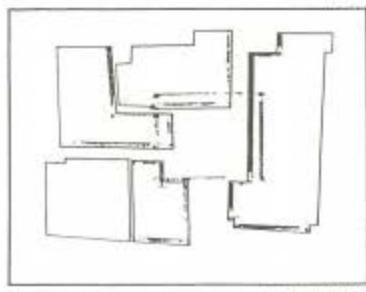
건축디자인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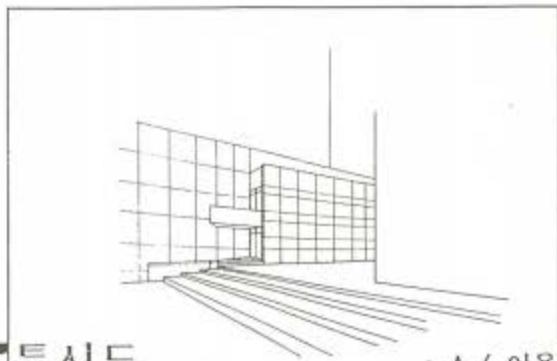
간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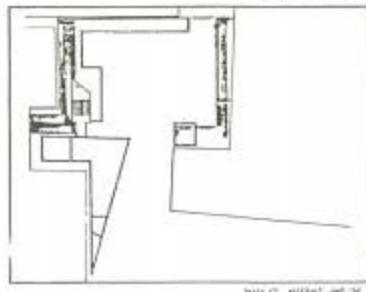
멀리 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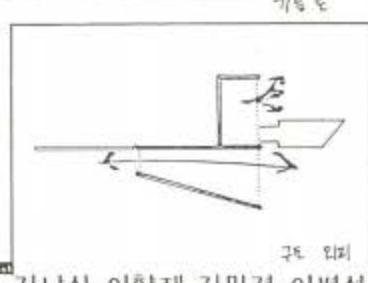
마을과 마을과



기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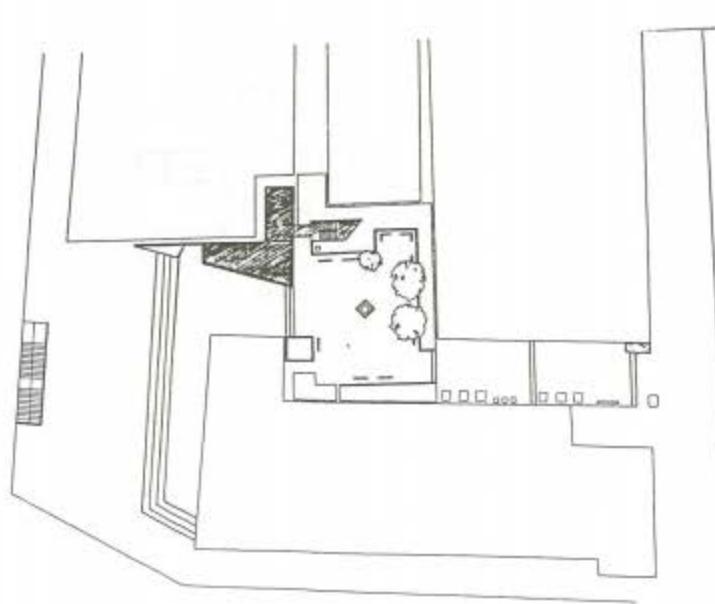
마을과 마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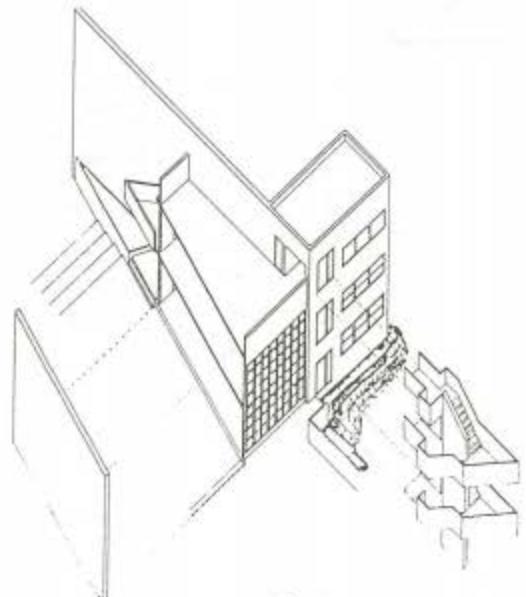
구조 입체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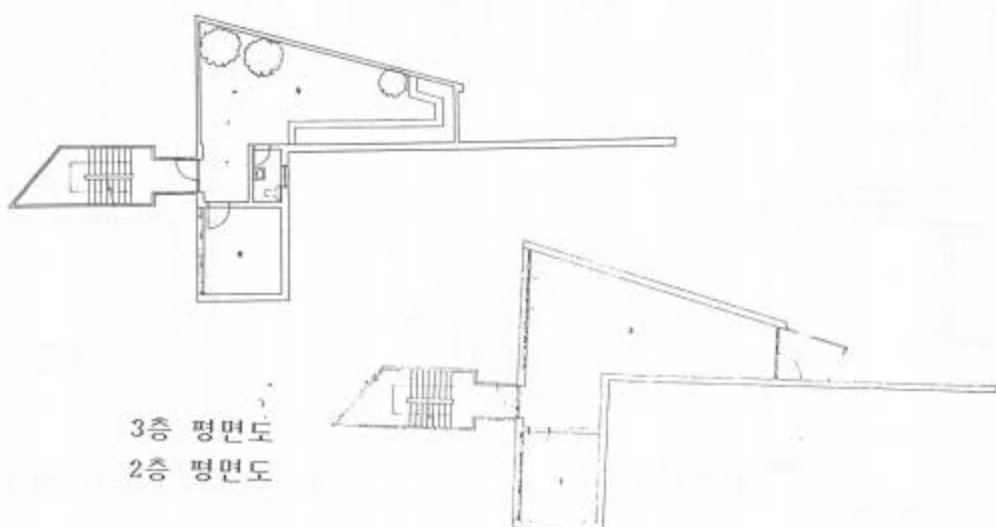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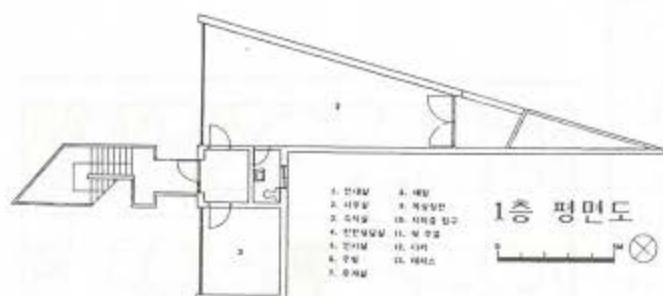
- A / 이용석, 김남식, 이향재, 김민경, 이병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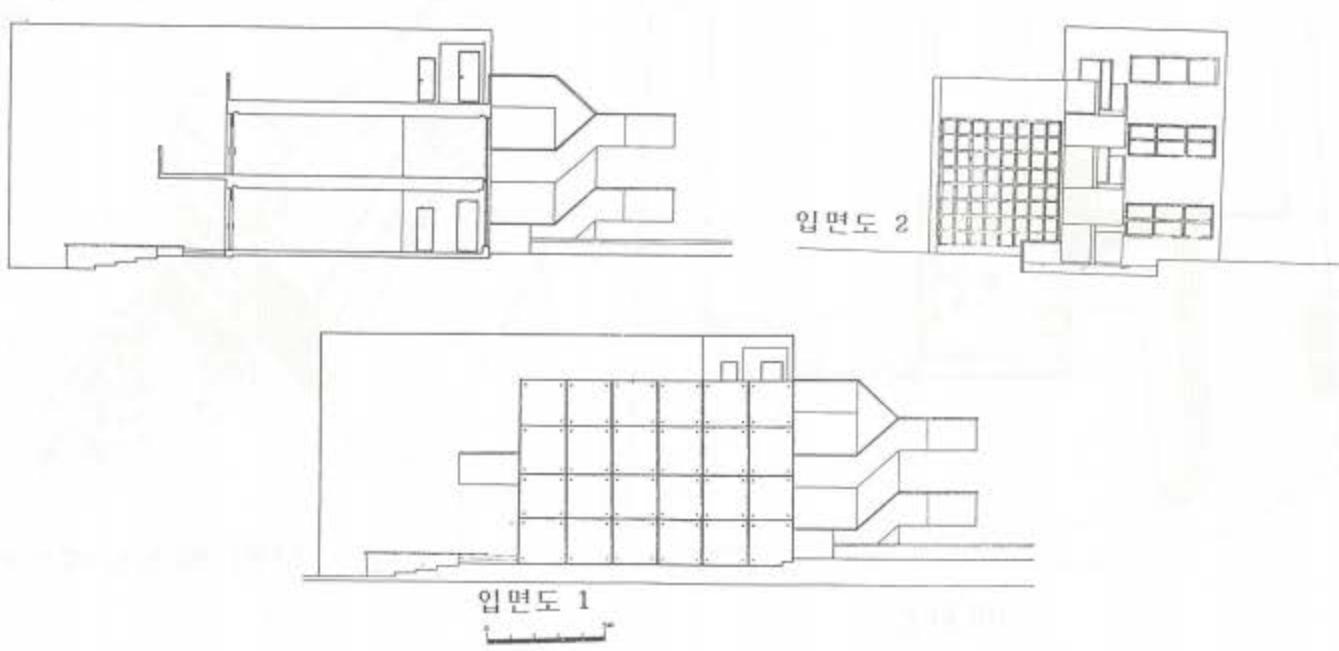
배치도



단면 액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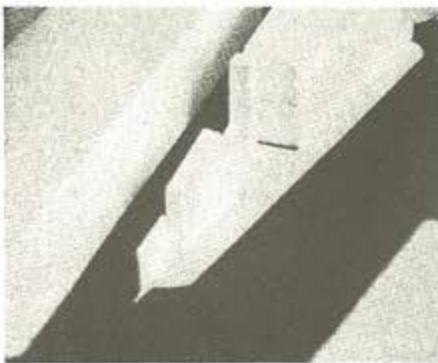


단면도



I B팀 : 모서리와 동선축

윤석길, 이용신, 윤혜정, 박효섭, 차성호



■ 설계개념

1. 대지분석

- 대전역과 도청을 잇는 중앙로와 삼성로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의 한 블럭옆에 위치하고 있다.

- 대전역의 이용객과 삼성동쪽에서 구시장쪽으로 이동하는 유동인구가 많다.

- 삼성로(새길)는 새로이 형성된 길로서 그로 인해 블럭이 날카롭게 끊기었고, 변화되었던 옛길은 절차로 퇴보되는 상태로 차량의 유입이 적고, 보행자 공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 대전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의 가능성이 많고, 그런 면에서 블럭에서의 첫 출발점이 된다.

- 9m의 구도로와 30m의 신도로가 만나는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다.

2 개념

- 재개발의 가능성, 결절점으로서의 이미지를 매스에 부여한다.

- 낙후된 건물들, 무질서한 도로환경에 질서를 부여한다.

- 매스는 도로에 꽉찬 형태로 나가며, 공공건물로서 도심지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성격이 다른 두 공간 즉, 매스로 들어 설 부분과 오픈된 공간을 다리로 연결해 주며 질서를 부여한다.

3. 작품설명

- 3층의 매스는 1층에 경찰의 업무 및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2층은 다리가 지나는 부분으로 오픈 스페이스와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경찰의 홍보 전시 및 내부 휴식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3층은 숙직실 및 휴게실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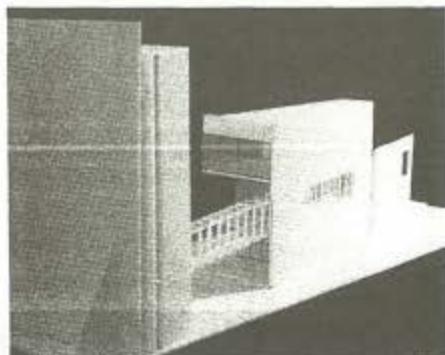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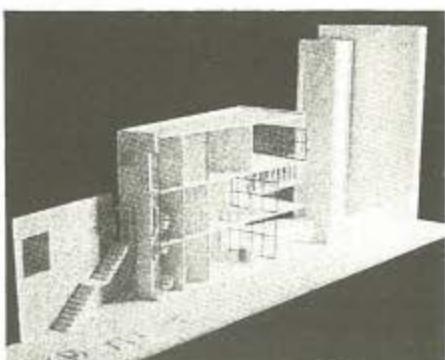
- 다리는 매스 전면에서 시작되어 오픈 스페이스를 가로질러 가며, 기존의 17m벽면에 대해 계단실로서 그 벽면에 대한 대응으로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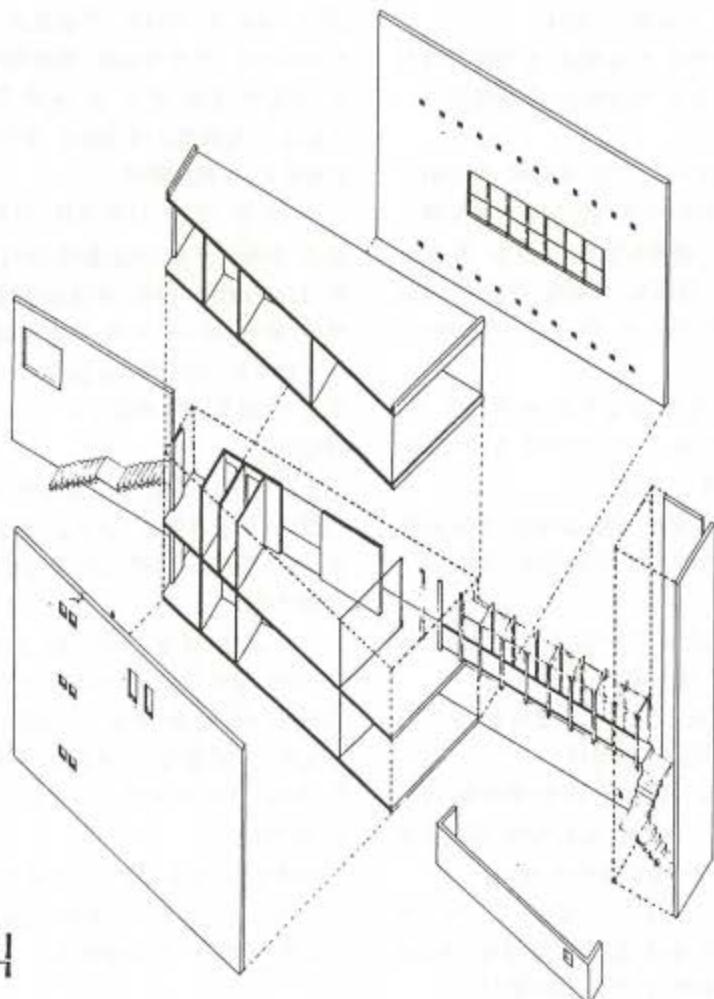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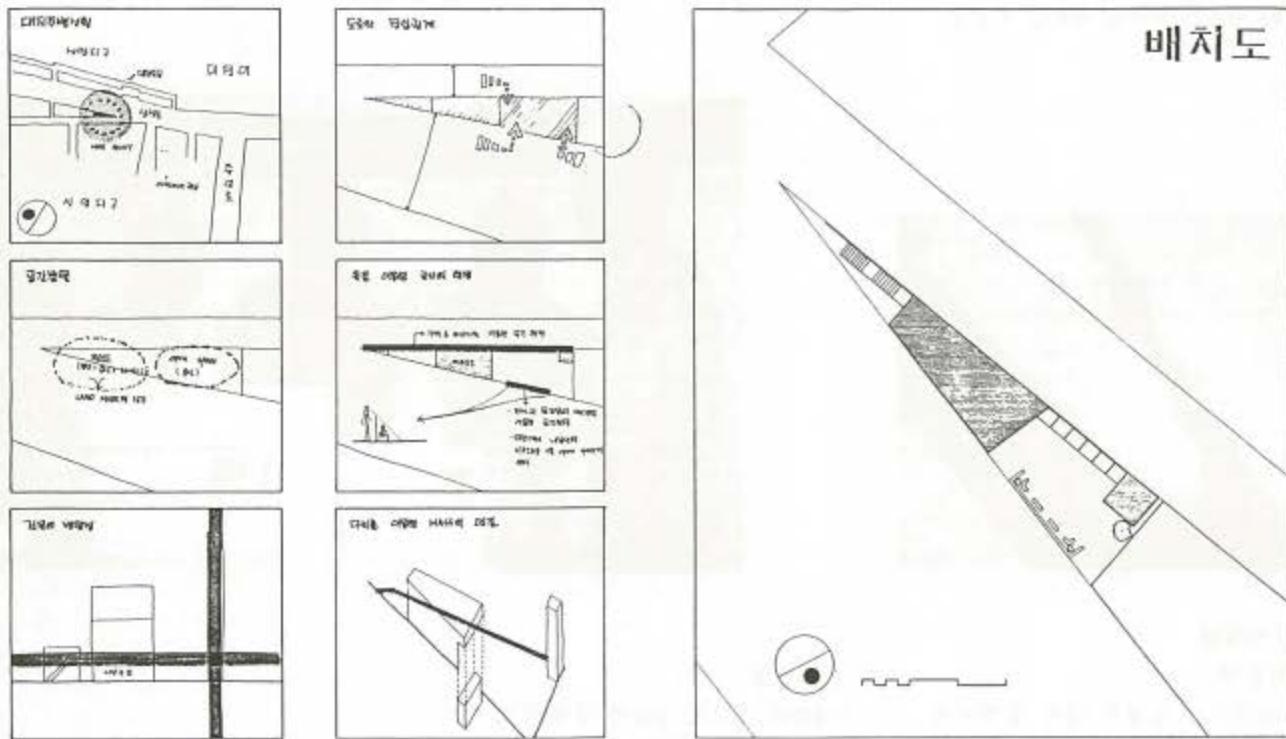
- 다리는 매스에 삽입되어 벽면에 엎인 형태로 그 방향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 오픈 페이스의 구도로측은 다리와 치면의 레벨차이로 공간을 한정하였고, 신도로측은 가벽으로서 공간을 한정하였다.

- 도로측 벽면은 개구를 소극적으로 하여 방향성을 강조하였으며, 오픈 스페이스에 접한 부분은 최대로 열려 있으며, 결절점에는 계단실과 화장실을 두어 되도록 외부공간으로 열리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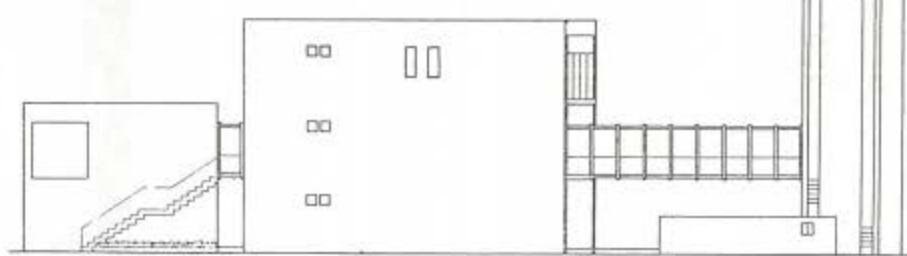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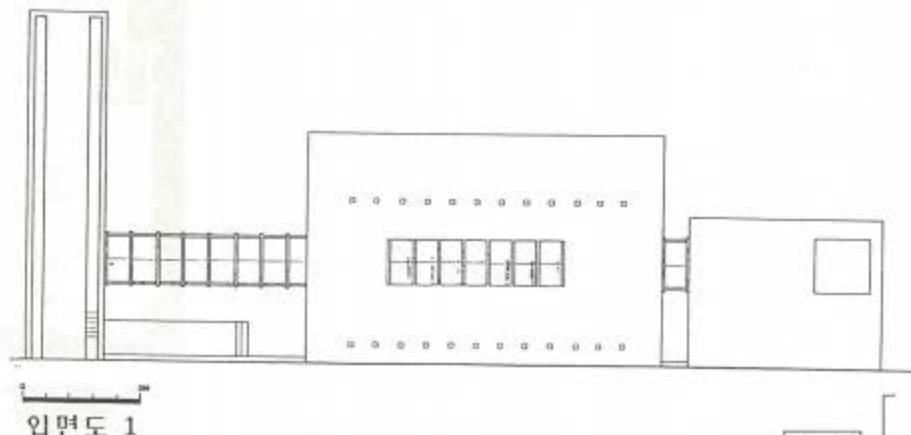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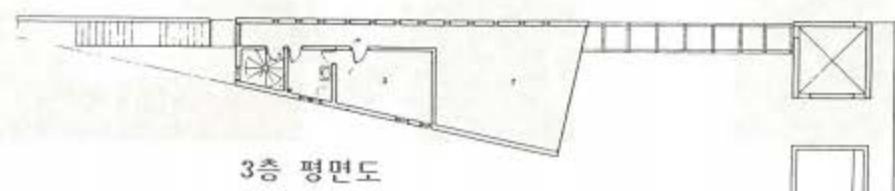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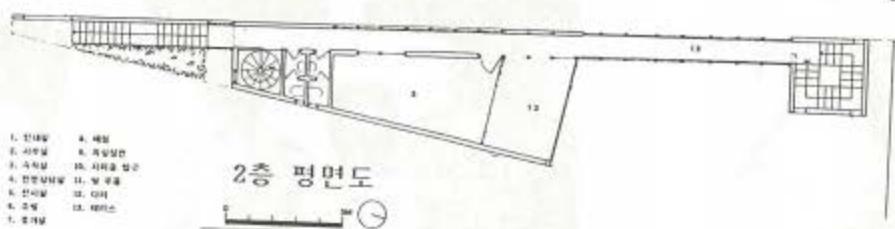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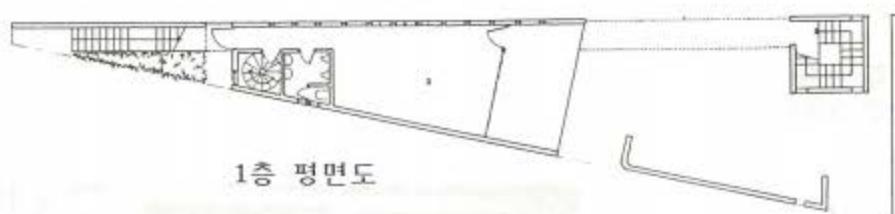
- 내부의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9m도로측은 바닥에서 50cm의 개구로서 동선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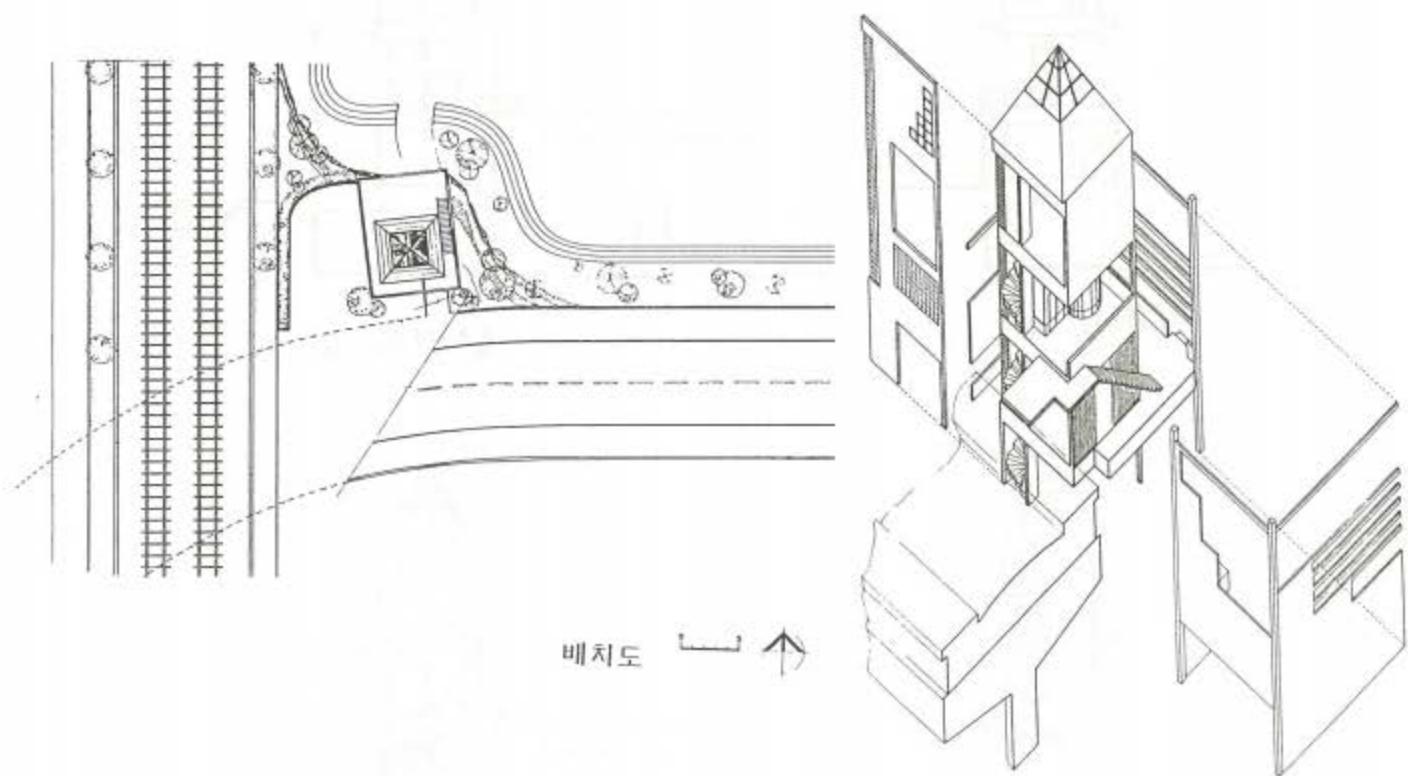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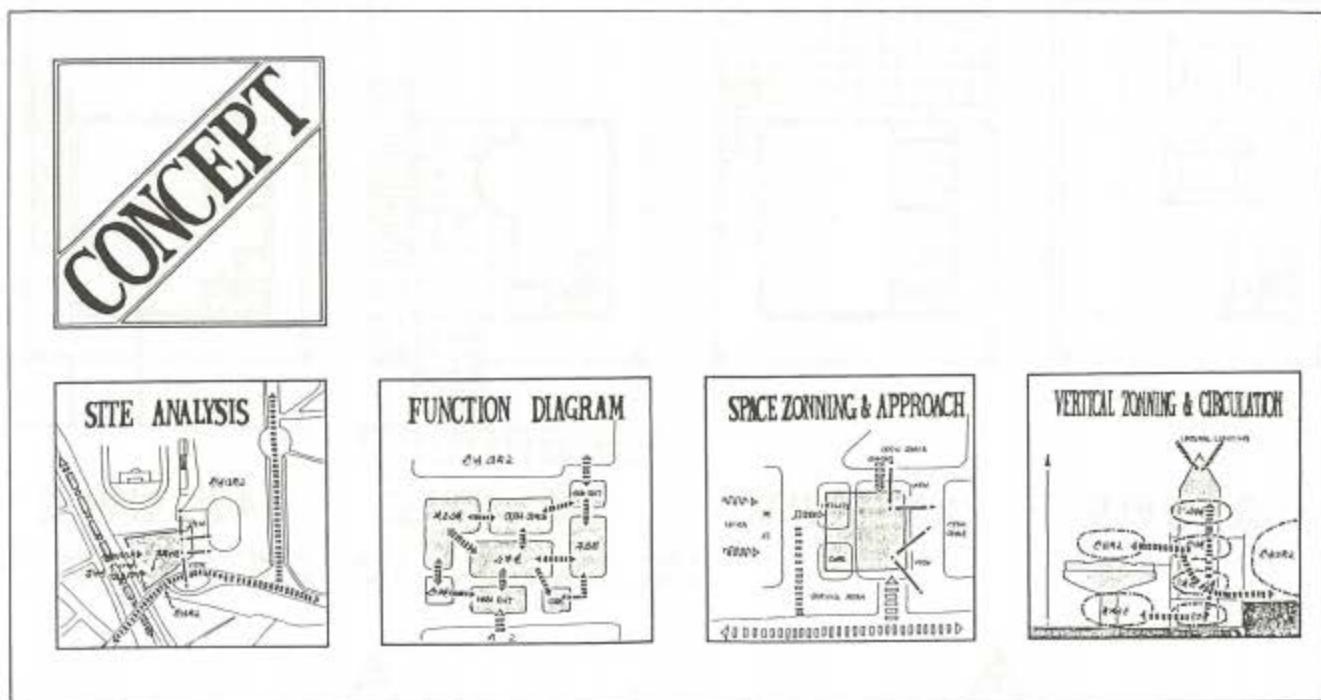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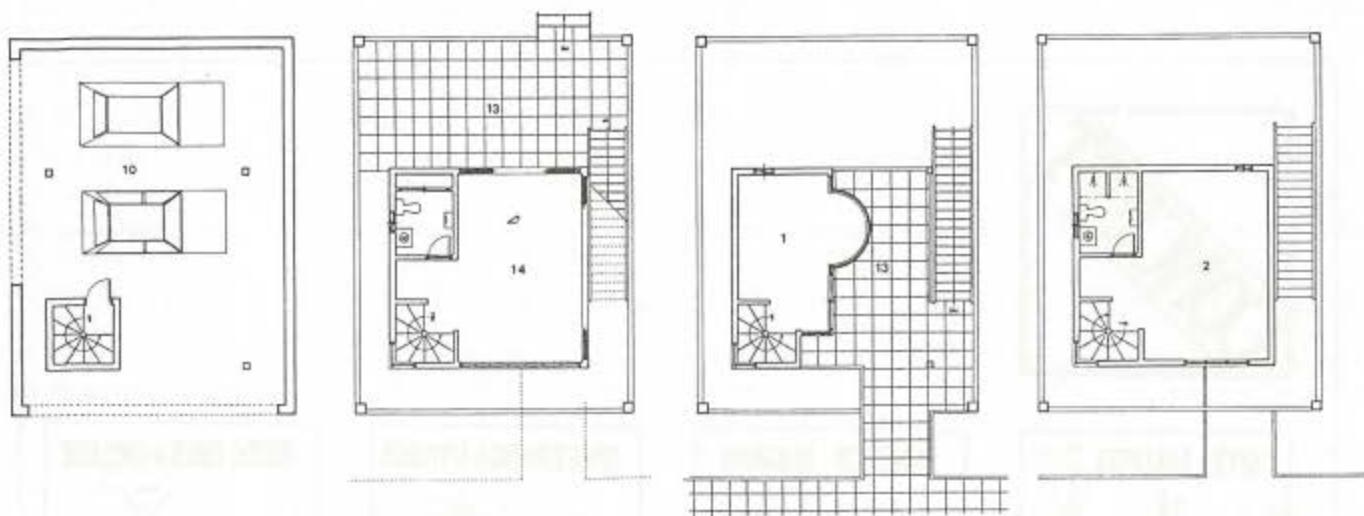
단면 엑소노메트릭

건축디자인캠프





단면 액소노 메트릭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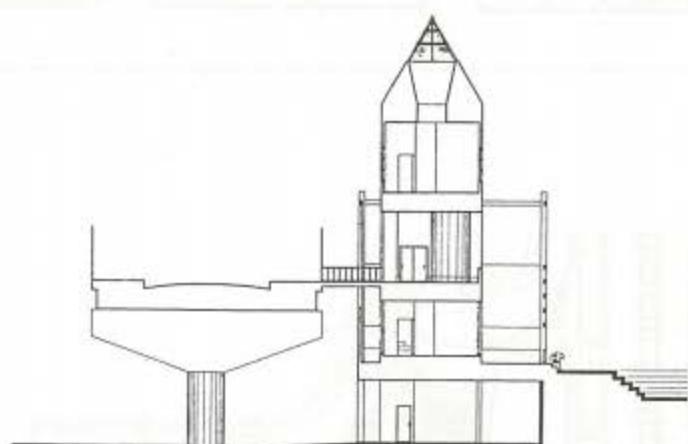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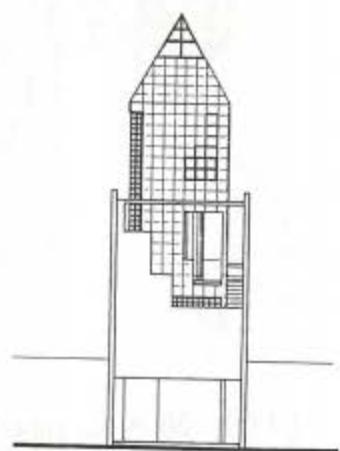
- | | | | | | | |
|--------|----------|--------|--------|---------|----------|---------|
| 1. 현대실 | 3. 습작실 | 5. 찬서실 | 7. 후개실 | 9. 옥상침원 | 11. 발 무관 | 13. 테라스 |
| 2. 사무실 | 4. 일한상담실 | 6. 주방 | 8. 미술 | 10. 주치장 | 12. 디리 | 14. 노안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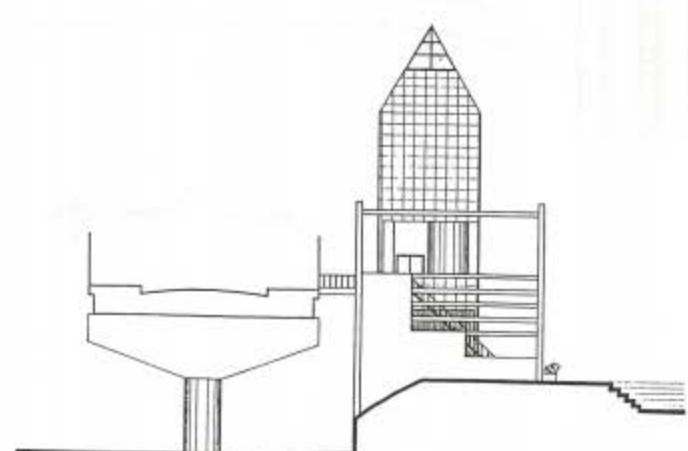
단면도 1



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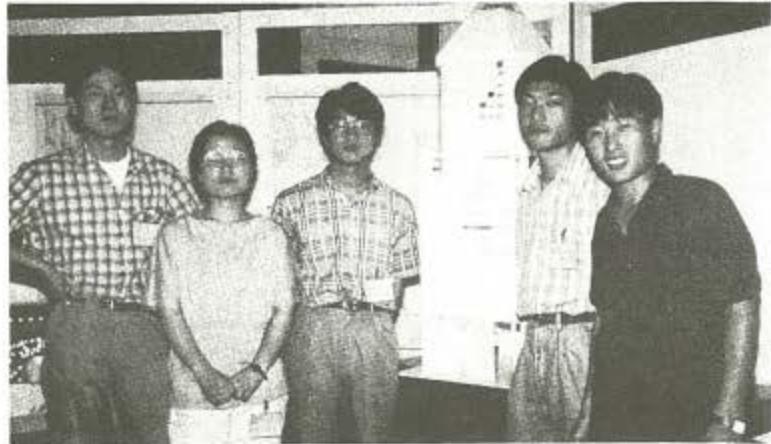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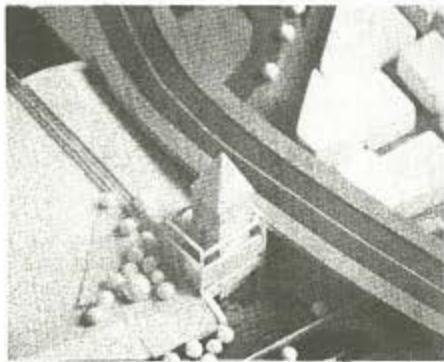
입면도 1



입면도 2

C팀 : 에워쌈과 수직적 형태

김봉호, 김태현, 최은주, 이희준, 정용우



■설계개념

도심내 소규모 공공건물(파출소)이라는 주제하에 본 팀이 부여받은 대지는 한남육교와 경부선 철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현재는 한남대학교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서리의 버려진 부지였다.

본대지는 배치도나 대지모형에서 보는 바와같이 대지의 특성이 평지와는 많이 달랐다. 첫째, 대지의 지반고가 매우 불규칙하다는 점이다. 한남대학교측의 레벨과 육교 아래면의 레벨이 서로다르고, 또한 새로운 새로운 대지로 형성되는 육교 윗면의 레벨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둘째, 대지의 서측면을 통과하는 경부선 철로의 영향이다.

따라서 본 팀의 설계개념 설정에 있어 대지의 특성을 도시적 이미지에 적절한 건축적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으며, 대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환경의 적극적 수용

- 경부선 철로(통과교통)에서의 도시의 이미지

- 육교 및 버려진 공간의 건축적 행위에 의한 재활용

- 육교와 대지와의 밀접한 연계성

- 이러한 대지분석을 토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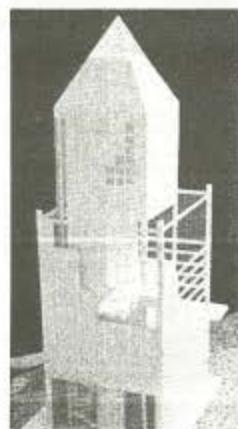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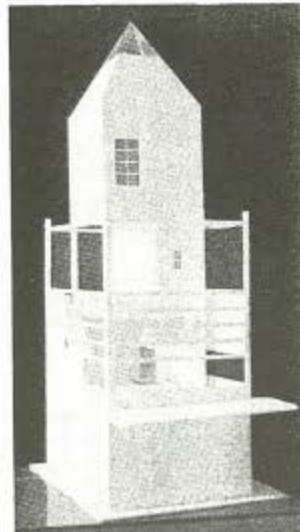
- 단순한 기능상의 파출소를 지양하고, 공공복지시설의 적극적 도입으로 도시와 시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건축적 공간

- 도시의 식별성 강조를 위한 수직적 이미지

- 수직적 형태를 강조하기 위한 오브제의 내외화, 에워쌈의 외피의 이중적인 테두리로 내부 오브제의 상대적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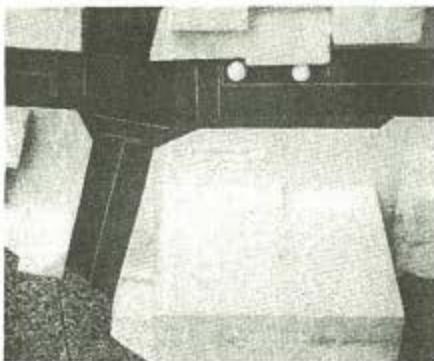
- 수직적 형태의 유추를 위한 컴팩트한 평면계획

- 주진입을 새로운 지상 레벨인 한남대교로 설정하고, 부진입을 한남대학교측과 육교아래면으로 설정함으로써 대지의 단면특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러한 개념하에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에워쌈에 의한 수직성의 강조, 도시와 소규모 건축물과의 흐름, 그 흐름 속에서의 공공건물의 위상 등이 관련 만족할 만큼 표현되었다는가에 대해선 스스로 아쉬움이 남는다.



| D팀 : 면과 동적 형태

송희근, 김지원, 박봉운, 오중민, 이양훈



■ 설계개념

1. 계획개념

도심의 문화권 지구와 접해 있는 지역으로 현재는 3~4층의 건물군이 이루는 기존 가로질서와 몇개소의 고층건물들이 자리잡고 있다. 도심속의 정원이고, 주변블럭의 구심적 공간이 되는 대지이며 중앙로상의 몇개의 공간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대지이다.

2. 위치개념

1300여평의 대지에 과연 어느 위치가 우리 프로젝트에 타당한 위치인가.

- 마당과 노우드(node)가 적극적으로 만날수 있는 곳

- 교보빌딩의 면성이 강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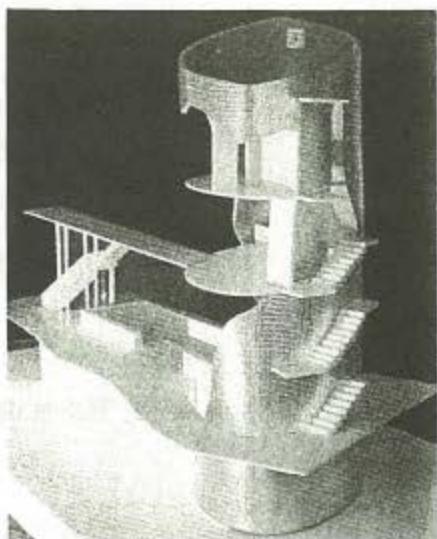
- 기존의 건축적 요소가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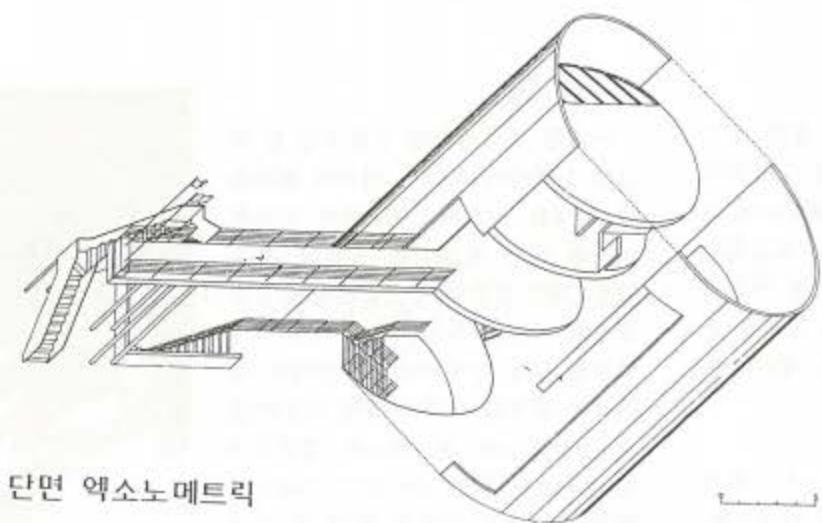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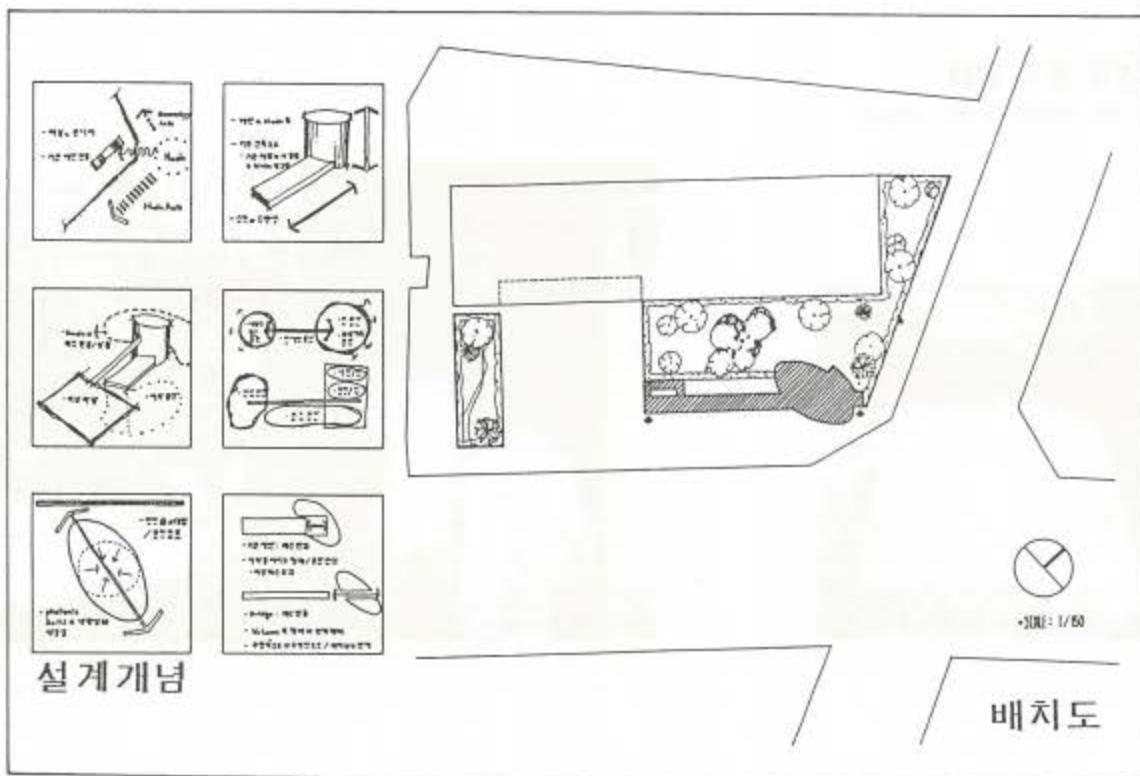
- 마당의 구체적 성격분석 (허와 밀등)

위 사항에 합당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당의 한쪽 모서리의 기존 지하 교보문고 계단실(18×4m)과 관련 되어져 세워져야 할것이다.

3. 공간개념

- 기존 지하계단의 수평성과 본 매스의 수직성이 하나의 인과적 결과물로 관계를 갖으며, 계단실의 규모와 인지를 위한 브릿지로 한정된 지하, 지상, 지면 공간의 공유공간과 브릿지 상부에 중요한 사무공간 그리고 그에 연계된 사적 숙직공간이 구성되며, 주현관과 관계된 마당에 대한 대웅공간, 즉 접근공간과 본 매스에 접근되는 선적인 브릿지(곧 전이공간) 그리고, 최종에 도달하는 궁극적 공간 및 기대 공간인 본 매스의 공간과, 일종의 축의 시점과 종점이 역동적 요소의 서비스 형태인 계단으로 한정되어 진다. 그리고 건축적 토대인 계단실과 관입이라는 관계로 본 매스 내부에서, 빛우물로 이루어진 계단의 흔적과의 사이공간이 내부공간을 보완해 주고 있다.





단면 액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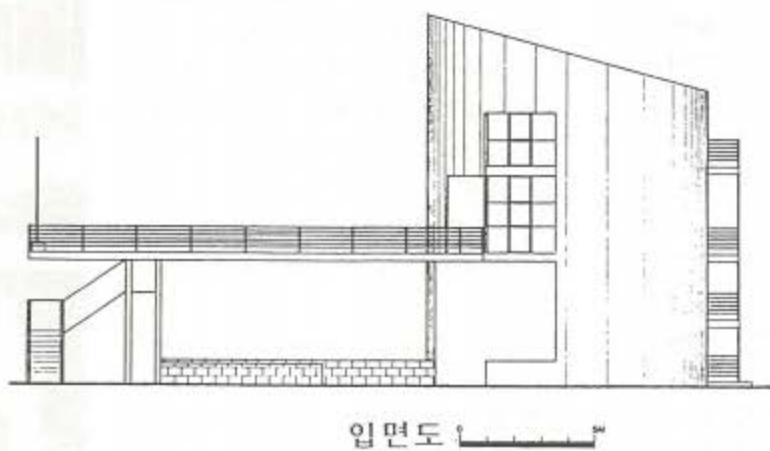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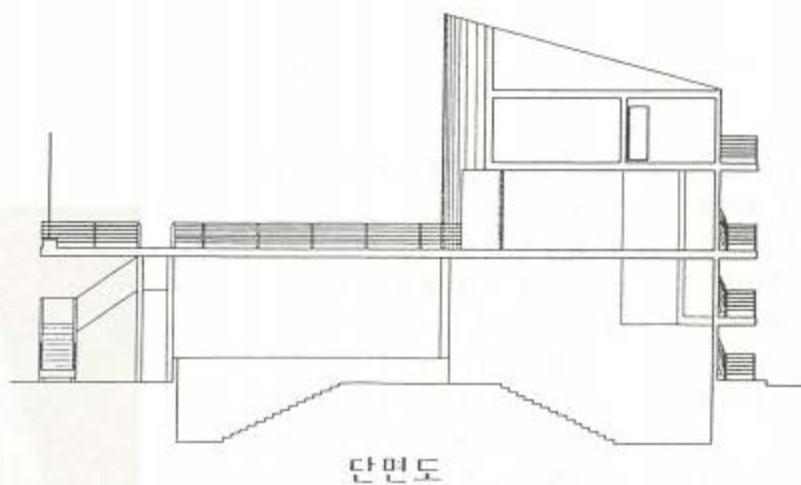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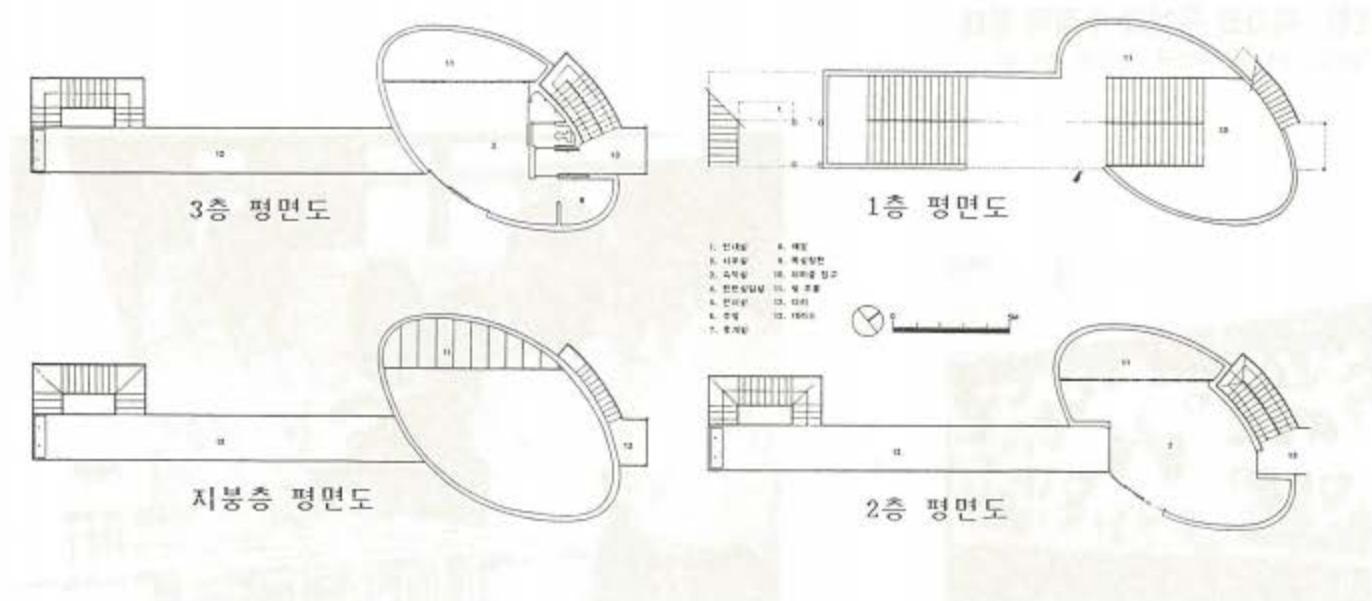
4. 형태개념

면성(面性)으로의 교보빌딩이 그라운드 또는 스크린으로 작용하고, 그 속에서 작은 형태로 대별되어지며 정적인 면에서 동적형태로 그 성격을 달리하여 외부와 대응되는 형태가 요구

되어짐에 따라 면성과 형태적으로 대응된다. 그리고 2차원적 그라운드에서 보다 명확한 특성으로 자리할 수 있는, 플라토닉 솔리드인원이 노우드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형됨으로써 역동적 요소인 계단 등 뿐 아니라 형태 자체의 구별을 꾀하였고, 지하계단의 의미를 지상에서 인식하고 수직적 형태를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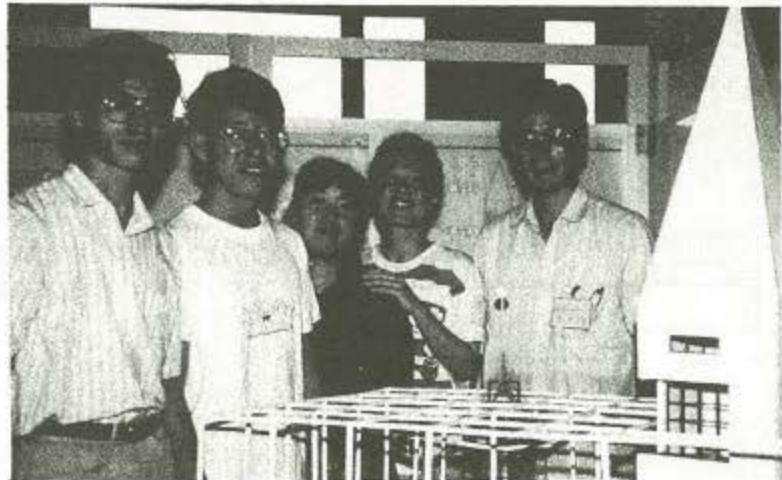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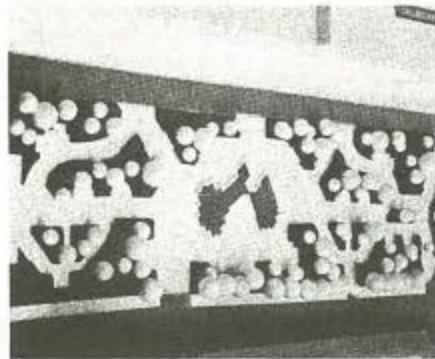
와주는 수평성의 요소로서 브릿지가 선적요소로서 매스와 관통되며 관계를 갖는다. 또한 지하계단과 본 매스와의 관입이라는 관계를 통해 그 사이공간을 형성하며, 지하층에서의 지상 매스인 인식성을 갖고자 하였고, 하늘과의 관계 형태를 플래트한 교보건물과는 다른 사선의 형태로 처리하였다.

건축디자인캠프



| E팀 : 격자와 두개의 수직적 형태

임공빈, 유병숙, 박현규, 권기용, 황현하



■ 설계개념

6월25일 임시모임에서 팀을 조성하고, 우리 여름사냥팀이 받아쥔 대지는 홍명상가 앞 공원이었다. 대전천 복개 공사 이후 홍명상가 앞 주차장으로 쓰이던 그 넓다란 공간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나마 도심내 공원 조성이라는 취지하에 조성되어진 것은 좋은 징조라 하고 싶다.

현장답사 이후 조사해 온 자료 주변상황, 동선, 교통량, 소음, 통파인원, 주변사진(부지사진)를 바탕으로 중앙부 통로옆에 파출소를 두어 사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원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그리 높지 않은 크기의 건물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첫번째 지도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들출되었다. 과연 우리가 선택한 그 위치가 홍명상가 앞에 커다란 공원내의 파출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단지 접근의 용이성이라는 것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후에도 여러번의 지도가 있었고, 결국 다음과 같은 설계개념을 택하게 되었는데, 공원이라는 커다란 부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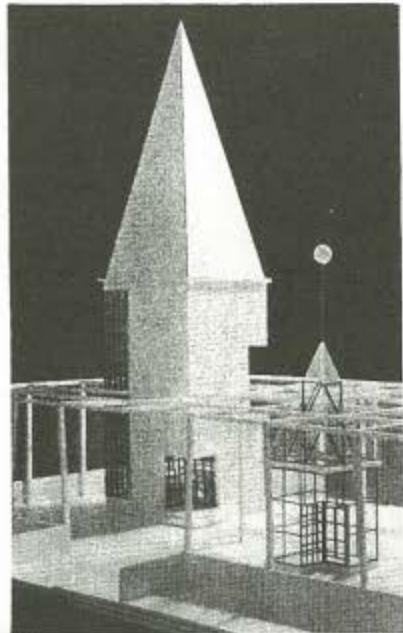
세 가지의 커다란 성격으로 묶는 것 이었다.

1. 도로에 의해 한정된 곳
2. 수목에 의해 한정된 곳
3. 물에 의해 한정된 곳

또한, 길다란 대지의 축 양끝에 시작과 끝이라는 모뉴먼트를 세우며, 우리는 도로에 의해 한정된 시작부분을 택하여 우리가 지을 파출소의 위치를 잡기로 했다. 시작부분이라는 이미지를 살려 공원으로 들어오는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원내의 모뉴먼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높이가 수직적인 상승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하에 충고를 높게 하였다. 또한 지붕을 모아 올림으로서 상승감을 더해주었다.

건물의 일부기능(안내)을 분해시켜 작은 규모의 건물로 따로 떼어 계획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배치가 산만해서 건물을 하나의 요소로 생각하고, 이것들을 묶어 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정연함과 변화를 함께 표현하기로 했다.



계획안의 평가

A팀 : 마당과 두면

■비평(김상겸 교수)

주어진 대지의 두드러진 특성은 첫째, 도심의 가장 번화한 네거리의 모서리에 위치하면서도 주변의 큰 건물들에 둘러쌓임으로 인해서 남겨진 블록내부의 작은 마당을 갖고 있다는 점과 둘째, 전면의 주간선도로와 작은 뒷길까지 연결되는 공간적인 축이 존재하면서 그것이 약간 어긋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계획된 개념은 우선, 주어진 대지를 상황에 따라 기존의 상공회의소 건물의 앞마당을 포함한 진입의 공간과, 작지만 어느정도의 크기를 가진 중간의 마당, 뒷길로 연결되는 작은 공간 등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세부분의 공간으로 나누고, 이를 세개 공간들의 상호연결과 특히 새로운 파출소의 건물이 이러한 공간의 흐름속에서, 또 중간의 마당과의 관계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였고, 더불어 이를 공간의 가장 큰 기능적인 역할은 도심내의 작은 소공원의 기능을 갖게 될것이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개념을 건축적인 해결로 이끌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유입 즉, 도입부의 처리와 동선의 처리가 일련의 흐름을 갖는 공간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 도로에서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

— 중간의 마당이 주변의 둘러싸인 다른 건물들의 벽면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되고, 대응되어야 할것인가

— 새로이 들어서게 될 파출소 건물이 주변(주위의 건물)과 중간의 마당

과는 어떠한 관계속에서 만나게 될 것인가

— 내부적 기능이 전체적인 개념의 틀속에서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 것인가

이상과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계획상에서 해결된 것중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던 점은 ①동선의 유입과 흐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앞마당의 레벨을 기존 상공회의소 건물의 1층 바닥면까지 옮겨서 전체적인 기단으로서의 틀을 형성하고, ②뒷벽면(건물의 후면 벽)과 정면 즉, 두 벽면의 면적인 요소를 강조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건물의 방향을 외부공간의 흐름속에서 일치시키고자 하였으며, ③중요시 되었던 중간의 마당을 둘러싸인 기존의 벽면들 사이에서 단순히 형성되는 마당이 아닌, 또다른 특성을 지닌 마당으로 해석되는 특성을 갖는 공간의 표현으로서, 주위에 물을 끌어 들이는 시도를 보여주었고, ④파출소 건물의 계단이 본 건물과는 분리되어 그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마당과 건물과의 관계 해결에 적극적으로 몰두하였고, 이 분리된 계단이 파출소의 기능적인 계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공공적인 성격으로 자리할 수 있어던 것은 건물에 파출소 기능 이외의 또 다른 공공적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큰 도로상에서 부각되는 두 벽면의 처리에 있어서 주변 건물과의 대응방식이 소극적이었고, 건물의 정면은 재료의 표현이 과장되어 지나친 감을 주기도 하였으며, 중간의 마당에 있어서 둘러싸인 주변전체와의 대응관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평면상에 있어서나 공간의 규모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커서 계단이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느낌을 떨칠수 없으며, 계단과 건물이 만나는 방식이라든가 내부공간이 외부공간과 연결되는 방식의 해결등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아쉬움을 갖는다.

■비평(김억중 교수)

도심속의 금싸리가 같은 땅은인데도 블록내부에 버려진 옥외공간들이 쉽게 발견된다. 이것은 블록단위 전체의 계획없이 개별필지로 개발됨으로써 파생되는 죽은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도시 전체로 보아 유용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적인 쓰임으로 의미있게 계획될 수 있고 둘째, 각 건물과 옥외공간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A팀의 대지는 이러한 문제를 함축적으로 드로내고 있다. A팀의 문제는 옥외공간의 장소성을 회복하고 도심내 소공원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긍정적인 것은 동선의 유입과 흐름을 위해 앞마당과 기존 상공회의소 1층바닥 레벨을 일치시켜 긴 옥외계단으로 이질적인 요소를 하나로 묶는데 성공하였고, 옥외계단뒤에 파출소 건물의 한면을 뒷벽면에 사선방향으로 놓음으로써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과 마당 스스로의 질서를 위해 벽면과 마당사이를 띄우고 그 사이를 물로 채우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 등이다. 또 파출소 건물과 마당과의 관계를 위해 옥외계단을 마당쪽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공공성을 더욱 확보한 것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좀더 풀어야 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로변의 기존건물과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내부마당 계획이 평면상에 그친감이 있으며 셋째는, 외부계단의 크기가 내부마당의 규모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커서 마당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 넷째는, 계단과 건물이 만나는 방식,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연결되는 방식도 내부기능 충족에 그치고 만 점이 아쉽다.

B팀 : 모서리와 동선축

■비평(김상겸 교수)

대전역앞의 폭이 좁은 구도로와 후에 생긴 큰도로 사이에서 마치 도시의 시대적 변화속에서 생긴 회생물로서 자투리로 남겨질 수 밖에 없었다는 자체로서 아주 불리한, 그러나 오히려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또 이외에도 그것이 날카로운 예각을 가진 기형적인 삼각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대지의 가장 강한 특성이며, 대전역 광장에서의 쉬운 시각적 연결과 많은 차량, 보행자의 통행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간파할 수 없는 대지의 여건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작된 계획의 전제(개념)는 삼각형의 끝 모서리가 도시발전의 시작점임을 암시해줌과 동시에 반대편에서 부터 오는 기존 건물군의 매스가 이 대지에서 끝맺음을 하게 될 것이라는 즉, 블럭이 마무리 된다는 양면성으로부터 출발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에 주목하고 있다.

- 도시발전의 시작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성격을 가져야 할 것

- 기존블럭의 마무리라고 하는 큰 과제를 건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

- 좁고 긴 대지가 갖는 물질적인 축을 공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

- 보행자를 유입시켜 단순한 파출소 기능 이외의 말 그대로 도심속의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는 점

이와같은 관심사는 어느정도의 상

정성을 갖는 출발점의 계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다리꼴의 파출소 건물 그리고 기존 블럭과의 사이에 계획된 마당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해결에 이르고 있다. 즉, 대지를 이미 성격이 뚜렷해진 모서리 끝부분, 건물부분, 마당의 세부분으로 나누었으며, 이들의 공간이 강한 동선축으로 연결되고, 그 끝에 수직적 요소로서 계단탑을 배치하여 기존 블럭과의 연결을 꾀하고 있다. 특히 기존 블럭이 마무리 되는 표현의 수단을 어떤 매스를 갖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둘려진 마당으로서 해결하려고 한 점은 매우 궁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다소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강한 동선축은 대지에 엄격한 질서와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음은 물론, 각기 성격이 다른 세 부분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변화있는 공간의 체험을 즐기게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중간층에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능을 도입하면서 더욱 보완적인 의미를 갖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도입부의 계단에 직접 면한 벽면의 처리가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다소 애매하게 나타났고, 강한 축을 형성하는 브릿지가 구조체와 만나는 방식이 명쾌하게 처리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구도로쪽의 브릿지, 큰 도로쪽의 계획된 벽면 그리고 기존 블럭의 벽면 등으로 둘러싸여 한정된 옥외공간이 여러 건축적인 수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남겨진 점 등이 짧은 일정을 구실로 그냥 넘기기에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비평(김억중 교수)

기형의 대지는 불리한 여건이면서도 건축가의 아이디어 크기에 따라서는 더 커다란 가능성을 가진 땅이기도 하다. B팀의 대지는 날카로운 예각의 삼각형으로 대전역 광장에서 시각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곳이다. 과거의 도로와 신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블록의 시작이요 끝이다.

B팀이 제기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면 도시스케일에서의 기념성을 얻을 것이며, 블록 스케일에서 기존블록의 시작과 끝으로서의 장소에 대한 정의 공공성, 그리고 대지스케일은 좁고 긴 대지를 서로 다른 성격의 두 도로에 어떻게 대응시킬것인가 등이 제기되었다. 이의 해결책으로서 대지를 성격이 뚜렷한 모서리 부분, 건물부분, 마당의 세 부분으로 나눠 동선축을 설정하고 그 시작과 끝을 동선 요소로 마무리 하였다. 기존 블록과의 만남을, 매스를 갖는 건물로서 처리하지 않고 둘려진 마당으로 해결했으며, 동선축을 설정해서 엄격한 방향성을 부여하고 각 부위마다 성격이 다른 공간의 체험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점은 궁정적이다. 그러나 동선끝에 놓인 계단벽면의 처리는 그 크기와 모양에 있어서 동선축을 강조하는 형태로서 표현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강한 축을 표현하는 구조와 그에 연계된 건물들이 구조적으로 명쾌하지 못하며, 그 결과 매달린 것인지 상호관입된 것인지 애매모호한 형태로 남게되었다.

| C팀 : 에워쌈과 수직적 형태

■비평(송인호 교수)

철도는 20세기의 대전이 근대적인 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철도는 이제 대전을 통과 서로 단절하면서 도시의 중심부를 관통한다. 한편, 철도에 의해 길이 끊어지는 곳은 지하도로나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그것은 다시한번 도시를 단절한다. 철도는 근대 도시 대전의 상징적인 도시구성요소이면서, 한편으로 도시 맥락을 왜곡하고 단절하는 장애물이다. 이 계획안의 대지는 한남대학교의 한모서리로, 경부선 철도와 그것을 건너기 위한 고가도로가 교차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C팀은 단절이라는 대지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입방체의 공간을 설계개념으로 선택하고 있다. 입방체의 공간은 계획대지에 면하고 있으면서, 서로 단절된 세개의 레벨—고가도로와 한남대 소운동장, 그리고 육교 아래의 옛길을 이어준다. 그 공간의 윤곽은 에워쌈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한편 소규모 공공건물로서의 기념비적 성격은 수직적 형태라는 설계개념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작지만 수직적인 형태를 통하여 한남대의 모서리를 표현하고, 동시에 고가도로 및 경부선 철도로부터 형태적으로 인식되도록 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 에워쌈과 수직적 형태라는 설계개념은 주어진 대지의 왜곡된 모습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현대도시에서 상실되고 있는 소규모 공공건물의 기념비적 성격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 두개의 개념은 짹을 이루면서 서로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즉 수직적 형태는 에워쌈에 의해서 더욱 수직적으로 표현된다. 이런 점에서 두개의 설계개념의 선택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단절된 레벨들을 이어주는 공간은 각 레벨에 접하면서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다. 고가도로 아래의 옛길에 면한 레벨은 기능적으로는 서비스 시설을 가지면서, 수직적인 형태를 위한 기단의 역할을 한다. 한남대학교에 면한 레벨에는 노인정의 기능을 부여하고, 그 공간의 윤곽으로 수직적 형태를 에워싸고 있다. 고가도로에서 수직적 형태에 이르는 과정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 수직적 형태의 일부는 파출소의 기능중 보다 사적인 기능을 설정하여 닫힌 입면을 가지며, 고가도로와 만나는 레벨은 상대적으로 공적인 기능을 설정하여 열려진 입면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계획안은 대지조건과 건물의 성격의 해석으로부터 건물의 형태와 공간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능에 의해 적절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도시속에서 건물의 의미와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설계개념이 구체화된 결과에 대하여 몇가지 미숙한 표현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공간의 윤곽과 수직적 형태의 표현에 관한 것이다. 공간의 윤곽은 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열림과 닫힘이 보다 대조적인 형태로 표현되었어야 했으며, 수직적 형태도 가능한한 형태의 윤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열림의 정도를 절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직적 형태의 평면을 9분할 방식과 같은 기준선을 바탕으로 구성했더라면 보다 질서 있는 평면구성이 되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간의 윤곽과 수직적 형태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계단으로 처리된 틈을 제외하고, 그 사이는 아무런 의도없이 그저 윤곽과 형태의 사이공간으로 남겨져 있을뿐이다. 둘은 서로 축을 달리하면서 의미있는 방향으로 어느정도 들어질 수도, 또는 그 사이공간의 폭을 달리하면서 적절한 기능과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비평(김억중 교수)

도시구조의 개편에서의 고가육교의 해결방안은 매우 쉽고 기능적인 선택이지만 도시속에서 육교 위·아래 좌·우 할것 없이 버려진 공간으로 남겨져 주거환경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도시 조형적인 측면에서도 기능만이 고려된 구조물을 어떻게 형태적으로 치유할수 있을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이 대지는 남북방향으로 철로가 지나고 동서방향으로 고가육교쪽과 한남대쪽과 적절한 지형조건을 살리면서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맞춰 규모를 결정하지 않고 형태적으로 적합한 규모를 먼저 결정하고 그 기능을 채워나가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직적인 형태를 표현하면서도 중심에 닫힘이 강한 매스와 외곽에는 그와 대조되도록 열림이 강한 격자구조들로서 의미를 이중화함으로써 육교와 중심의 주요매스를 형태적으로 의미 있게 연결시키고 있다. 그럼으로써 중심의 매스크기와 위치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점이 뛰어나다. 다만 중심의 닫힌 면구조와 외곽의 열린 기둥구조의 대비가 개구부 구성에서도 그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처리되지 못한점이 아쉽다. 그리고 계획안에 나타난 중심매스와 외곽의 격자구조 사이공간의 크기만으로는 아직 명확한 장소로서의 의미를 얻고 있지 못하다.

’92 제4차

건축디자인캠프

문화의 거리·중앙로／’93 EXPO 관광안내소

1992. 6. 30~7. 7／대 전 대 학 교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 건축사회
주관 : 대전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D팀 : 면과 동적형태

■비평(김억중 교수)

80년대 이후의 시내 주요간선도로변의 건축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규모의 필지가 합병되면서 거대한 매스가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들어서고 있음을 본다. 법규가 허용하는 최대의 용적율에 의한 매스의 크기가 도시구조로 부터 비롯되는 매스의 규모 산정방식보다 더욱 중요한 의사결정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도로변 이미지는 변할 수 밖에 없고, 그간의 중·소규모 매스들에 의한 입면의 연속성은 서서히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규모 매스들이 들어선다는 사실 자체를 못마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시구조와 무관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요컨대 기존의 매스와 신축하는 매스간의 관계, 매스와 도로와의 관계모색은 신축될 건물이 크건, 작건 디자인의 주된 과제이기 때문이다.

D팀의 교보빌딩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두개의 도로가 만나는 결절점(mode)에 있으면서도, 매스는 그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매스 앞에 길게 놓여진 마당은 도로와의 관계 안에서 건축적으로 잘 정의 되어졌다가 보다는 꽃, 나무를 심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남겨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검토되어져야 할 과

제는 이 건물이 과연 대지의 특수한 조건에 의해 형태가 다듬어졌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러한 대지로 부터의 요구가 성실하게 디자인에 반영되었다면 지금의 모습처럼, 전국 어느도시의 교보빌딩의 복제된 모습은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어휘의 사용이 경영전략상 필연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어휘는 그것이 놓이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형되었어야 한다. 그러한 변형의 근거가 곧 대지의 조건이다. 그러한 변형이 있어야 그 건물이 그자리에 그런 모양으로 서게 되는 타당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D팀의 과제는 바로 대지의 조건을 재해석하여 교보빌딩이 안고 잇는 도시구조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D팀이 제기했던 디자인 문제들은 첫째로, 어떻게 하면 소규모 매스를 앞 마당에 넣으면서 결절점과 도로에 대응하는가 하는 점과, 둘째로서는 그러면서도 교보빌딩을 배경(ground)으로 하며, 형태적으로 모순이 없는 오브제(figure)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점으로 요약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첫번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D팀이 택한 파출소의 위치선정과, 그것과 마당, 도로를 의미있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긴 동선요소의 결합은 매우 타

당한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지하로 통하는 옥외계단을 적극적인 단서로서 사용한 것은 합리적인 수순으로 보여진다. 결절점에 위치한 파출소의 불륨형태가 타원형으로 선택한 것은 그 크기가 적절한가 하는 문제를 차치하고 보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좌측의 긴 동선요소가 수평적인 형태가 되면 결절점에서의 매스는 수직적이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두번째 문제와의 모순없는 해결을 위해서는 교보빌딩안쪽으로 그 매스를 위치시켜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안쪽방향으로 기울인 타원형의 선택은 매우 종합적인 처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긴 동선요소와 수직 매스의 상호관입은 이들간의 형태를 더욱 명료하게 표현하려는 수단으로서 역시 긍정적인 처리로 보여진다. 다만, 타원형 내부에서도 그러한 상호 관입의 형태가 공간 안에서 명료하게 인지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며, 기왕의 동선요소들이 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이 경험되도록 배려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하공간과 지상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고려되지 않은 것도 결점으로 지적된다.

건축디자인캠프

| E팀 : 격자와 두개의 수직적 형태

■비평(김억중 교수)

대전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적어도 도시경관과 구성요소로서 재해석 되어야 할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동·서방향의 대전역과 도청사이의 중앙로와, 남·북방향의 대전천은 대전의 도시 이미지를 요약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바로 그 부분에 흥명상가, 중앙데파트가 들어서면서 건물크기 만큼 앞부분이 복개되어, 그동안 줄곧 공공적인 장소로 쓰여왔다. 때로는 포장마차가 들어서기도 하고, 한때는 주차장으로 쓰여지다가 최근 시민공원으로 조성된 곳이다. 매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장소가 건축적으로 잘 정리된 육외공간으로서 그 질을 얻고 있지 못했던 점이다.

최근에 조성된 시민공원에서도 그 절점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첫째는, 주변의 도로, 매스 즉 주위의 도시구조 속에서 대지의 영역을 성격지워줄 수 있는 경계가 건축적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다. (도입부 혹은 매개공간의 설정)

둘째는, 남북방향으로 주동선을 구성하면서도, 그것이 대지전체의 조형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는, 대지가 성토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간의 관계가 수목을 심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의 차이를 두었

을 뿐 그것이 의미를 갖는 레벨차로서 해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문제점들은 실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매우 긴밀한 것들로서 파출소가 들어서면서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여진다. E팀에서는 우선 대지를 커다랗게 세부분으로 나눠, 각 육외공간의 성격을 부여하려는 전제로 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남·북방향의 축을 인정하되 남쪽부위는 대전천의 틀과 관련지워 보려는 성격의 육외공간으로서 중앙부위는 본연의 수목공간, 그리고 북쪽 부위는 중앙로와 관련지워보려는 성격의 육외공간으로 분화하고자 했다. 그것은 곧 대지전체의 경계를 도시구조속에서 보다 명확히 성격 지으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러한 커다란 전제를 가지고 E팀에서는 북쪽부위에 대해서만 설계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장소의 성격은 1차 도로에서 수목공간으로 전이영역이며, 그영역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개념은 격자구조 특(frame)이 였다 사실 소규모 매스로는 상대적으로 큰 대지를 의미있게 제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E팀에서는 소규모 매스를 형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데이텀(datum)요소로서의 격자구조들을 선택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소규모 매스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요약하면, 도입부 마당을 정의하고, 소규모 매스를 형태적으로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격자구조들을 사용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었다.

도입부에 계단을 둔 것은 앞에서 지적한 세번째 문제의 대안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마당 밖으로 부터의 형태적 요구는 확실히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 안으로 부터의 요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즉, 수직매스가 격자구조들을 끊고 나가야 하는 요구는 매우 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격자구조를 상부와 하부간의 매스 윤곽은 다를 수록 더욱 좋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격자구조를 하부의 매스가 마당을 염두에 둔 육외공간을 가졌더라면, 매스와 마당간의 관계는 더욱 의미 있게 표현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획안에서의 테라스는 매스의 일부를 활애하는 정도의 매우 소극적인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이 계획안이 남겨주는 건축적 교훈은 데이텀(datum)요소의 중요과 그것을 주위로 하는 안·밖의 요구가 공간과 형태에 있어서 동시에 성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일지 / 참가학생들의 고통과 열정

〈6월 25일 / 화요일〉

서로다른 교육환경속에서 훈련받은 대전시내 5개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님 건축사님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었다.

작년과는 달리 일주일전에 이러한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일정에 여유를 가질것 같은 행복스런 예감을 느끼게 했다.

10 : 00 강의—설계주제 : 도심의 소규모 공공건물 1대지 프로그램

11 : 00 강의—파출소의 기능과 위상

대전경찰서 보안과장님께서 파출소의 업무, 근무방법, 전반적인 파출소의 기능과 현실을 말씀해 주셨다. 현실의 열악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14 : 00 팀구성—각 대학 학생 한명씩 5개팀이 구성되었는데 우리팀은 C팀으로써 김봉호, 김태현, 최은주, 이희준, 정용우가 구성원으로하여 한남파출소 대지를 부여받았다. (C조)

●팀명을 지으려고 머리를 조아렸다. 여러가지 안이 나왔다. 매니아, 매쉬, 여름사냥, 임공빈과 그악당들, 백병(?) 다솜 등등.....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정하고자 열심히 생각하는 조원들의 열의가 좋게 느껴진다.

우리조는 study 하기가 수월하겠구나. (아닐지도 모르지?)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사냥”이라는 팀명을 정한후 강의를 들으러 들어갔다. (E조)

〈6월 28일 / 금요일〉

●공식적인 일정에 잡혀있는 날이 아니었고 팀별로 자유롭게 대지측정과 사진촬영, 교통량조사를 했는데 은주, 희준, 용우가 많은 고생을 했다. (C조)

〈7월 1일 / 월요일〉

●6월 25일 강의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model을 만들기 시작했다.

scale은 1/100

각 대학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사고로 하나의 통일된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 서로 머리를 조아리며 의견을 내놓는다.

기존에 있는 site model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 동일해야 하지만 만들다보니 여러가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된다.

8시가 되어도 끝내질 못했다. 내일부터 알찬 Desing Camp를 위해 오늘은 좀 쉬어야지. (E조)

〈7월 2일 / 화요일〉

●11 : 00—『한국 건축의 외부공간』/ 안영배 교수님

● 건물은 그 장소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사원 건축의 대부분은 건축물 서로로서가 평행하거나 직교하지 않고 지형에 따라 (ex : 현관의 인지를 위해) 조금씩 들어져 배치되어 있다.

Q : 고건축과 현대건축의 접목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A : 현대적인 구조, 감각이 완성된 후 고건축을 수용해야 한다.

고건축을 수용한다는 것이 꼭 형태나 재료를 고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A조)

● 강의—초청강연으로 서울시립대 안영배 교수님께서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한국건물 배치는 질서여부와 함께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게 했다. 곧 지형을 건축화

고건축과 현대건축의 접백 : 논리적으로, 감성적으로, 감성으로 찾고 논리적으로 적용시키는데 중요(C조)

● 2 : 00 강의—계획안의 표현—도면 & 모형에 대해 송인호 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 계획도면—1/50, 벽두께 구별, 개구부 표현, 기초표현無.

● 입체적표현—3차원적 공간과 형태, 단면 액소노메트릭.

— 평·단면 모두 표현(B조)

● 19 : 00 강의— 대전의 건축, 설계 교육과 실무(송승호 회장님)연대별로 건축의 발전과정을 강의하셨고 요즘은 학교교육이 실무에서도 직접 적용된다.

첨단 과학기기를 이용한 CAD등 과학적 교육과 습득을 장려

팀토의 : 첫번째 토의했던 내용을 Diagram화 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고성이 오갔지만 의견을 한곳으로 몰아가는데 일치를 보였다(C도)

〈7월 3일 / 수요일〉

● 10 : 00—(평가) 대지 분석 및 설계 개념

1. 삼각형 모서리의 처리
2. 앞, 뒤도로와 건물의 관계 및 성격 파악
3. 도로면의 조치
4. Open의 방향 (남겨진 채 open 채우면서 open)
5. 날카롭고 시각성이 강해야 한다.
6. 조형물로 가져가려는 의도는 ? (B조)

● 18 : 00 강의—소규모 공공건물의 사례

박만식 교수님께서 외국의 파출소 슬라이드를 보여 주셨는데 깨끗하면서도 산뜻한 이미지를 가졌고 공공적 성격 아 강하게 풍겨나왔다. 오브제적 요소가 두드러졌다. (C조)

● 19 : 30— 팀작업에서의 어려움은 바로 이런데서 오는 것이다.

건축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건축디자인캠프

조금은 상이한 환경과 교육을 받은 다섯인이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안으로 사고를 정립시켜 나가는 것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심정 (A조)

● 21 : 15 — 팀별 CRITIC (D조)

팀토론 1. 교보를 Screen으로 사용오는쪽에 건물 위치

내용 2. 건물 의워서 세우겠다.

3. 위치(2곳)

Critic 내용

- 면으로써 한정시켜 주는 공간
- 건물형태와 Node와의 관계(도시스케일)
- 건물형태를 (장방형)으로 못박으면 빈약하다. 이미 제한 되어짐.
- 교보빌딩에 피해가 가지않게
- 정적이면서 기존계단과 Node와 더불어 형태설정 나란히 측....
- 점적인 성질을 가지면서 어떻게 뒷 건물과 연결(연기지 않게)

〈7월 4일 / 목요일〉

● 19시45분—강의 : 근대화과정에서 도심의 소규모 공공공간/김정동 교수 비록 일본의 잔재에 의한 또는 서방 외세에 의한 건물 DETAIL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역사상 가치있는 건물들이 방치된채 훼손되어 가는것을 보면서, 오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의 혀약하고 열악한 박물관의 형세를 또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A조)

〈7월 5일 / 금요일〉

● 평가 4 : 기술 관점에서의 설계평가/ 구조, 재료, 시공

구조평가를 한다고해서 열심히 했건만 오늘 아침의 critic에서 또 교수님들과 의견충돌이 생겼다. 가면 갈수록 머리는 더 복잡해진다. (이 지옥(?)같은 시간들 빨리 지나가지도 않는구나) critic후 조원들은 모두 지쳐 있었다. 오늘도 또 열심히 해야한다.

오랫만에 비가 내린다.

짜증났던 것도, 날씨가 더웠던 것도 다 지금 내리는 비때문인가 보다.

지금은 무엇과 바꿀수 없는 상쾌함, 신선함을 느낀다. (E조)

● 19 : 00 평가 4—기술과정에서의 설계평가/구조재료시공

우리 C팀이 대표적으로 구조에 대한 critic을 받게 되었는데, 땅이 빠질빠질 나올정도로 호된 모순점이 노출되었다.

무심하게 지나쳤던 구조적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C조)

● 20 : 00 C팀의 계획안

〈구조적으로 가장 문제있어 보이는 것일까?〉

구조Critic, 우리는 그림을 지어서는 안된다. 사상누각처럼 부서지는 저들의 concept을 보면서 태연선배가 불쌍하다. 교수님들의 많은 요구조건을 응하면서 그들의 concept을 고수하는 애처로운 모습(A조)

● 이제 “마당”이란 “개념”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날 것만 같다. 오늘은 열심히 평면, 입면 단면을 그렸건만, 마지막 critic인데도 다시 백지상태로 돌아왔다. 아, 짜증나 오늘은 학교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고 우리 조원끼리 나가서 외식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조장만 반대였다. 그래서 마지막 critic만 받고 외식도 못해서 호프집에 가기로 했다. 시간은 11시 건물 문단을 시작. 하지만 이유를 대고 나갔다. 12시에 거리를 방황했던 일은 내생전 처음이었다. 무섭기도 하고 무언가 탁트이는 것 같다. (E조)

〈7월 7일 일요일〉

● 14 : 00—간담회.

내년후엔 나도 헤하....(조)

● 15 : 00—체육대회

또 학생들이 겼다. 평소와는 교수님들이 신선하고 싱싱한(?)모습, 쳐도 좋다. 사지간의 벽은 이렇게 쉽게 부서질수 있고 또한 이렇게 쉽게 하나될수 있다. (A조)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풀겸 친화도 조성할겸 운동을 하려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할수없이 지하 실내 체육관에 들어가 족구와 농구를 했다. 건축사님, 교수님들 열심히 뛰셨다.

송인호 교수님이 농구를 잘 하셨다. 한바탕 땀을 흘린후 준비해 주신 술파티(?)에 우리 모두는 초대되었다. 막걸리와 푸짐한 안주,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리고 고마웠다. 신경써주신 분들이.....(C조)

● 회식—떨어지는 빗물을 뒤로하고 교수님 건축사님과 막걸이 한잔. 술 못하는 나도 막걸이 한잔 꿀꺽.

병숙 언니가 싸주는 무서운 족발도 상치로 꼭꼭 말아 꼭꼭 씹고 선생님으로서의 교수님과의 만남이 아닌 인간대 인간으로서의 만남. 더 정다워 보이는 교수님들의 모습들.

건축은 연필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A조)

〈7월 8일 / 월요일〉

● 막바지에 몰렸는지라 정신없이 작업을 진행중인데 일본 건축사협회 회원들께서 우리의 작업환경을 보러 오셨다. 작업환경을 사진찍소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들으면서 간간이 질문도 했다. 서로 다른 학교선생들로 구성되어 한 작품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C조)

● 전시모델 시작. 향재선배의 불평 끊이지 않고 계속됨. 재료부족, 도면부족. (A조)

〈7월 9일 / 화요일〉

● 최종안 전시하는 날이다. 어제 밤을 세워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면은 모두 INKING을 끝냈는데 모델 제작이 생각보다 지연되었다. 4시에 전시회인데 1시간정도 지연되어 전시회를 열었다. 허전하다. 바로 10분전까지 만해도 정신없이 작업을 했는데..... (C조)

● 새벽6시

이제 눈이 감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모두들 아침밥도 먹지 못한것 같다. 출린 눈을 비비며 오늘 4시까지 작업을 맞추어야 한다. 2시까지 도면작업은 끝이 났지만 모델이 2개인 관계로 작은 모델은 3시야 되어서 시작되었다. 큰 모델은 5시쯤 끝났고 작은 모델은 최종안 전시 및 평가가 시작한 다음에 들고 들어 갔다.

어제는 힘든 7박 8일은 모두 지나갔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 짧고 오랜 시간을 보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일만 남았지만 모든 사람들과 정이 들어 아쉬움만 남는다. 수료식과 회식을 끝으로 우리는 헤어졌다. (E조)

● 7 : 00 회식—자 ! 가자. 극동반점으로 수고한 보람있다. (A조)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갔던 일주일, 잠을 제대로 자지못해 푸석한 얼굴을 한 조원들의 모습, 부옇게 밝아오는 새벽의 싱그러움, 많은 논쟁과 토의, CRITIC,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스럽다. 소중한 장을 마련해주신 여러 건축사님, 교수님, 저희가 할수있는 말은 오직 "감사합니다" 이것뿐.....(C조)

편·집·후·기

디자인캠프!

대전지역의 건축과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하고자 하는 열망의 대상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최·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인원과 기간을 더 많이 하였으면 하는 욕심도 있으나!

예산부족과 교수님들의 회생에도 한계가 있기에!

우리모두 앞으로 좀더 연구하여 봅시다.

끝으로 수고하신 한남대학 건축과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내년(4회)에는 대전대학에서 만납시다.

'91 제3차 건축디자인캠프

1991년 11월 1일 인쇄

1991년 12월 20일 발행

• 발행인 : 송승호

• 편집인 : 송인호·정인협

• 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건축사회



목 차

1. 지역의 건축발전과 선후배의 연결고리가 … 송승호
2. 건축디자인캠프의 의미 김상겸
3. 디자인캠프의 의미와 실제적 역할 오덕성
4. 디자인캠프는 무엇으로 하는가? 송하영
5. 처음 맞이한 디자인캠프에 참여하고 나서 … 이재연
6. 운 영 개 요
7. 설계주제/프로그램 김상겸
8. 교 육 진 행 과 정
9. 계획안 및 평가 김억중, 송인호, 김상겸
10. 참가학생 일지에서
11. 제4차 건축디자인캠프 종합토론



모서리가 도로에 대응하는 방식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삼성빌딩에 대응하는 수직적인 계단탑을 선큰 중앙에 배치하고 이것을 인도와 연결하기 위한 경쾌한 브리지를 도입하였으며 주기능을 선큰부분(지하층)에 배치하면서 그 상부에 또 다른 레벨을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선큰된 지하공간에 변화있는 공간체험을 유도하였다.

B팀의 계획안은 우선 예각의 대형매스를 가진 백화점 건물의 모서리를 삭제하면서 큰 건물의 작은부분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전체적인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하며 비교적 많은 통행량을 고려하여 동선을 원활히 처리해야 한다는 해결과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계획안은 삭제된 불룸의 테두리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인도쪽 모서리로 뛰어 나오도록 하였고 1층부분은 통행인의 동선처리와 안내소로의 진입을 위하여 삭제된 모양인 삼각형의 평면을 유지하면서 상부(2층)에는 타원곡선과 직선의 단순한 형태를 도입하고 그 옥상(3층)을 옥외테라스로 삼아 옥외계단과 함께 도로와 건물사이에서 가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C팀의 계획안은 우선 총청은행이라는 큰 건물이 앞부분에 3층정도의 저층부를 가지면서 도로측에서의 입면이 정리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관광안내소와 더불어 같이 해결하며 지하도입구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협소해진 인도공간을 혼잡스럽지 않게 처리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계획안은 기존건물과의 연계를 위하여 저층부하단에 위치한 화단의 연속성을 강조하여 이를 데이텀(DATUM)요소로 사용하였고 반원형과 사각형의 결합을 시도하여 내외부공간에 강한 시간적 상징성을 주

었으며 1층의 오픈, 2층으로 직접 진입하는 계단 및 내부의 원형면을 따라 올라가는 계단 등 수직동선상의 변화를 꾀하면서 전체적인 입면의 정리를 시도하였다.

D팀에서는 기존 가로모퉁이의 건물에 대한 고려로서 시각적 개방성을 유지하고 도로를 따라 형성되는 도심가로의 선형적인 흐름을 살리면서 지하도입과의 연결을 꾀하여 주기능을 지하에 위치시키는 한편 가각전체 부분의 삼각형 모양을 이용하고 여기에 지하공간을 암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된 설계과제를 설정하였다. 최종계획안은 전체적으로 대지의 형태인 삼각형에 원형을 접합시키면서 지하2층(지하도 레벨)에 주기능을 담고 지하1층 부분은 강한 동선이 교차됨으로써 지하공간에 2개층 높이의 오픈된 공간을 형성하게 하여 색다른 경험을 얻도록 하였으며 지상부분은 경사진 삼각뿔의 형태와 지하도입구의 선적인 흐름을 각기 상정하도록 계획되었다.

E팀은 주도로에 면한 복개하천상의 소규모 도심공원에 위치한 대지를 해석하여 차도와 인도의 동선정리, 공원과 도로 경계의 명확한 구분, 중앙로의 축과 대전천의 축과의 대응 그리고 하부에 대전천이 흐르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는 것 등을 계획의 개념으로 삼았다. 계획안은 영상매체를 설치하기 위한 사각형의 둘 속에 주기능을 담은 원통형을 빗아오르게 하여 오픈된 도시공간내에서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도로축을 따라 램프와 관람석을 도입시켜 도로와 공원사이의 개방과 차단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또한 도로에 면한 부분에는 계획된 매스와 더불어 물을 체험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와같은 과정속에서 세련되지는 못하였지만 각 팀 구성원의 공동노력으로

서 과거의 캠프 수준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여줌으로서 앞으로의 밝은 전망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일부 계획개념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설계지도위원과의 지도 및 평가 과정에서 어느정도는 다듬어 질 수 밖에 없었으며 구체적인 공간과 형태의 계획에 있어서도 해당초의 개념과 초기계획안을 존중하는 가운데 출발하였다고는 하지만 일부 계획안은 역시 발표 및 토론 과정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야 할 과제로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주변상황의 과학으로부터 시작하여 계획개념의 설정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 공간 형태의 구체화로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팀 구성원간의 의견조정 및 정리를 통한 팀작업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한번 깨닫게 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건축디자인캠프를 마치면서 아직도 보완, 개선해야 할 점은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한다. 첫째, 이와 같은 설계교육방식이 도시와 건축과의 관계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도와 함께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이며 둘째, 설계과정 속에서 설계개념의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깨닫게 한 것이고 셋째, 팀작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보여 주었다는 점이고 넷째, 공동으로 진행된 지도와 평가를 통하여 상반될 수도 있는 다양한 의견의 교환과 이를 하나로 수렴 또는 동시 수용하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었다는 점 다섯째, 이제 4차를 거치면서 건축디자인캠프의 체제와 팀이 더욱 견고해지고 알찬 내용으로 무궁하게 발전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게 해 주었다는 점 등이다.

지역의 건축발전과 선후배의 연결고리가…….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건축사회

회장 송승호

**대전지역 건축디자인
캠프가 원목적대로
지역의 건축발전과
지역적 선후배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져
모범적인 대전건축인의
모체로서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4차 디자인캠프가 무사히 마치게 된데 대하여, 각 대학 교수님,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학협동체제의 결합을 다지기 위한 디자인캠프가 네번째를 마치면서 캠프 분위기의 정착과, 참여하는 학생들의 향학열에 주최자로써의 흐뭇함을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황금같은 여름휴가를 마다하시고 매일 새벽까지 지도를 해주신 각대학 교수님 그리고 사무소 작업을 뒤로 하고 참여한 우리 회원께 진심으로 또한번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캠프가 걸어나오면서 어려웠고 불편했던 문제점도 여러분들의 성의 때문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도 가져봅니다.

내년에 공업대학에서 실시되는 제5차 디자인캠프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전에 있는 각 대학교에서 한번씩 주관하였고 지금 까지 결과를 재조명하면서 문제점을 과감히 제거하여 디자인캠프의 원목적 달성을 이 지역 산학협동체의 단합을 굳히는 시기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책임자로서의 임기를 마감하는 저로서 지금까지 느끼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산학협동체의 유지란 이 지역의 건축과 학생들이 이 지역 건축

사들과의 연대를 가지는 것과, 각대학 교수님들과의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4차를 마치면서 각대학 교수님들과의 협력체제를 만족하리만큼 한 배를 탄 동반자로서의 유지는 성공되었다 자부하지만, 캠프출신 학생들과의 연대관계는 아직도 만족하리 만큼의 결과는 없었다는데는 부인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교육의 달성을 하루아침에 욕심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장산이 변할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반을 지내려고 하는 대전지역 건축디자인 캠프가 원목적대로 지역의 건축발전과 지역적 선후배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져 모범적인 대전건축인의 모체로서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이니까, 교육장에 매일 나가 있어야 하고, 주관학교 교수이니까, 새벽까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하여 봅시다.

앞서가는 대전의 미래건축의 성공을 위하여 다같이 높은 철학을 바탕으로 웃으면서 디자인캠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캠프의 의미

제4차 건축디자인캠프의 평가

Meaning in Architectural Design Camp 1992

김 상 겸

대전대 건축과 교수

1. 설계주제/프로그램

제4차 건축디자인캠프의 주제는 '93 EXPO 관광안내소이다. 대전은 수년 전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여러면에서 상당한 양적 팽창을 이루고 있는 도시이다. 더우기 내년으로 예정된 EXPO 행사는 아직도 대전이라는 도시가 수용하기에는 벅찰지도 모를 큰 행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진작부터 홍분과 설레임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도 대전은 EXPO 행사의 장소임대와 예산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 이외에는 그리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워 하는 이도 많다. 어쨌든 이러한 주제를 선택한 것은 바로 대전의 건축인(학생 포함)들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대전을 찾는 관광객 또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 설계주제는 지난 제1차 캠프의 주제 도심의 건축(도심 가로모퉁이 대지의 소규모 균형생활시설), 제2차 캠프의 도심지 유아를 위한 놀이공간(도심 블럭에 위치한 공원내 유치원계획), 제3차 캠프에서의 도심내 소규모 공공건물—파출소(대전의 도시구조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다섯개 대지에서의 파출소계획) 등에 이어서 도시와 건축을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 캠프에서는 지난 제3차 캠프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섯 팀에 각각 서로

다른 대지를 부여하였다. 이와같이 각 팀이 서로 다른 대지를 가지고 출발한 이유는 각 팀이 동일한 대지를 가지고 계획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점 즉, 자칫 주어진 대지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서로의 특수한 성격을 과장하려는 등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진행됨으로써 그릇될 수도 있다는 단점을 보완했던 지난 제3차 캠프에서의 방식이 어느정도 성공했다는 점이었으며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이미 대전시가 중앙로를 EXPO를 위한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중앙로의 다섯개 대지를 선택하여 도시구조상 주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의 정리를 건축적인 해결로 이끌어 전체적으로 질서와 변화를 갖는 도시환경을 추구하고자 하는 점이다.

다섯개의 대지는 중앙로—대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리—를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곳으로서 가로변에 무심하게 설치된 또는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된 많은 환경요소들을 오히려 적극적인 수단으로 삼아 전체와의 관계속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은 설계교육상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건물의 프로그램은 관광안내소가 가지는 주된 기능은 물론 그것이 소규모 공공건물의 성격을 가지면서 가로환경을 정리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각각의 대지가 처한 주변의 상황에 알맞는 부수적인 기능 또는 매체를 미리 지정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첫째, 중

양로변의 도시환경요소를 잘 읽고 해석하는 것 둘째, 도심의 가로환경을 건축적인 해결로서 마부리 하여야 한다는 것 셋째, 그렇게 함으로서 장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넷째, 도심 속에 의미를 갖는 소규모 공공건물로서 상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2. 캠프의 진행

○ 김의 교육: 이번 디자인캠프를 계획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 및 설계작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제3차 캠프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하였다. 각 팀에게 본격적인 캠프에 돌입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은 물론 각기 서로 다른 학교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온 각 구성원들끼리 팀작업을 통하여 캠프기간내에 원만한 해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이 필요로 할 것이었다.

따라서 제3차 캠프에서와 같이 캠프 시작 1주일 전에 예비소집을 실시하고 그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즉, 예비소집일에 각 팀을 구성시켜서 팀원을 다지게 하는 한편 다소 산발적인 강의가 캠프기간중에 편성되어 집중적인 작업의 흐름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캠프에 필요한 모든 강의를 미리 실시하였다. 설계주제와 프로그램 및 각각의 대지에 대한 설

명, 계획안의 표현(도면과 모형), 구조 계획의 원리 및 형태구성의 원리 등 자체강의와 더불어 주제에 관련된 사례강의로서 파리의 라 빌레뜨 공원내의 풀리를 중심으로한 초청강연까지 실시되었다. 아침부터 시작된 강의가 저녁식사후까지 진행되어 다소 지루한 느낌도 있었으나 참가자들의 진지한 분위기로 이는 충분히 극복된 것 같다.

아울러 각 팀에게 대지를 부여하여 캠프시작전에 미리 현지를 답사하고 분석하게 하는 것은 물론 대지와 그 주변을 포함하는 대지모델(축척 1/100)을 제작, 충분한 대지분석 및 개념구상에 대한 준비를 시켜 캠프 시작과 동시에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지도/평가 : 계획안의 지도와 평가는 참여 건축사와 각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공동설계지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학생들의 발표와 전체 토론 그리고 정리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와 평가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하여 평가는 참가자와 설계지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팀의 발표와 토론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각기 서로 다른 팀의 계획안과 발전과정을 통하여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한편 설계지도위원들 상호간에도 생길 수 있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적인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는 설계지도위원들이 각 팀을 순회하는 형식으로서 진행되었다. 지도와 평가는 격일로 한 차례씩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는 찾은 지도와 평가가 작업을 불필요하게 단절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작업의 진행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지도와 평가는 특히 공동 지도방식을

취함으로써 그 얻어진 성과는 이것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의 불필요한 노력의 중복, 학생들의 혼란 등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해 의도된 것으로 제3차 캠프의 결과에 힘입은 바이다.

○ 설계의 과정 : 관광안내소는 기능 면에서만 본다면 단순할 수도 있는 건물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성이 강조되어야 할 건물유형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설계과정이 단순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의 건물 특히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복잡한 가로에 면하여 계획되고자 하는 건물은 대지내에서의 적절한 위치, 적절한 규모, 적절한 공간 및 형태, 주변과의 적절한 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순수한 설계과정의 이론이 실제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더라도 이번 캠프에서 보여준 일면은 아직도 비교적 짧은 일정에 맞추어 나갈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사정을 더욱 부추긴 것은 7월 말로 예정된 대전건축사 회원전에 이번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라는 것이 작업의 진행을 좀 더 서두르게 한 일면도 없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 팀구성 : 예비소집을 통한 팀의 구성과 짧지만 1주일이라는 준비기간이 팀웍을 다지며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정도는 보장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팀 구성원의 숫자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단기간에 의견을 집약 시켜 합리적인 해결에 이르기에는 배경이 서로 다른 다섯명이라는 숫자는 많 은듯 싶다. 이것은 서로의 의견조정이나 역할의 분담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라던 팀작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팀의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계획안의 평가

주어진 다섯개 대지의 특징은 큰 건물과 선큰 그리고 지하도(A), 도로모퉁이에 면한 대형건물의 예각모서리(B), 큰 건물의 저층부와 공지(C), 일방통행으로 인한 남겨진 가각전체부분(D), 도심내 복개하천위의 공원(E) 등으로서 중앙로(특히 충남도청과 대전 천 사이)를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각 팀에게 부여된 기능은 관광안내소가 갖는 주된 기능인 EXPO 관련 홍보 및 안내, 관광 안내, 길안내 등을 공통으로 하고 각기 주어진 대지의 상황에 맞도록 부수기능 또는 안내매체를 달리 지정하였다. 즉, 홍보/안내관련 서적중심(A), 기념품 판매(B), 미아보호(C), 문설물 보관(D), 영상매체 이용(E) 등이다. 이러한 주기능과 부수기능 또는 안내매체들은 각 팀이 설계의 개념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어진 대지조건 이외의 또 다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최종 계획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읻다.

각 팀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착안하였던 기본 개념들은 수차례의 평가와 지도를 거쳐 그것이 막연히 생각되는 애매한 개념으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으로 발전된 확실한 설계의 개념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를 최종 계획안과 더불어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A팀의 계획안에서는 삼성빌딩이라는 큰 건물을 배경(ground)으로 한 형태(figure) 즉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적인 측면과 이 대지가 갖는 특수한 조건인 선큰부분의 암시를 위한 처리 및 건물

디자인캠프의 의미와 실제적 역할

오 덕 성
충남대 건축과 교수

건축디자인캠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만큼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의 건축문화 전반에 걸쳐 여러모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바램 가운데 추진되었다. 이제 4회를 마무리하면서 캠프의 진행, 설계지도, 공동작업 등에서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디자인캠프의 의미와 역할을 돌아보면 그간의 모습과 성취의 내용 등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우선 디자인캠프의 의미로써 가장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건축설계의 논리적 타당성을 마련하고 비평과 토론의 장을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관련 분야의 공동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3가지 관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하여 본래의 위치와 실제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루어졌던 과정상의 문제점, 향후의 검토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건축디자인캠프는 현재의 설계 경향이 다분히 ‘형태적인 유희’로 흘러가는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건축설계의 바탕이 되는 가치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려고 시도하고 이와 더불어 실제적인 설계교육의 접근방식을 설정해보자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에 계획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체화 함으로써 ‘자생적 의미’를 지니는 건축물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필요성, 좀 더 쉽게 이야기 하면 건축가 스스로 나름대로의 내용과 성격을 지니는 건축물을 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시작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디자인캠프의 설계지도와 작품진행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

고 있다고 판단된다. 초창기에 있어서는 지도하는 교수들마저도 개념의 설정과 체계적 접근에 대해 일부의 의견차이까지 있었으며 학생들에게는 다소 벅찬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에 모여 상호토의를 거쳐 설계주제를 선정하고 작업방식을 구체화하며 작업평가를 위한 비판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함으로써 구체적인 분석과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4차 디자인캠프에 이르러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성취는 몇 분 교수들의 꾸준한 노력과 관심의 결과라고 본다.

둘째로, 건축디자인캠프의 교육적 의미를 들자면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비평과 토론을 활성화 시켰다고 하는 점이다. 설계자 자신의 생각을 공통적인 건축어휘로 설명하고 타인의 의견을 들어 소화하며 이를 작품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은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토론 과정에서 여려가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고 그 과정은 자기 스스로가 작품 자체에 대한 완벽한 소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인은 건축디자인캠프의 가장 큰 성과와 의의를 본 항목에 두고 싶다.

셋째로, 건축 관련분야의 상호관심과 공동노력을 이끌어 내는데에 디자인 캠프가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즉 각 분야가 한데 모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건축설계에 관련된 모든 전문분야들이 연계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본래 디

자인캠프는 도시와 건축을 하나의 문제로 바라보는 도시적 연계성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구조, 시공, 설비 등 다방면의 관련분야가 함께 모여 ‘작업의 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하였다. 유감스럽지만 본 주제에 대해서 디자인캠프는 아직까지도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치 못하고 있는 듯 싶다. 관련분야의 교수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에 함께 참여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우리 건축계의 문제점인 전문화에 따른 분야의 세분화, 특수한 항목에 대한 매우 한정된 분야만의 관심 집중 등이 그 작업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다. 다만 디자인캠프의 특성상 설계 주제, 작업의 내용에서 볼 때에 전문적인 구조의 검토, 설비의 타당성 평가 등이 이루어 지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며 이에 덧붙여 참여 학생들의 관심이 적고 그만큼 교수의 역할들도 미약하지 않았는가 하는 정도에서 그간 성과를 반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4차에 걸친 건축디자인캠프를 통해 개인 차원을 넘어 집단차원에서의 설계교육과 팀작업, 토론, 체계적 접근 등 바람직한 내용들이 모색되었는 바, 이제는 이러한 성과들이 각 대학의 설계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해 건축디자인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궁정적인 과급 효과를 거두어야만 할 것이고, 더욱 넓게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건축의 전반에 걸쳐 또 다른 혁신적 과급 효과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건축디자인캠프의 의미와 역할에 기대를 걸며 본 글을 맺는다.

디자인캠프는 무엇으로 하는가?

중재

송하영

대전공업대 건축과 교수

캠프기간동안 내내 우리 선생들은 가파른 용운동캠프를 들락거리며 만나기만 하면 ‘사서 고생’은 절어서 하는 건데 뭐하러 아직까지도 고생해야 하느냐고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곤 했다. 사실 이제는 네번째나 되어 숙련에 한계가 나타날 때도 됐지만 매번 새롭다. 한편 금번 대전대학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사서 고생’이란 할 만한 것을 했다. 한번 혹은 두번, 익히고 또 익혀 계획을 시도하며 개념을 구축하고 형태를 찾고 기능을 부여하고, 또 뒤틀어보며 질문을 정리하고 타당성을 갖춰 재무장하며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또 저렇게 지도위원들을 평가했을지도 모르며 그렇게 엉거주춤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 학생들이 말했을 만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를 ‘사서 고생’ 한 선생편에서 해명해 보기로 한다.

우선 먼저, 우리 학교에서 배우던 설계교육과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우려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 문제는 제1차 캠프에서 한남대 김선생이 지적한 대로 전문화 혹은 직능분리하는 미명아래 개개의 분야가 세분되었을 뿐 상호간의 공동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또한 반영하는 것일 게다. 학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하나의 건축작품을 위해 선생과 산업체 간의 공동노력, 또는 전공분야별 선생간의 공동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교육받아온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캠

프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 교육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설계선생이 중심이 되었지만 건축사사무소 소장님들을 비롯해 독특한 성격의 여러 지도위원들이 한 작품을 풀어가는 데 이런 저런 크리틱을 다각도로 쏟아부을 때 느끼는 학생들의 당혹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끝날 무렵에는 캠프의 이런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자립잡아 가는 것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설계교육은 그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개성으로 남는 것인지도 모른다.

두번째, 누가 진짜 건축주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축가는 자본가의 시녀라고, 그러나 참으로 다행한 것은 용운동캠프의 건축주는 많은 것을 건축가에게 맡겼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다. 3~4일 후, 건축주는 요구는 역시 지적(知的) 자본가의 행태를 그대로 드러냄으로 인해 학생들이 진짜 건축주를 찾아내는데 매우 곤혹 스러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시 한없이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돈 많고 시간 많은 건축주는 없다 보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프로젝트는 더욱 그러함을 깨달아야 한다.

세번째, 우리끼리 뿐만 아니라 선생들께서 쓰는 건축어휘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 건축을 설명함에 의사소통이 꽤나 힘들었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용운동캠프의 5팀 모두 서로 다투고, 감정까지 상해가면서 텁내 어휘를 통일

갈 즈음 지도위원간에는 아직도 다른 말을 쓰는게 간혹 보여서 학생들 사이에 디자인캠는 무엇으로 하는지 헤아리기 어려웠을 가능성은 있었으나 우리 선생들은 그나마 지금까지의 캠프보다는 상당히 통일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년에 오면 좀더 달라질 것이다. 디자인캠의 컨셉이 이제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니 역시 추상적인 것이 물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는 세월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아울러 비평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자각해 본다.

네번째, 이런 건축문화운동을 우리만 보고 듣고 작업하고 끝내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사서 고생’ 한 선생입장에서도 비슷한 생각이다. 돌아가서 소속된 학교내의 다른 학생들과도 협력하길 바래본다. 먼 훗날 디자인캠프를 통한 건축문화운동이 도처에 확산되어 올바른 가치기준의 근거추구와 비평의 활성화, 말과 결과의 일치 등 좋은 건축물의 탄생에 기여하고, 내년에 액스포를 개최한다는 대전 건축계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함께 기대해 본다.

끝으로, 제5차 디자인캠프는 4차에 왔던 학생들에게 참가우선권을 주시고 나머지는 3학년 가운데에서 지원자를 선발하는 방법을 선택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할지도 모르겠다. 그래 그게 좋겠다. 세명중 한명이 자의가 아닌 채 탈락한다는 게 여간 섭섭한 일이 아닐 것이다. 역시 ‘사서 고생’은 끝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처음 맞이한 디자인캠프에 참여하고 나서

이 재연
목원대 건축과 교수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지던 내가 처음 맞이한 디자인캠프는 나로 하여금 여러가지 호기심과 큰 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고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

건축을 배운 환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노력하며 공동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가슴 뿌듯하게 느껴졌고 또한 이들을 지도하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교수님들과 건축사 여러분의 노고가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 하였다. 나의 전공분야가 구조공학이라서 그런지 디자인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작품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러한 인간적인 면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으며, 바로 이것이 대전지역 건축문화 발전의 밑거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자칫하면 서로 무관심할 수도 있는 각 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과 건축사

여러분이 선후·배가 되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로간의 신뢰가 구축되고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본 행사가 대전지역 건축계의 전체적인 행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인들의 참여율과 관심도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으며, 다음 디자인캠프에는 아쉬움이 없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아무쪼록 이러한 행사를 통해 대전지역의 건축문화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 서 본 행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대전대학교 교수님들과 건축사협회 회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각 대학 교수님, 학생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운영 개요

1. 목적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건축사회와 대전지역 각 대학 건축(공)학과 교수들의 공동노력으로 각 대학 건축(공)학과 3, 4학년 학생중 건축설계분야로 진출할 뜻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제상황에서 공동으로 설계하는 연수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건축실무와 교육을 긴밀하게 연계시켜 건축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대학간 설계프로그램의 교환과 발전의 기회를 가지며 이를 대전지역의 건축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2. 일정

예비소집 1992년 6월 24일(수) 09:00

캠프기간 1992년 6월 30일(화) ~

7월 7일(화)

개교식 1992년 6월 30일(화) 10:00

수료식 1992년 7월 7일(화) 18:00

3. 장소

대전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공학관(제4호관) 5층

4. 참가학생 및 팀의 구성

5개교 각 5명씩 25명 한 팀 5명씩
5개팀 구성

5. 설계주제

'93 EXPO 도심 관광안내소

6. 대지

설계주제/프로그램 참조

7. 교육내용 및 일정

교육내용 및 일정표 참조

8. 강의

개최강연/ 고주식 박사(오이코스 대표)

초청강연/ 김형우 교수(홍익대)

강의/박만식 교수(충남대)

송인호 교수(한남대)

김상겸 교수(대전대)

오영석 교수(대전대)

9. 지도 및 평가

건축사 및 각 대학의 담당교수로 구성된 설계지도위원회가 정해진 시간에 공동으로 지도(각 팀별) 및 평가(전체 참여)를 실시한다.

10. 조직

○ 주최/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
건축사회

○ 주관/ 대전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
학과

○ 후원/ 대한건축학회 대전 충남지부
한국건축가협회 대전직할시지부

11. 운영위원회

○ 위원장

송승호(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
시건축사회 회장)

○ 부위원장

임근수(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
시건축사회 부회장)

○ 캠프장

박만식(충남대 교수)

○ 총무

김상겸(대전대 교수)

박홍식(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
시건축사회 간사)

○ 재무

오영석(대전대 교수)

○ 홍보/설외

정인협(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
시 건축사회)

이달훈(대전대 교수)

○ 설계지도/운영위원

여태석(건축사/태건축)

이길주(건축사/정주건축)

남병대(건축사/다름끌건축)

유창열(건축사/동인건축)

신교영(건축사/고유건축)

건축사/각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12. 참가학생명단

○ 대전공업대학: 정용우(4) 김남식(4)
이준우(3) 이영은(3) 조은희(3)

○ 대전대학교: 윤혜정(4) 박현규(4)
이재준(3) 장인철(3) 송제현(3)

○ 목원대학교: 황현하(4) 박봉운(4)
최종수(3) 양만직(3) 김경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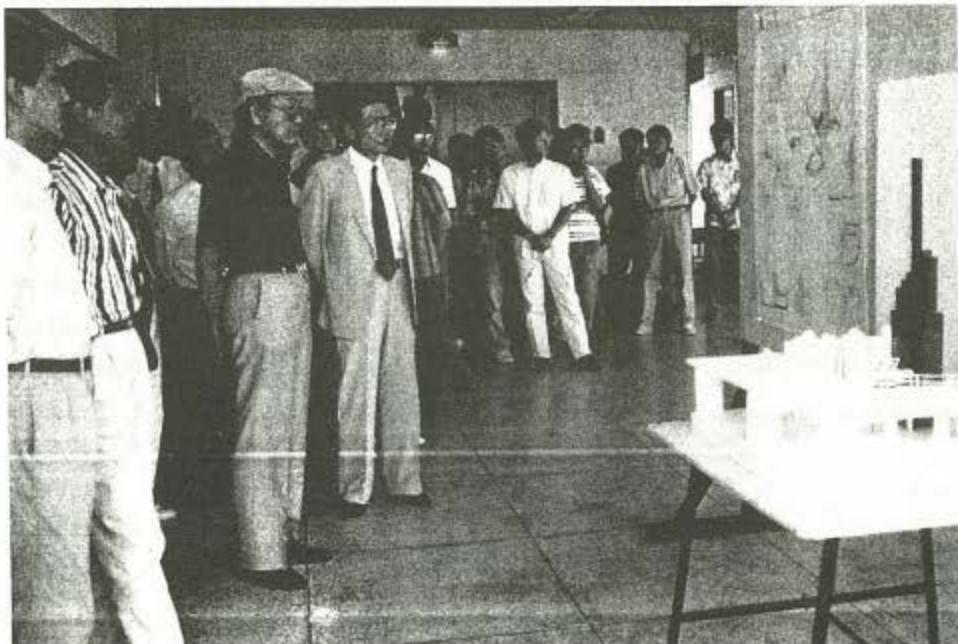
○ 충남대학교: 오종민(4) 박요섭(4)
김진식(3) 조혜경(3) 허진(3)

○ 한남대학교: 이양훈(4) 차성호(4)
이용채(3) 정우영(3) 안상현(3)

* ()안은 학년

〈교육내용 및 일정표〉

일정	내용	강의 / 진행
예비소집일 6월 24일	강의1. 설계주제/프로그램 강의2. 계획안의 표현/도면과 모형 강의3. 구조계획의 원리 강의4. 주제관련 사례강의 강의5. 형태구성의 원리 팀구성/대지부여	김상겸 교수(대전대) 송인호 교수(한남대) 오영석 교수(대전대) 김형우 교수(홍익대) 박만식 교수(충남대)
제 1 일 6월 30일	개교식 강의6. 개최강연/환경건축에의 추구 좌담회/개최강연자 평가1. 대지분석/계획의 개념	고주석 박사(텍사스 공대) 설계지도위원
제 2 일 7월 1일	지도1. 기본계획안	발표 / 토론
제 3 일 7월 2일	평가2. 기본계획안의 발전	설계지도위원
제 4 일 7월 3일	지도2. 계획안의 발전	발표 / 토론
제 5 일 7월 4일	지도3. 계획안의 발전 간담회/수료자 초정 체육대회/친교	설계지도위원
제 6 일 7월 5일	지도4. 최종안의 작성	설계지도위원
제 7 일 7월 6일	계획안의 표현	
제 8 일 7월 7일	평가3. 최종안 전시 및 평가 수료식	



설계주제/프로그램

김상결
대전대 건축과 교수

1. 설계주제

문화의 거리·중앙로/‘93 EXPO 관광안내소

2. 주제해석

○ 도시와 건축 : 도시공간과 그 속에서 계획되는 건물과의 관계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금 인식하면서 형태와 공간구성 등이 도시의 일부분으로서 항상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속에서 의미있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제의 맥락은 디자인캠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녀온 일관된 것이다.

○ 도시맥락 : 도시구조속에서, 주어진 대지에 생기게 되는 건축물은 그 대지의 상황속에서 스스로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며 그것은 기능과 더불어 구체화된다. 각 팀에 부여된 대지는 모두 대전의 중심인 중앙로-대전이라는 도시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변에 위치한다. 주어진 각 대지는 주변의 도시환경요소와 더불어 관광안내소가 계획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하며 중앙로변에 건축적인 변화와 질서를 추구하게 된다.

○ 관광안내소와 중앙로 : 도로와 건물과의 관계는 직접 대면성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서도 도로와 건물사이의 작은 곳-보통은 보행자를 위한

인도로서 채워진다-은 크건 작건간에 여려 도시환경요소(큰건물의 모서리, 지하도입구, 일방통행로, 큰건물 저층부의 캐노피, 건축선 후퇴부분의 선큰, 도심 광장, 화단등)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도로와 건물사이의 의미있는 도시환경요소로서 계획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형편이다.

따라서 그 작은 곳에 위치한 환경요소들과 더불어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관광안내소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게 될 것인가는 곧바로 도심 환경의 정리, 정비를 건축적인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장소에 대한 의미부여를 통하여 도심속에서 의미를 갖는 소규모 공공 시설이 중앙로의 비중에 걸맞는 상징물로서 놓여져야 한다는 것 등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3. 기능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주기능과 부수기능으로 나누고 각팀 모두 주기능을 같이 하되 그 주변상황에 맞도록 부수기능 또는 안내매체를 각팀별로 달리 지정한다.

○ 주기능

- ‘93 EXPO 행사홍보 및 안내/행사장 및 관련시설안내
- 대전 및 충남의 관광지안내/여행안내
- 길안내/주요건물안내

○ 부수기능

- ‘93 EXPO 기념품판매

- 미아보호

- 분실물보관

○ 안내매체

- 홍보 및 안내관련 간행물, 자료

- 관련서적

- 영상매체

4. 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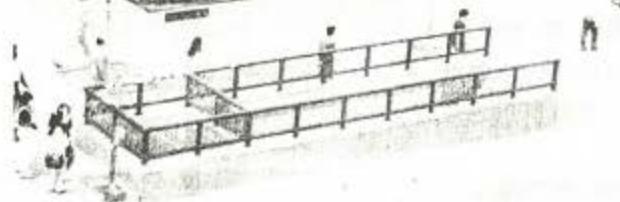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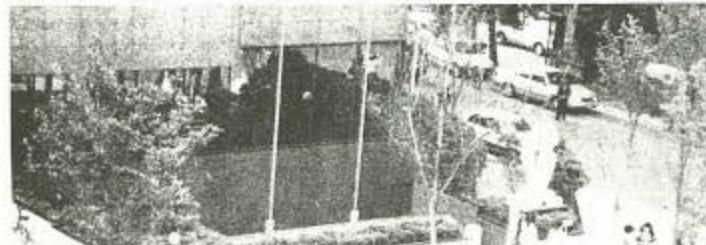
대전이라는 도시구조속에서 중앙로가 갖는 큰의미와 역할을 주시하며 중앙로변의 여려 도시환경요소와 더불어 소규모의 ‘93 EXPO 관광안내소가 계획됨으로써 새로이 해석될 수 있는 중앙로변의 5개 대지를 선택하여 주변환경, 도시구조와의 관계속에서 그 특성이 서로 다르도록 고려하였다.(표 참조)

<대지개요>

B팀 대지위치/동양백화점

팀	대지위치	도시맥락	기능/매체
A/삼성빌딩앞	선화동226 삼성빌딩앞	큰건물/모서리 SUNKEN/지하도 대형서점	관광안내 서적 및 간행물
B/동양백화점	선화동3-14 동양백화점 모서리	Node 큰건물의 모서리 500m ² 정도의 볼륨 백화점	관광안내 기념품판매
C/충청은행	은행동48-1 충청은행본점 마당	큰건물 저층부 주차장 가로변Facade	관광안내 미아보호
D/옛 미락거리입구	은행동45-6 캠브리지앞	일방통행 지하도	관광안내 분실물보관
E/중앙데파트	중앙데파트 광장	광장/대전천 중앙데파트 도심공원/주차장	관광안내 영상매체

A팀 대지위치/삼성빌딩앞



C팀 대지위치/충청은행



D팀 대지위치/옛 미락거리입구



E팀 대지위치/중앙데파트



교육 진행 과정

예비소집일/6월 24일(수)

10:00 강의1. 설계주제/프로그램

이번 디자인캠프에서는 예년과 달리 캠프에 필요한 모든 강의를 예비소집일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각 대학 교수 및 건축사로 구성된 설계지도위원 및 운영위원회 25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문화의 거리·중앙로/’93 EXPO 관광안내소」로서 김상겸 교수(대전대)의 설계주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가 첫번째로 실시되었다. 여기에서는 주제의 해석과 관광안내소의 기능 및 대지의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송인호 교수(한남대)의 강의로서 도면의 의미와 약속, 입체적 표현, 모형, 판넬의 구성 등에 대한 설명이 참고자료와 슬라이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디자인캠프에서 필요로 하는 도면의 종류 및 내용, 표현방식, 모형의 척도 및 제작방식 등이 함께 설명되었다.

13:00 팀구성

참가학생은 모두 5개 대학(각 대학 5명씩 참가)에서 참가한 25명으로서 예년과 같이 다섯 팀으로 구성하여 한팀에서 각 대학의 충복을 피하고 3, 4학년의 학생수 배분 및 3차 캠프에 참가했던 학생수, 남녀의 비율 등이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del)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00 강의3. 구조계획의 원리

구조계획에 대한 강의는 학생들이 계획안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숙련되지 못한 경우 구조적인 문제에서 벼에 부딪히는 일이 종종 있고 캠프기간 중의 구조에 관한 평가 및 지도는 있겠지만, 이번 캠프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실시되었다. 철골구조를 중심으로 한 구조계획의 원리에 대한 강의는 오영석 교수(대전대)가 진행하였으며 여기에서는 구조개요, 구조적 특징, 구조설계의 개념 등이 주로 설명되었다.



11:00 강의2. 계획안의 표현/도면과 모형

지난 3차캠프에서와 같이 계획안의 표현이 갖는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한

각 팀별로 서로 다른 대지를 부여하고 각 팀에 현지의 상황 등을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개교식 이전까지 대지의 분석 및 대지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모형(site mo-

15:00 강의4. 초청강연/주제관련 사례강의

「점·선·면의 구성체계와 해체의 시대정신」이라는 제목으로 김형우 교수(홍익대)의 초청강연이 실시되었다.

프랑스 파리의 라 벨레트의 「21세기를 위한 도시공원」의 사례로서 그 구성체계, 겹침과 중첩, 시네그램, 해체, 폴리와 그 구성요소 및 구성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참가학생들 뿐만 아니라 건축사 및 교수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19:00 강의5. 형태구성의 원리

박만식 교수(충남대)의 형태구성의 원리에 대한 강의에서는 특히 Platonic Solids의 구조적, 형태적 원리와 이를 이용한 실제 건축물을 중심으로 외국의 많은 사례들이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되었다.



제1일/6월 30일(화)

10:00 개교식

참가학생 25명과 대전지역의 건축사,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강의실에서 개교식이 거행되어 본격적인 제4차 건축디자인캠프의 막이 올랐다.

먼저 캠프의 주최자인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건축사회 송승호 회장의 개회사, 한국건축가협회 대전지부장 박갑순 교수(대전공업대)의 축사, 대전대학교 공과대학 홍승희 학장의 격려사 등이 있었고 이어서 윤혜정 학생대표(대전대 4학년)의 학생선서, 경과보고, 일정안내, 내빈소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1:00 개최강연

「환경건축에의 추구」라는 주제로 고주석 박사(텍사스 공대/오이코스 대표)의 강연이 개교식 직후에 실시되었다.

슬라이드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이 강연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정신과 환경건축 그리고 환경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실제 건축물들을 통한 설명으로서 건축에 대한 또 다른 방향성을 추구하게 하였다.

13:00 좌담회

점심식사 후 개최강연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최강연자, 건축사 및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담회가 열려 많은 의견교환을 하였다.

19:00 평가1. 대지분석/계획의 개념

평가는 다섯 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각 팀별로 미리 준비된 자료 및 대지모형(site model)을 제시하고 대지의 상황과 주변과의 관계, 주제, 부여된 기능 등으로부터 분석 정리된 계획의 개념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설계지도위원들의 비평(문제점, 미비한 점, 보완할 사항 등)과 토론이 있었다. 이날의 평가에서는 각 팀별로 주어진 대지의 구체적인 범위,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계획개념의 기본들을 정리하는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되었다.

제2일/7월 1일(수)

19:00 지도1. 기본계획안

지도는 다섯 팀 모두가 참석하여 진행되는 「평가」와는 달리 설계지도위원

제6일/7월 5일(일)

13:00 지도4. 최종안의 작성

어느정도 정리된 설계안을 최종안으로 수렴, 확정시키면서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가 있었으며 아울러 최종안에 대한 도면작성과 모형제작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제7일/7월 6일(월)

이날은 지도나 평가가 없이 각 팀별로 최종 제시될 도면과 모형을 준비하는 일이 주로 진행되었다.

19:00 만찬

참여자 모두는 극동대반점(중구 대홍동 소재)에서 만찬을 가졌다.



제8일/7월 7일(화)

16:00 최종안의 전시 및 평가

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로비에서 최종안(도면과 모형)에 대한 전시회의 개막식이 간단하게 실시되었다. 건축사회 회장 및 캠프장을 비롯한 많은 건축사 교수들과 언론사(건축과 환경, 플러스)가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가 절단되고 이어 각 팀의 작품을 둘러보았으며 학생들은 남은 이야기와 사진찍기 등으로 분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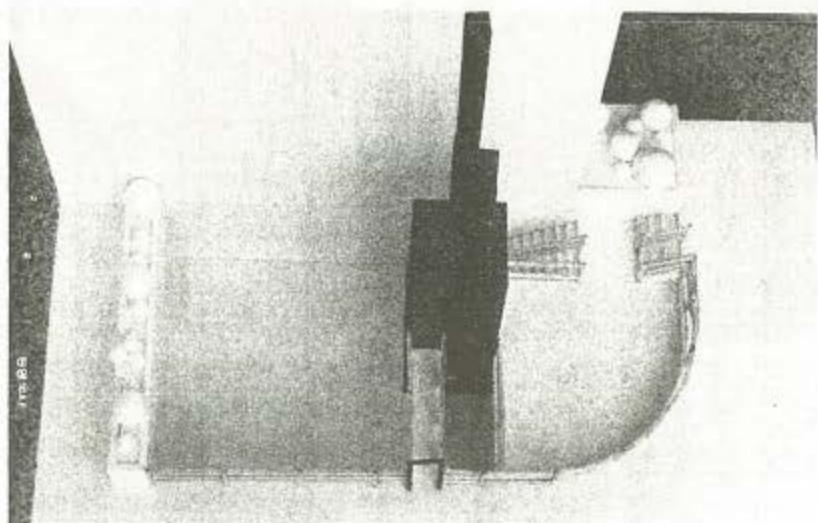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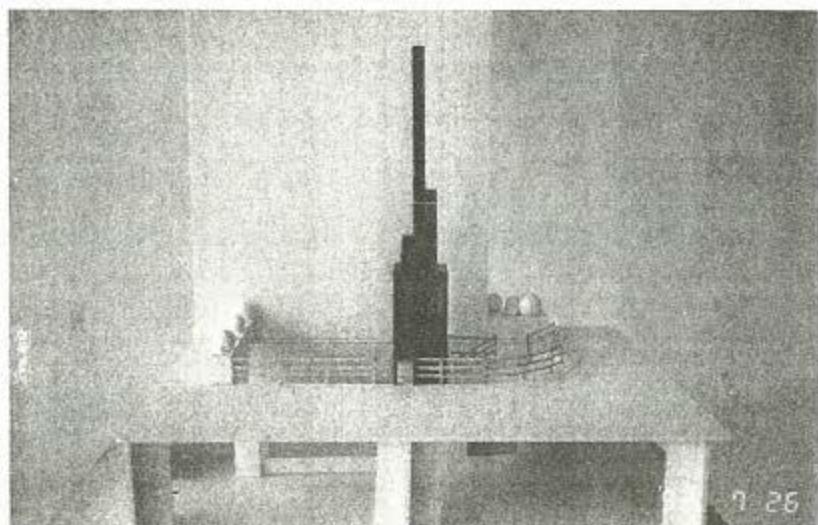
18:00 수료식

수료식은 송승호 회장(건축사회)의 인사, 캠프장인 박만식 교수(충남대)의 종합평가, 수료증 수여, 주관부서 인사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연이은 밤샘작업으로 피로한 기색이 완연하였으나 밝은 표정으로 건축사/교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였다.

7박 8일간의 힘든 작업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을 찾아낸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드러나는 매스의 크기와 위치를 잘 찾아내지 못하면 그 매스의 성격이 가져야 할 '선적'인 대비에서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지하공간의 폭이 결코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A팀이 새 매스 자체에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기능을 채워 넣으려 했을 때마다, 그 기능이 차지하는 기본적인 크기에 의해 매스의 크기가 결정되고 따라서 그러한 매스는 필연적으로 면을 배경으로 하는 선적인 모습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으리라 믿는다. 여기서 A팀의 둘파구는 지하는 넓은 지상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모색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계획안의 수직적인 매스에는 과감하게 아무런 프로그램도 넣지 않고 지하로 오르내리는 수직동선만을 넣음으로써 새 매스가 가져야 할 선적인 의미를 얻어내었다. 프로그램의 기능은 지하공간에 넣어 해결하였고 그 결과 지하공간의 쓰임새도 더욱 활성화하게 되었다. 수직동선 매스 하나의 크기와 위치, 모양의 디자인으로 해서 그것을 주변으로 하는 공간을 더욱 재미있게 분화하고 또 공간을 두루두루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거리의 눈높이에서도 수직적으로 솟아오르는 매스는 그 인지도도 높여지게 되었다. A팀이 보여주는 교훈은 프로그램이 형태를 결정하는 방향으로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형태를 찾아내고 그 상황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아쉬운 것은 수직매스의 상부마무리는 단순한 장식으로 머물러 오히려 수직적인 형태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점과 난간 주변의 정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B팀 : 동양백화점

황현아 오종민 이재준 이영은 정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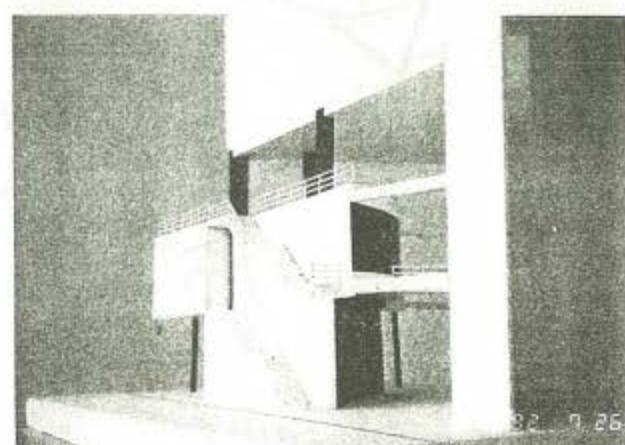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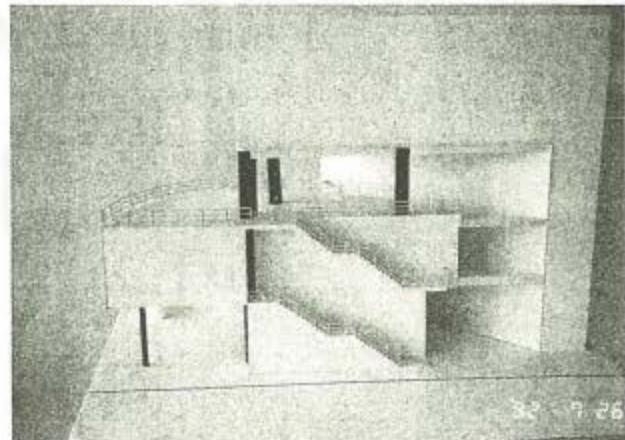
〈설계개념〉

이번 디자인캠프의 전체적 주제는 문화의거리·중앙로에 '93 EXPO 도심관 광안내소를 세우는 것이었으며, 그중 우리팀에서 부여받은 것은 주기능인 관광안내소의 기능과 부수기능인 기념품 판매의 역할을 하는 건물을 동양백화점의 모서리를 삭제하면서 세우는 것이다.

먼저 대지의 조건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정리해보면 첫째로 동양백화점의 모서리가 예각이며 중앙로의 주요한 건물들 중 하나로 정면성과 측면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이곳은 통행량이 많다는 것이고 둘째로 구조체인 기둥과 보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이것을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세째로 우리가 백화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적은 500m²정도라는 것 등이 있다.

우리들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설계개념으로 몇가지를 정리하여 보면 먼저 계획하고 있는 이 건물이 백화점의 연속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독립된 성격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우리건물로 하여금 동선을 원활하게 유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는 한편 모서리를 강조하기로 하였다.

최종 계획안은 기본 설계개념에 따라 동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백화점 건물을 잘라서 빼낸 형태를 사용하였고 백화점의 면성에 대응하는 데에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하여 타원형의 자유곡선 형태를 사용하면서 빼낸 삼각형의 모서리를 살려주고 구조체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애매한 계단실은 한면에 직선형으로 처리하여 도로와의 관계에서 독특한 경험을 갖도록 하였다.



〈비평〉 김상겸 교수(대전대)

큰 건물은 과연 도로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최근 대형건물들이 여기저기 마구 솟아오르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강하게 느끼는 의문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또다시 도시와 건축, 도로와 건축사이의 관계가 얼마만큼 건축적으로 정리, 정돈되어 도시에 시각적 질서와 변화를 부여하여 일반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연결된다.

여타 도시들에서도 비슷하려니와 특히 대전의 중심부를 이루는 중앙로변의 건물들을 살펴보면 대개 여러 범규에 묶여 몇십년전과 다름없는 모습을 한

건물들과 대규모 필지에 주변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스스로의 존재만을 부각시키려는 건물들사이의 부조화를 많이 보아온다.

이 팀에 부여된 대지의 조건은 바로 이러한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주어진 대지의 특징은 중앙로와 이를 교차하는 주 간선도로에 직접 대면하면서 교차하는 두 도로의 축이 날카로운 예각을 이루는 모퉁이에 위치하고 여기에 세워진 큰건물은 이 예각을 강력한 매스로써 꼭 체원놓고 있다. 따라서 이 팀에 부여된 과제는 큰건물 예각 모서리를 약 500m²정도의 불륨으로 삭제하고 그곳에 새로운 관광안내소를 끼워넣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학생들이 선정한 개념은 단순히 큰건물의 작은 부분

들이 각 팀을 순회하면서 설계의 진행을 파악하고 이를 촉진시켜 주고자 의도된 것으로서 이날의 지도는 어제의 평가에서 분석 정리된 기본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그로부터 출발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개략적인 도면들이 제시되고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급급한 팀이 있는가 하면 제법 빠르게 진전되어가는 듯한 팀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각 팀으로서는 마음이 더욱 불안하고 조급하게 되었던 것 같다.



제3일/7월 2일(목)

19:00 평가2. 기본계획안의 발전

두번째의 평가로서 다섯 팀 모두가 모여 각 팀별로 기본계획안에 대한 발표 및 평가가 진행되었다. 각 팀별로, 발표를 마친 뒤에는 설계지도위원을 중심으로 토론 및 대안제시 등이 현장 슬라이드, 계획도면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각 팀은 서로 다른 팀의 진행상황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기본개념이 구체적인 설계행위로써 정확히 표현되지 못하여 이날도 밤샘작업이 불가피할 것 같았다.

제4일/7월 3일(금)

19:00 지도2. 계획안의 발전

각 팀은 그간의 노력으로 어느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역시 설계지도위원들은 각 팀을 순회하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까지를 평가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또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팀도 있었다.



제5일/7월 4일(토)

13:00 지도3. 계획안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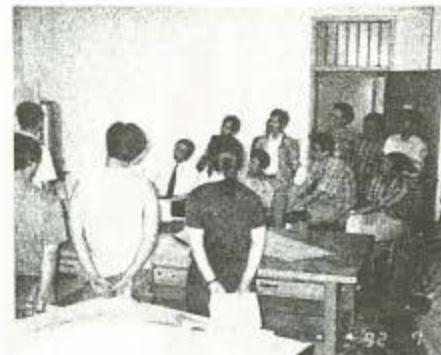
어제에 이어 각 팀에 대한 지도가 계속 진행되었다. 각 팀들의 연이은 밤샘 작업으로 어느정도 계획안이 진전되었고 비교적 늦은 몇 팀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17:00 체육대회

지도가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는 바람에 원래 계획했던 일정을 수정하여 우선 체육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대전대학교 농구경기장에서 학생팀 대 건축사 교수팀의 농구경기가 있었다.

18:00 친교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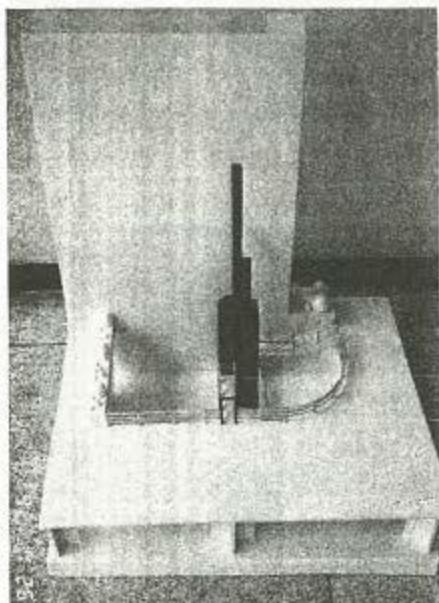
농구경기가 끝난 뒤, 대전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에서 지난 1, 2, 3차 캠프의 수료생을 초청하여 간단한 음식과 더불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계획안

A팀 : 삼성빌딩앞

윤혜정 정용우 최종수 김진식 이용채



〈설계개념〉

우리팀이 부여받은 대지는 중앙로에 위치한 삼성생명이라는 큰 매스에 부속된 선큰가든내에 위치한다. 공간의 주 기능은 '93 EXPO 관광안내와 부수기능은 지하서점의 연결과 더불어 서적의 홍보 및 전시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 첫째, 삼성빌딩이라는 큰 매스에 접해서 큰면에 대응할 수 있는 오브제로서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둘째, 선큰의 재활용에 있어 보행자의 시선확보와 더불어 외부로부터 선큰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다른 대지에서 볼 수 없는 큰 특징(선큰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오브제적인 요소가 지하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듯한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큰면에 하나의 선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선큰의 체험을 지하와 지상에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중간 레벨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둘째와 셋째의 개념인 외부에서의 선큰의 인식과 더불어 지하로부터 솟아오르는 듯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지하에 기능을 배치하였고 위로 갈수록 매스를 점차 적어지게 하여 큰 면에 수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면서 본건물과 선큰의 같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난간처리로서 전체적인 질서를 주었다.

〈비평〉 김억중 교수(한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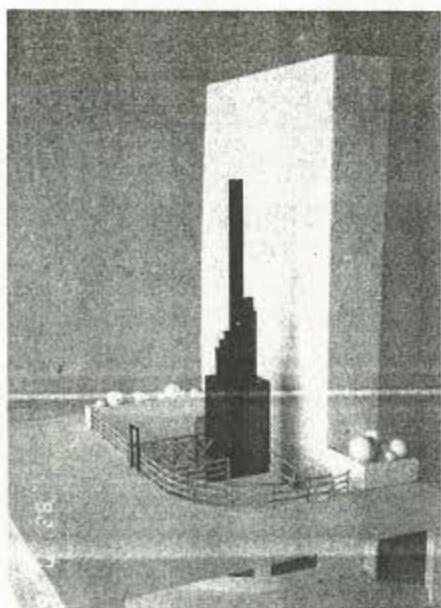
중앙로 변에 대형건물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있다. 상업적 이윤과 건축법규 허용치의 조화로운(?) 모색의 결과만으로 대형건물의 형태가 결정되어 진다면 도시와 시민의 입장에서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가로에 대응하는 디자인, 지나다니는 사람의 눈높이 스케일이 배려된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건물이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권리가 없다고 강변하고 싶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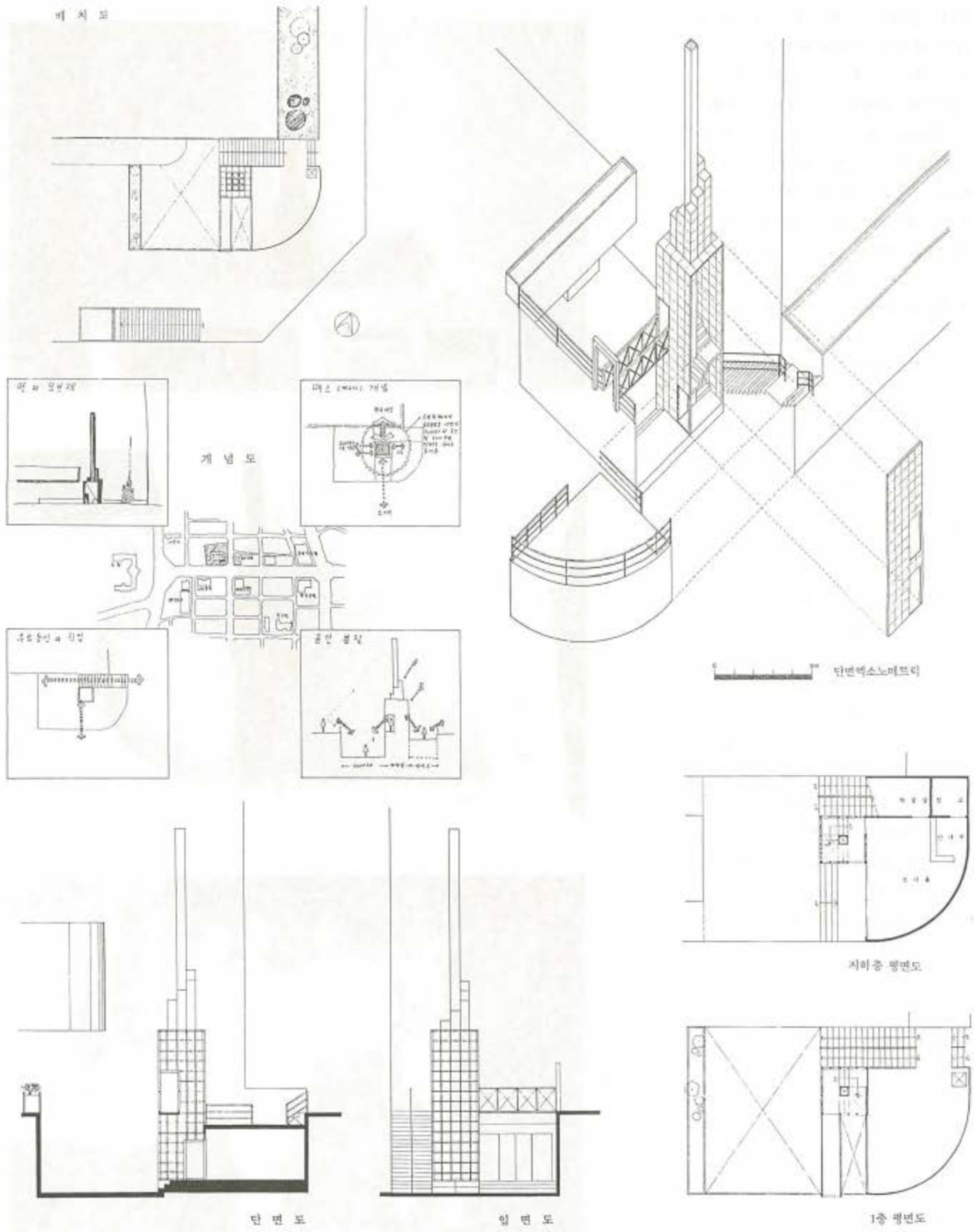
A팀의 삼성생명빌딩의 경우도 그러한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후퇴된 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옥외공간은 나무 몇그루 심는 것으로 그 질이 확보되지 않으며, 지하의 선큰공간과 저층부의 디자인도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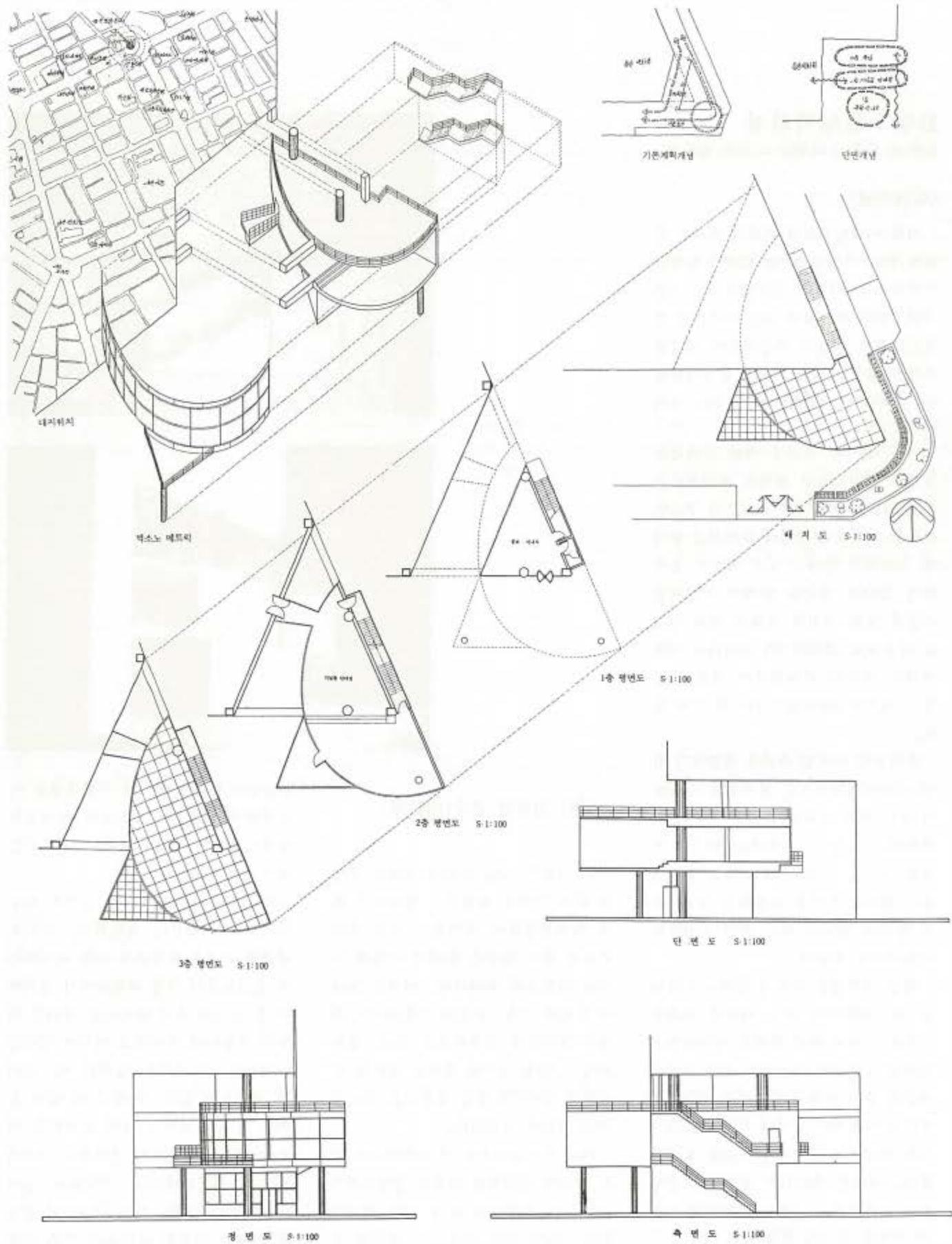
A팀에게 주어진 과제는 빌딩전면의 전부위를 동시에 손질해야 하겠지만 캠프의 여전상 동측모서리 지하선큰공간이 있는 부위를 주로 다루는 것으로 작업의 영역을 한정시켜 주었다. 제기되었던 디자인 문제들은 첫째는 두 도로의 모서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

가 둘째는 뒷면의 본건물 배경에 계획안의 소규모 건물이 어떻게 형태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인가 셋째는 거리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지하공간의 인지도를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넷째는 지하공간의 접근동선을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할 것이며 아울러 공간의 질을 확보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그런데 새 건물의 위치를 찾는데 있어서 첫째, 둘째의 문제는 상호 모순된 조건으로 보여진다. 본건물의 모서리가 형태적으로 미흡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새건물이 그 모서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계획안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새건물도 모서리에 놓는다면 본건물 전면을 배경으로 하는 형태의 조건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번째 문제의 해결은 본건물 모서리 자체의 개축에 의해 형태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렇다면 새건물은 모서리로부터 좌측으로 옮겨 적절한 위치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일단 본건물의 면적인 배경에 새건물의 성격은 보다 선적이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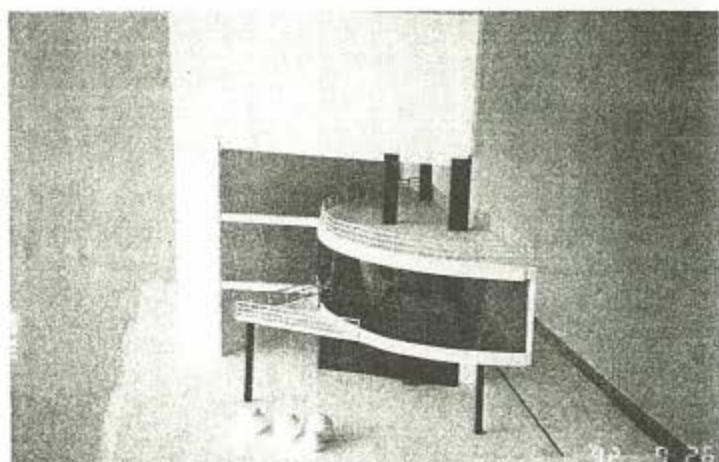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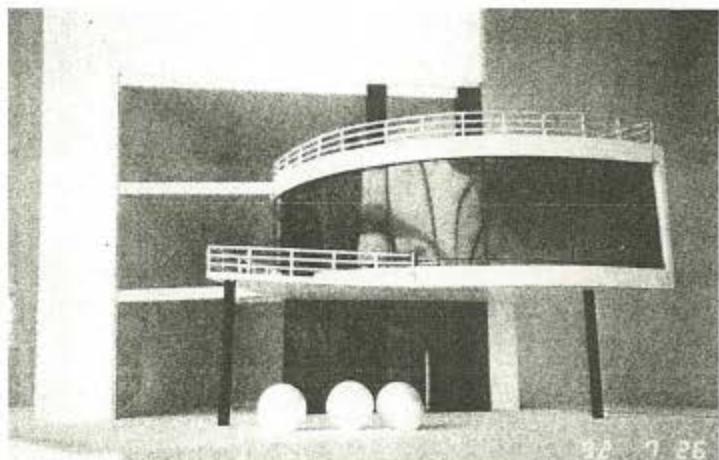
이라기 보다는 전체를 잊지 않으면서도 독립된 성격을 부여하면서 비교적 많은 통행인을 고려하여 원활한 동선처리를 하면서도 모서리를 강조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념을 구체적인 건축적인 해결로 이끌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한 것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었다.

- 삭제하는 불륨의 크기와 비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삭제한 후에 관광안내소를 어디에 어떤 크기로 위치시킬 것인가.
- 기존의 동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건물의 기준출입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Node에의 대응은 어떻게, 그리고 큰 건물의 부분과 전체에 대한 고려 특히 저층부의 입면을 어떠하게 정리할 것인가.

이상과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계획안을 통하여 해결된 것 가운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삭제된 500m²정도 불륨의 테두리속에서만 해결 하려 하지 않고 이를 제일 끝모서리(인도쪽)로 꺼내놓았다는 점 둘째, 따라서 많은 통행량의 동선을 단축시키면서 약 3층정도의 오픈된 옥외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셋째, 독립된 계단이 선형을 유지하면서 보기 드문 거리의 경험을 유도하였다는 점 넷째, 2층에서 기준건물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3층을 테라스로 처리하여 기준건물에서 이탈된 느낌을 강조하여 안내소로서의 상징과 인식을 뚜렷이 한 점 등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모서리를 강조하여 다소 과장된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삼각형의 평면과 타원형의 평면이 충돌되는 과정에서의 정리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준건물의 구조체에 너무 침착하여 구조적 표현이 신선한 감을 상실하였으며 부분과 전체의 문제 즉, 큰건물과의 관계가 거의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남겨져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C팀 : 충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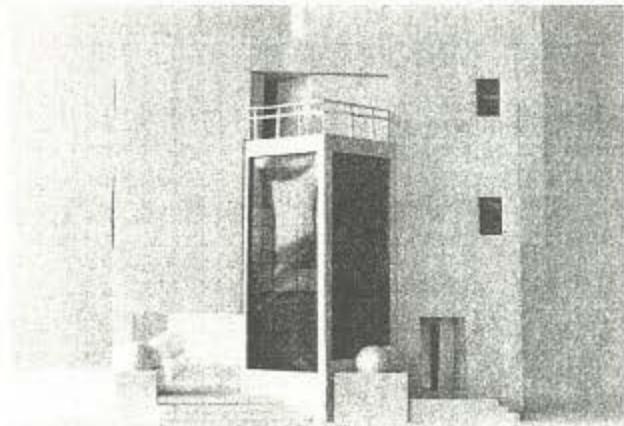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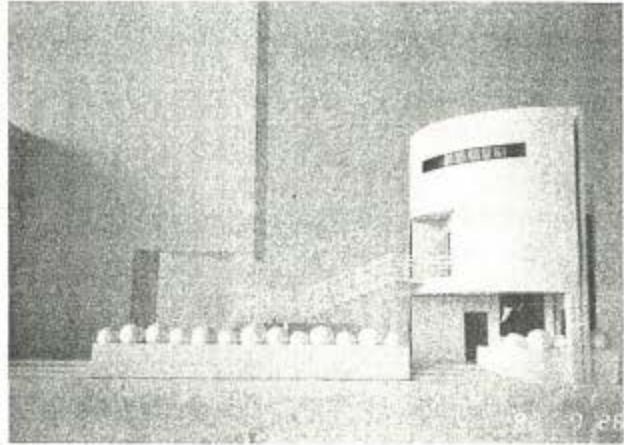
차성호 박현규 이준우 양만직 허 진

〈설계개념〉

우리팀에게 주어진 과제는 대전의 중심도로인 중앙로와 유락로의 모퉁이에 접한 충청은행에 딸린 주차장 일부에 EXPO 관광안내소와 미아보호소의 기능을 가진 건물을 계획하는 것이었다.

대지의 특성으로는 첫째, 도심의 가장 변화한 곳에 위치하면서 주변에 큰 건물이 있다는 점 둘째, 전면의 중앙로와 옆면의 유락로의 모서리에 접하고 있다는 점 셋째, 대지앞에 지하도가 설치되어 보도의 폭이 좁아짐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동선이 복잡하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팀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첫째로 충청은행 저층부와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며 주변건물과 대응하는가 둘째로, 보행자의 동선을 혼합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공적 공간을 확보하여 계획된 건물안으로 끌어 들일 것인가 셋째로, 모서리를 어떻게 한정시킬 것인가 넷째로 큰 건물을 포함한 전체적인 입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나온 계획의 개념은 충청은행의 저층부와의 연계성을 위해 데이텀(TATUM)적 요소로서 화단을 연속시키고 이를 기단으로서의 기준선으로 잡아주었다. 공적공간의 확보와 전체적인 입면을 정리하기 위해 가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시선을 차단시켜 주며 동시에 그곳에 홍보물등을 전시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서리를 한정시키기 위해 건물의 형태를 반원형으로 입체감 있게 하였고 사각형을 부가하여 건물을 상징적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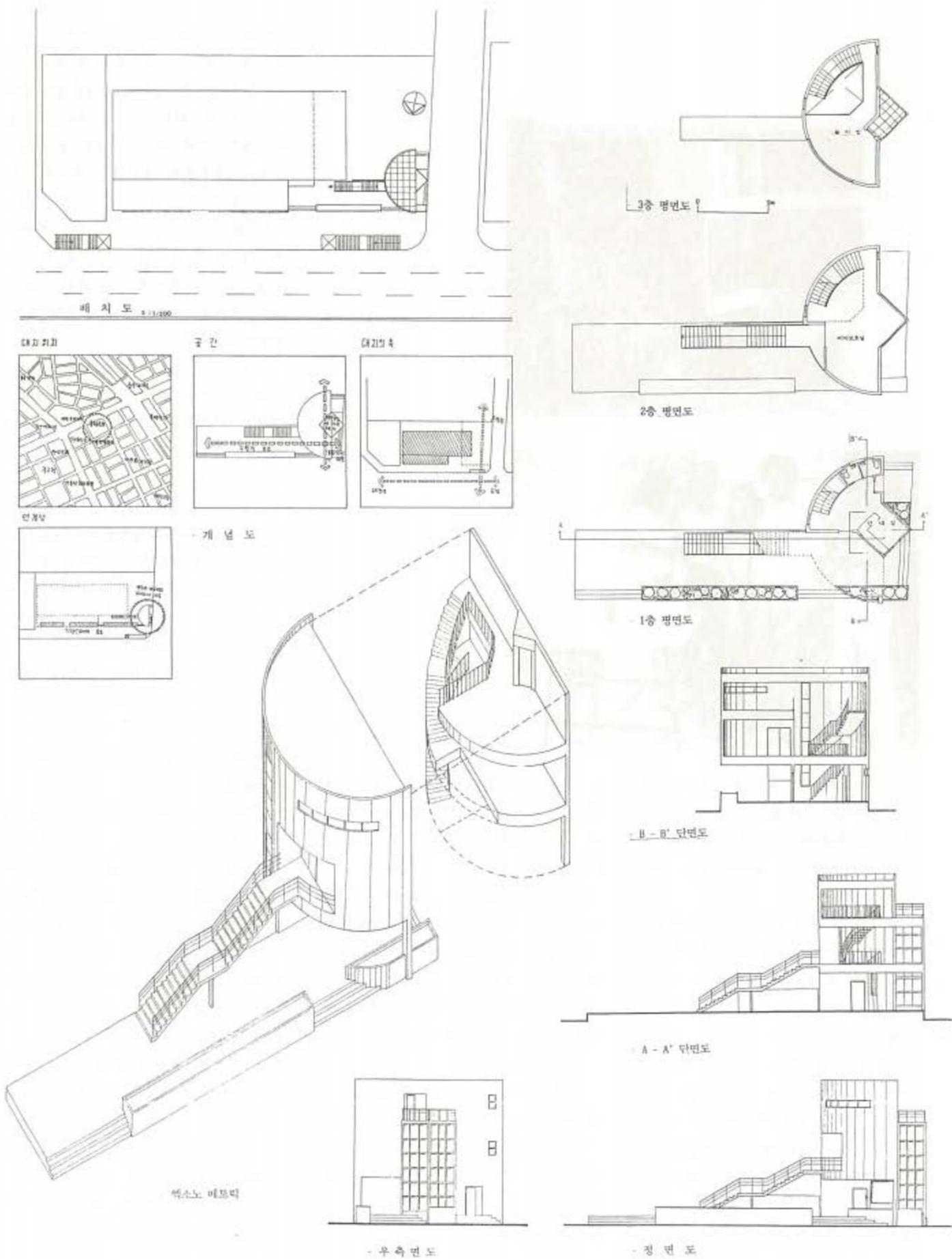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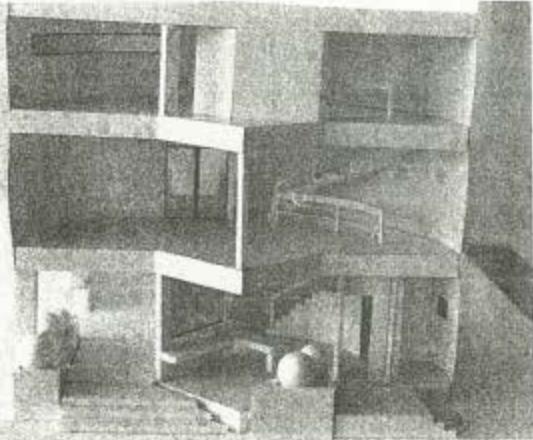
〈비평〉 송인호 교수(한남대)

C팀의 대지는 충청은행 본점의 모서리에 있는 주차장이다. C팀에게 주어진 주제는 대형건축물이 도시의 공공공간인 가로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중앙로를 구성하는 건축물의 대부분이 5층 내외로 중소규모 건축물인 것에 비하여, 7층 높이의 충청은행 본점 건물은 비교적 큰 건물에 속한다. 이 건물은 길에 면하여 비교적 높은 충고의 2층 저층부가 계획되어 있다. 영업장의 크기라는 기능상의 이유때문에 계획된 저층부는, 결과적으로 큰 건물이 전체적으로 직접 길에 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 저층부는 형태적으로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고층부분의 삼분의 이 정도만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부분은 기준층으로 오르는 로비와, 주차장을 위한 팔로티로 엉거주춤하게 끝나고 있다. 이제 관광안내소 및 미아보호소라는 주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대형건축물이 길과 만나는 방식을 해석하는 것이 이 팀에게 주어진 첫번째 설계주제이다.

두번째 이들이 해석해야 할 설계주제는 충청은행 대지와 주변 도시맥락과의 관계이다. 이 대지는 중앙로에서 유락백화점길로 접어드는 모서리에 있다. 이 대지는 도심의 가장 중요한 가구의 한 모서리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 모서리는 마무리되지 않고 주차장으로 남겨져 있다. 그 모서리를 건축적으로 정의





하는 것이 이들이 해석해야 할 두번째 설계주제이다. 첫째는 기존건축물과의 관계이고 두번째는 이 대지와 대전도심부의 도시맥락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C팀은 적정한 크기와 모양과 그것이 놓이는 위치를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설계를 출발하였다. 그 입체는 저층부 입체와 대조되어 어느정도 스스로 완결된 형태를 가지면서, 동시에 기존건물과 함께 저층부를 완성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했다. 몇 차례의 지도와 평가의 과정을 겪으면서 학생들이 찾아낸 형태는 반원통모양의, 저층부의 높이보다 다소 높은, 수직적인 입체였다. 그것을 대지의 모서리에 원호부분이 기존건물

을 향하도록 놓음으로써, 기존건물과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한편으로 유락백화점길에 면한 모서리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대지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응하고, 주어진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본형태로서의 반원통모양의 입체를 변형하게 된다. 그 과정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지의 모서리는 구체적인 형태로써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시각적으로나 동선상으로 개방되어야 했다. 그 문제는 1층부분을 필로티로 처리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반원형 평면의 윤곽을 유지하면서, 정

사각형의 안내실을 판입시킴으로써, 반원형의 중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사각형과 반원형은 1층평면상에서는 잘 해결되었으나, 2, 3층으로 올라가면서 입체적으로는 서로 분절되지 못하고 예매하게 겹쳐있을 뿐이다. 부가된 입체(작은 육면체)는 기본 입체(반원통)의 형태적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 크기와 모양이 조정되었어야 했으며, 그 내부도 반원통의 내부공간과 그 윤곽이 구별될 수 있었어야 했다.

둘째, 기존의 저층부와 새로 설계된 입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반원통의 입체는 기존의 저층부와 구별되는 모양과 적당한 크기를 가짐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성공하고 있다. 이제 둘을 적절한 방식으로 묶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안에서는 이를 위하여 기단과 화단의 수평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나, 두 입체를 하나의 완성된 전체로 구성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 설계과정에서 대안으로서 제시되었던, 저층부의 기둥구성으로부터 유추된 가구꼴조의 표현이 보다 효과적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아울러 기단은 대지 안쪽까지 같은 높이로 처리되었어야 했다.

셋째, 반원통형의 내부를 프로그램에 맞추어 구성하면서, 예외적인 반원통의 형태를 외부 및 내부에서 어떻게 체험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반원통의 내부는 그 공간적 특성이 충분히 읽혀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물론 원호를 따라 오르는 내부계단과 3층의 뚫린 부분을 통하여 입체의 내부를 읽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3층의 뚫린 부분이 계단과 함께 조금 조정한다면, 원통형 내부공간의 윤곽은 보다 예외적이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연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 2층으로 오르는 외부계단도 원통형의 외곽을 감아 올라갔으면, 반원통의 입체는 보다 풍부하게 체험될 수 있었을 것이다.

D팀 : 옛미락거리입구

김남식 박봉운 장인철 조혜경 안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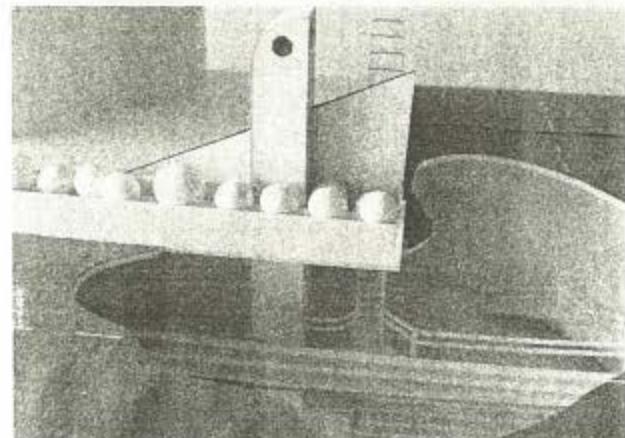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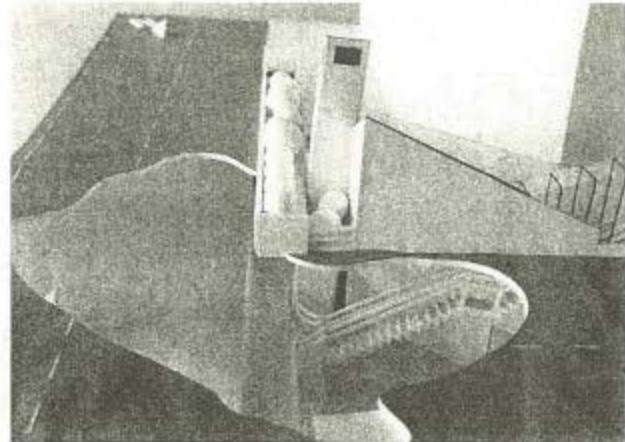
〈설계개념〉

우리팀이 부여받은 대지는 주도로인 중앙로와 부도로인 옛 미락거리가 만나는 곳으로 정확한 위치는 캠브리지앞이다. 부도로는 일방통행으로서 도로전반이 직각주차장으로 이용되며 가각거리가 필요하지 않다. 대지도 양은 삼각형이며 사면에서 시작적으로 오픈되어 시각적 개방성을 떤다. 대지주변의 스카이라인 4~5층 정도의 저층을 형성한다. 지하도와의 연결이 가능하며 지하도입구등의 기존요소들에 의해 선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성격을 보인다.

대지가 가지는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대지에 매스가 좁차게 들어갈 때의 시각적 차단 및 동선의 차단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지하연결시 지상과 지하의 관계설정이다.

대지분석의 결과로 세운 설계개념은 첫째, 시각적 개방성에 의한 개방적 형태를 구사한다. 둘째, 기존의 선형적 흐름을 살리면서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수직선적인 요소를 사용하며 더불어 가로의 이미지를 부가한다. 세째, 지하도와의 연결을 고려한다.

위의 개념은 보행자의 동선차단 및 시각적 차단의 우려, 지하도에서의 인구 유출 및 이안정원앞과 버스정류장의 정체인구, 캠브리지의 정면방해 및 융도저하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캠브리지의 정면을 시각적으로 차단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수직선적인 요소를 도입한다. 셋째, 지하에 기능을 부여한다. 넷째, 지상에서 지하공간을 암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지상과 대비되는 연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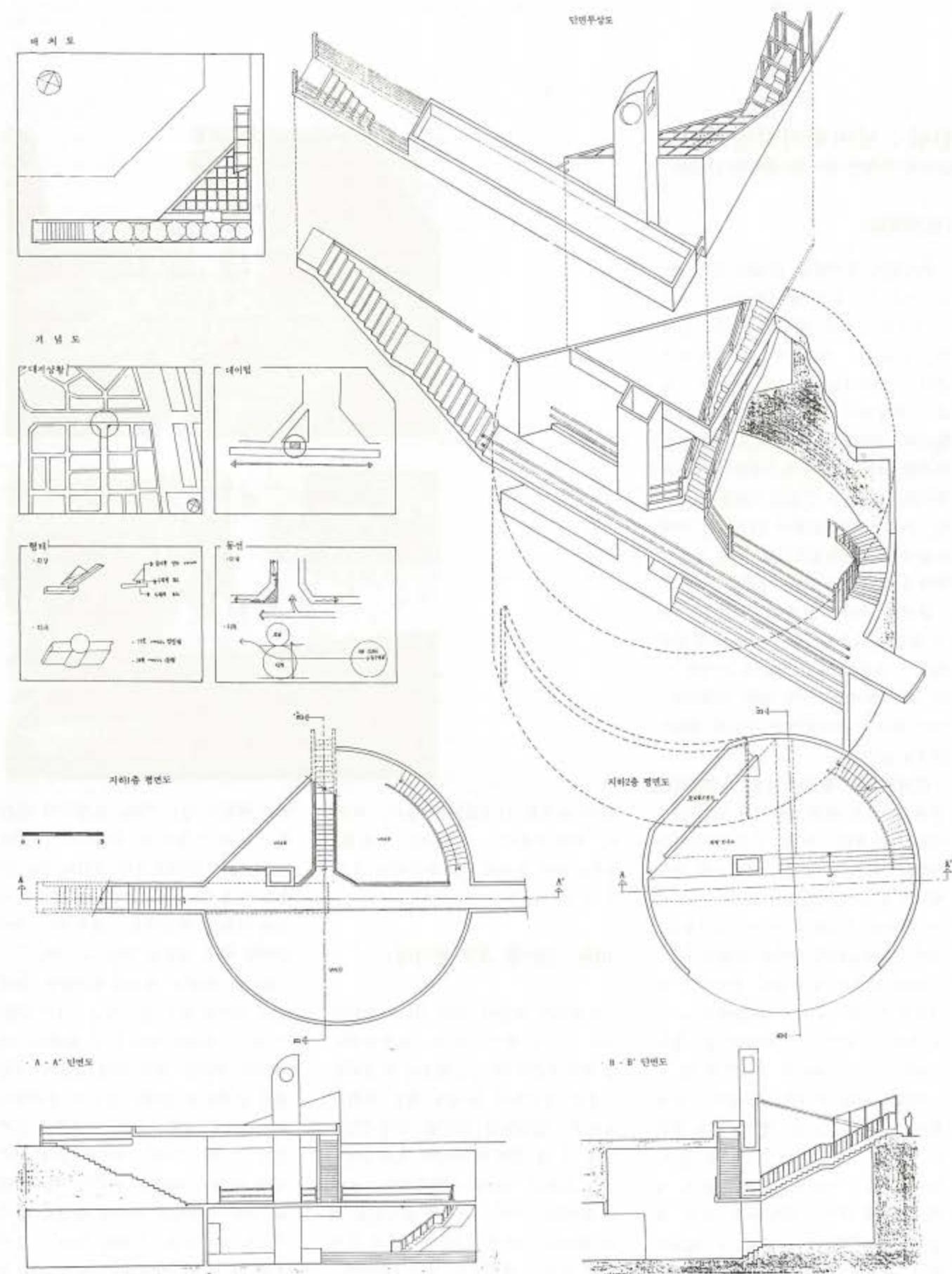
지하도에서의 인지효과를 준다. 여섯째, 삼각형대지를 강조한다. 일곱째, 대지도 양과 선형요소를 분리하는 요소를 첨가한다.

〈비평〉 김억중 교수(한남대)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거리, 도심내에서 누구나 반길 일이다. 일방통행의 옛 미락거리는 대전 중앙로와 연결되는 거리중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번번한 곳이다. 일방통행 입구를 건축적으로 보다 더 잘 정의해 준다면 보행자들에게는 문화의 거리로 기억될만큼 가능성 이 보이는 곳이다. 단순한 소비만을 위해 불비는 거리가 아니라 소비와 수반되는 유희와 해프닝의 거리, 볼거리가

있어 여유가 있는 거리, 보행자가 대접 받는 거리 그것이 곧 문화거리인 것이다. 주말에 차량통제가 실시된다면 명실공히 축제의 거리가 될만한 곳이어서 작은 규모의 시설이라도 건축가의 아이디어를 매우 필요로 하는 곳이다.

D팀의 과제는 캠브리지건물앞 삼각형의 자투리 땅을 중심으로 '입구 만들기'로 그 주제를 찾아볼 수 있겠다. 설계안의 개념을 얻기 위해 D팀이 주목했던 문제들은 첫째는 도로의 입구로서 중앙로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둘째로는 옛 미락거리의 시작과 끝의 의미로서 어떠한 형태적 심연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셋째는 지하의 중앙로 상가거리와 지하공간, 지하도 등과 기능적으로 잘 연계시키면서도 그 장소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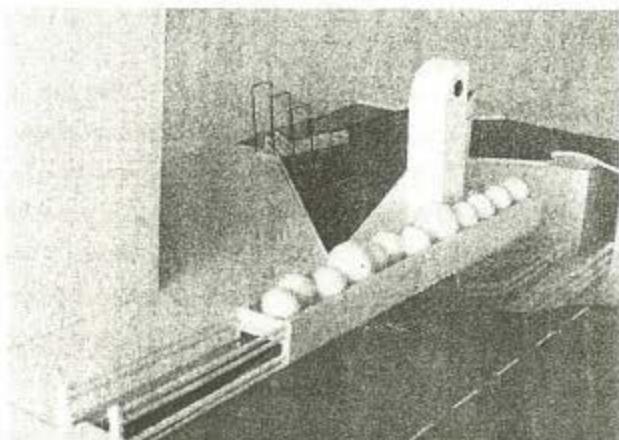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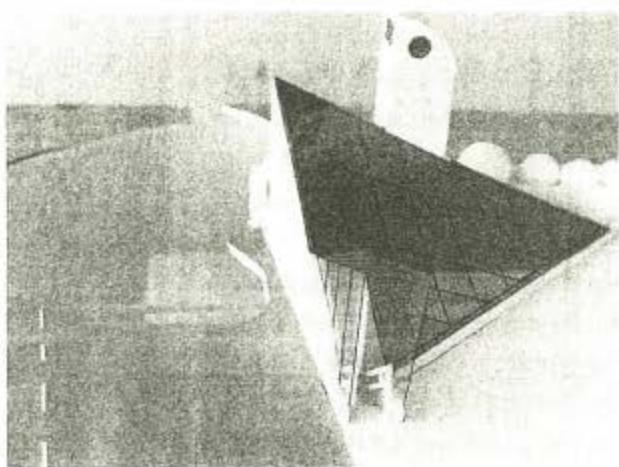


공성과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냇
세는 캠브리지건물 입면을 형태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저리스케일에
맞는 규모와 모습을 잘 완성시킬 것인
가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 네가지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은 각기 조
건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어서 형태
적으로 상호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순과 대립의 구복이 곧 디자인의
힘이요, 건축가의 고유직능이라고 볼
때, D팀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디자
인 역량을 가늠해 볼만한 기회를 유감
없이 경험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모
뉴멘트가 될만한 디자인이란 걸코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계획안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보아 네
가지 문제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모
습으로 바бу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
다. 계획안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대로
변에 평행한 동선을 강조하고 그 동선
이 지하공간에서도 그 물류의 형태를
잘 인지될 수 있도록 배려한 점과 중앙
로 지하상가로부터 진입하는 부위의 처
리, 지하공간의 빛의 질 등이며, 부정
적인 측면은 지하의 원형볼륨공간이 지
상에 전혀 암시되지 않고 있는 점—역
으로 말하면 애시당초 지상에 암시될
수 없는 조건이었다면 지하에 원형을
설정한 개념 자체가 ‘필연’에 근거했다
기 보다는 ‘의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반증이다—과 지상에 들출한 여러가지
구성요소간에는 형태적인 위계질서가
없고 대로변과 평행한 방향의 커가 강
조되지 않아 입구로서의 싸인이 가져야
할 명료성과 단순성을 잊는데 실패하였
다고 볼 수 있다. ‘조직되었다’는 모습
보다는 ‘나열했다’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계획안의 관계이라 할 수 있는 디
자인 개념이 단단하지 못한데서 출발적

인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왜냐면, 형
태의 미완은 그 형태를 놓는 사고의 미
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E팀 : 중앙데파트광장

박요섭 이양훈 송제현 조은희 김경호

〈설계개념〉

'93 대전 EXPO를 대비하여 영상매체의 기능을 가진 관광안내소를 계획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과제였다. 대지의 위치는 중앙데파트와 대우당 약국 사이의 도심공원으로 공원과 도로가 인접한 곳이었다.

대지의 문제점은 공원과 도로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공원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차도와 인도가 뒤엉기어 매우 혼잡한 점이다. 대지분석의 결과로 다음의 5가지를 설계개념으로 삼았다. 첫째, 차도와 인도의 동선을 정리하여 도시의 질서를 유지시킨다. 둘째, 공원과 도로와의 경계를 확실히 한다. 셋째, 대전천의 축과 중앙로의 축에 대응한다. 넷째, 공원의 특성을 살려준다. 다섯째, 잊혀져가는 대전천의 기억을 살려 도시인에게 물을 체험시킨다.

1. 위치개념

건물의 위치는 두개의 축이 만나는 지점으로 하고, 주변건물과의 스카이라인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대우당약국 앞쪽으로 정했다. 또한 공원의 공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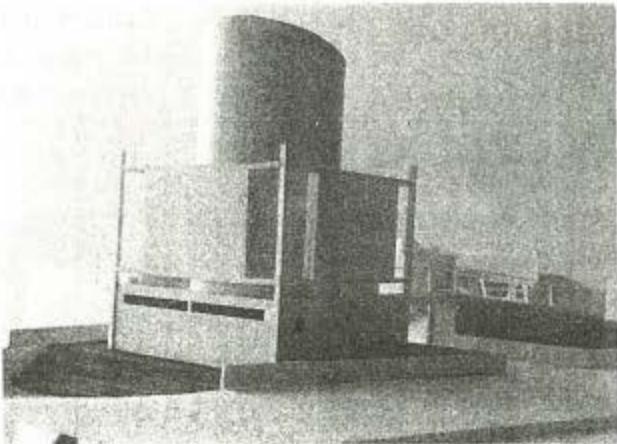
한정하는 의미로 공원의 모서리에 두었다.

2. 형태의 개념

공원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전제조건과 주변건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직적인 요소를 강조하고자 했다. 보완적 형태로서 수평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대지를 한정하고 축을 강조하였다. 수평적인 형태는 물의 체험을 전제로 하여 목척교의 이미지를 가진 다리를 도입하였다. 또한 주변건물들의 평평한 매스속에서 의미를 갖고자 원형의 형태가 유추되었고, 건물 전체적으로는 통일감을 주도록 유도하였다.

3. 공간의 개념

원형의 공간을 일층부터 삼층까지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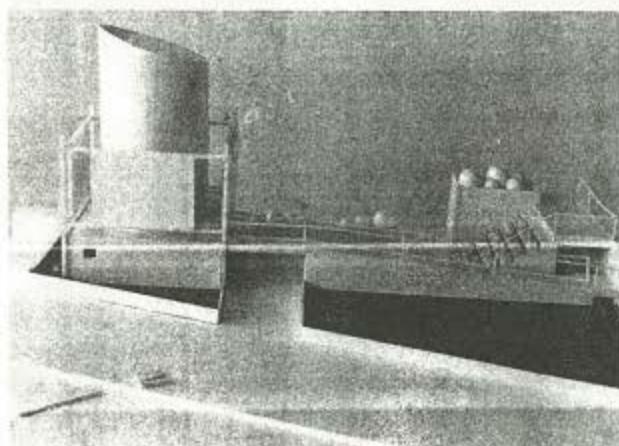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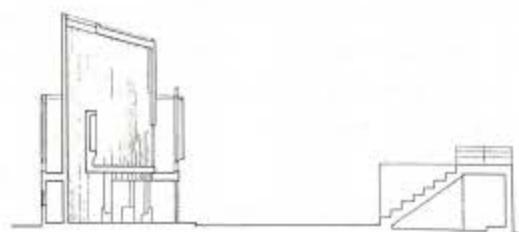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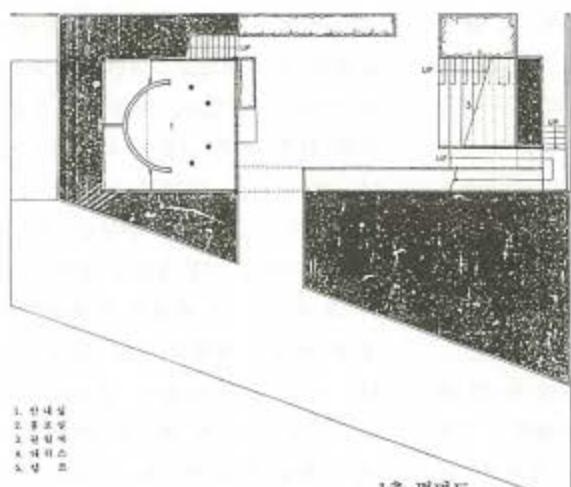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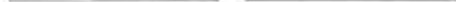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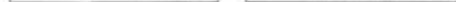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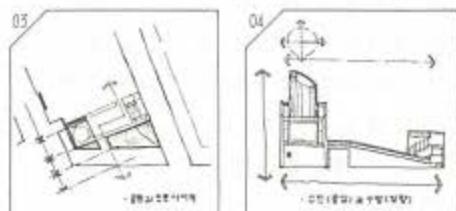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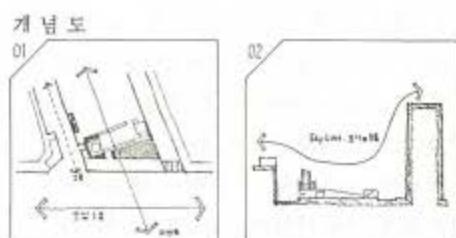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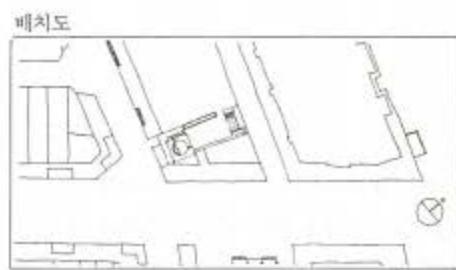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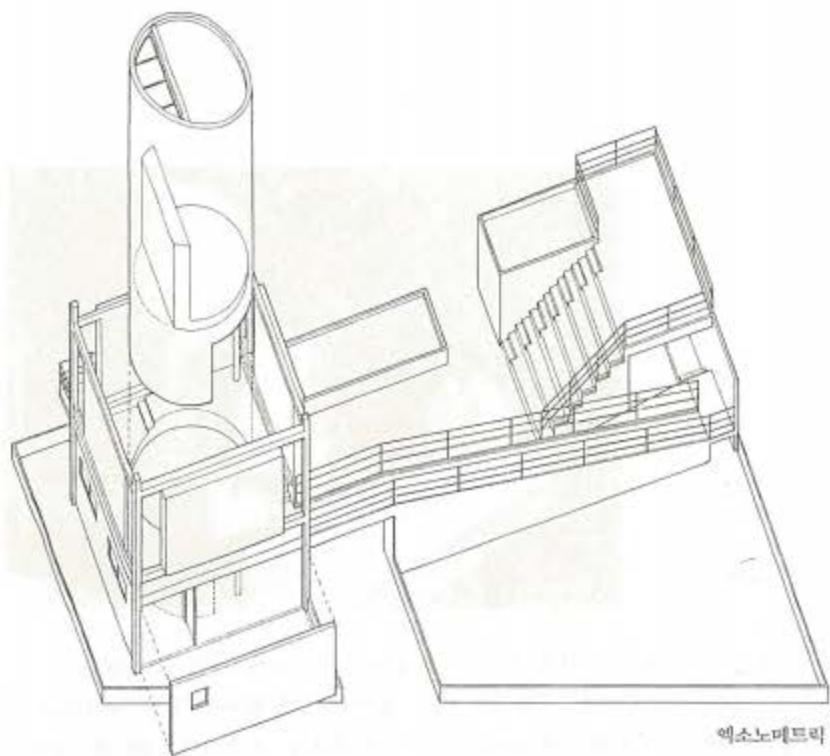
결시켜 빛을 체험시키고자 한쪽을 오픈시켰다. 수평적형태인 다리가 2층의 건물로 관입되어 전체적으로 자연스런 동선을 유도했다.

〈비평〉 송인호 교수(한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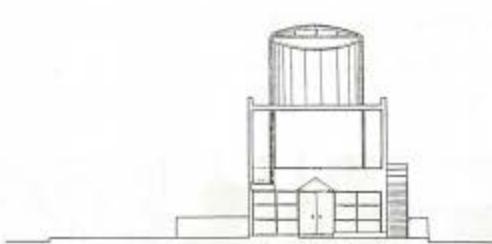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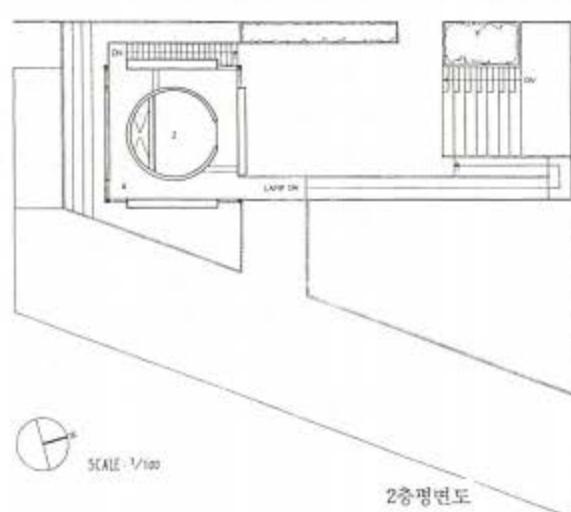
E팀의 대지는 옛 대전의 상징적인 다리인 목척교가 놓였던 자리이다. 대전의 도심을 지나는 대전천은 관리는 잘 안되고 있지만, 대전의 중요한 자연경관 요소이다. 대전천과 중앙로가 만나는 자리에 있었던 다리가 목척교인데, 지금은 콘크리트판으로 복개되고 그 아래로 대전천이 버려진 채 흐르고 있다. 최근 도시미관작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으로 쓰이던 광장이 도심공원으로 조성되어, 회색의 도시에 초록빛을 더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중앙로와 이 도심공원은 아무런 건축적 배려없이 그대로 만나고 있다. 그 부분은 자동차에 의해 무단으로 인도가 점유되어 있고, 주변은 여러방향의 차량동선과 사람동선이 뒤섞여 매우 혼란스럽다.

E팀의 설계주체는 이 대지위에 적절한 건축형태와 공간을 부여함으로써, 주변과의 애매한 관계를 정리하고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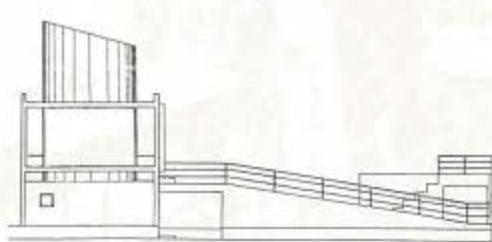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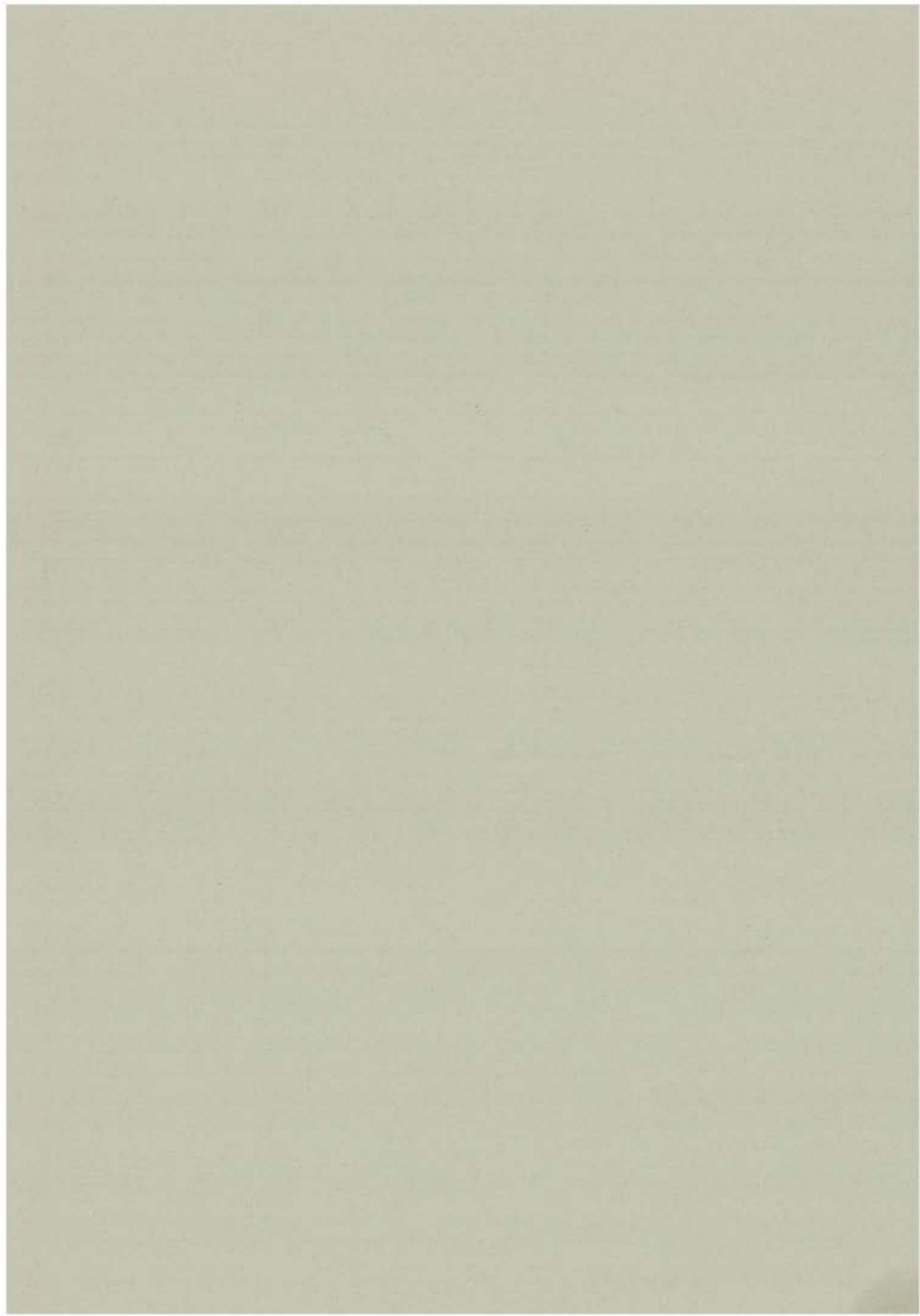
단면도



정면도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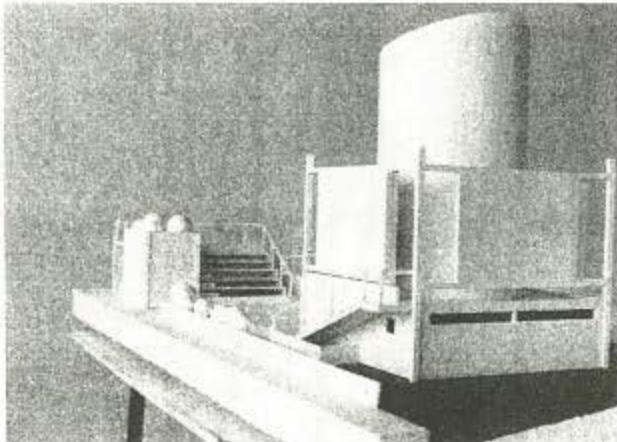


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중앙로와 도심공원의 만남, 그리고 중앙로(도시)와 대전천(자연)의 만남에 대한 건축적 해석이다.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이들이 선택한 설계개념은 중앙로와 공원의 사이에 커를 설정하는 것 이었다. 이 매개공간의 윤곽은 한번은 중앙로에 나란하게 또 한번은 대전천에 나란하게 계획되었다. 그 결과 사다리꼴의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 모양은 현재 예각으로 비스듬하게 만나고 있는 중앙로와 대전천의 관계를 기하학적으로 정리해 준다. 그리고 중앙로에 면하여 연못을 계획하고 있다. 그것은 잃어버린 대전천의 물의 기억을 연상시켜 주면서, 중앙로와 공원을 분절시켜 준다. 대전역과 도청을 잇는 중앙로의 방향성은 더욱 강조되고, 도시는 물을 전념으로써 공원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이 대지가 안고 있던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제 E팀은 불과 나무에 의하여 그 윤곽이 정리된 대지를, 건축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수직적인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들에게 주어진 프로그램은 관광안내소 및 영상홍보관으로, 외부에 스크린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갖고 있다. 그들은

레벨의 변화가 있는 대지의 서쪽 모서리에 원통모양의 기본형태를 세우고, 이 형태의 수직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지전체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의 수평적인 동선요소를 설정한다. 그 동선은 원통이 놓여진 테라스에 이름으로써 마무리된다. 이 테라스의 외피는 원통형을 감싸므로써 원통의 수직적 형태를 강조하고, 기능적으로는 도시와 공원을 향한 영상스크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형태와 기능의 두방향으로부터의 요구를 무리없이 잘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대지로부터 출발한 「도시의 커」의 개념과 프로그램으로부터 출발한 「수직적 형태」의 개념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두가지



사항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원통형과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외피와의 관계이다. 한 층 높이의 스크린은 원통형을 거의 가리고 있다. 그 사이공간 역시 그 폭이 통로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고, 네면이 모두 똑같이 거의 닫혀 있다. 방향성이 강한 대지의 한쪽 끝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 번으로 방향성이 강한 동선이 연결된다는 조건등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기본형태로 선택된 원통과 그 외피는 그 개념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형태로 변형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원통을 상자의 중심에 놓기보다 어느 한 쪽으로 다소 치우치게 계획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심지어 사각형의 윤곽과 원형의 윤곽이 중첩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직적 형태의 맞은 편에 계획된 계단식 관람석이다. 그것은 지나치게 크게 계획되어 있어, 원통형의 입체와 관람석의 위계가 불분명하다. 그 높이는 경사로의 참 정도로, 두 세단 정도이면 족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의 벽을 적절한 높이로 조정하여 그 관람석이 수직적 형태를 향하고 있음을 표현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참가학생일지에서

예비소집일(6월 24일/수요일)

4학년이야 캠프의 성격을 잘 알지만 3학년은 부푼 마음과 기대감 그리고 설레임 등으로 오늘 학교에 왔을 것이다. 서로의 팀구성과 SITE를 부여받고 걱정이 태산인 것 같다.(A)

저녁 8시가 훨씬 넘은 시간에 우리 팀원들은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Sky land에서 간단한 음료수와 간식을 먹었음. 그 이후에 으슥한 끝복 포장점에서 대합찌개와 물보다 진한 음료수를 또 마셨음. 우리들의 첫 만남은 이렇게 막을 올림.(D)

제1일(6월 30일/화요일)

우리조는 분석상황이 부족하였으나 다른조는 동선, 스카이라인, 단면도 등의 조사를 풍부하게 했다. 너무 쉽고 간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거.(B)

날씨가 매우 더웠다. 대지분석과 개념이 팔리 정리가 되어야 할텐데 평가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말로 초조했다. 저녁식사후 평가가 시작되었다. 예상한대로 무진장 박살이 났다.(C)

제2일(7월 1일/수요일)

어제 저녁 지도평가후 새벽까지 접근해서 풀어간 개념을 도면위에 그리는

작업이 그런대로 진행이 되가는가 했는데 웬걸. 저녁식사후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하고 자진해서 우리 조가 먼저 지도를 받기로 했는데 와장창 깨지고 말았다.(A)

누가 그러더라 이런거 혼자하면 이를 이면 한다나……. 결국 의견 맞추는 것이 어렵고 설득하기도 하고 설득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B)

디자인캠프의 이를찌개가 자난다. 작년에 했던 사람들도 만나 좀 서먹서먹 합은 덜하였으나 자기주장들이 뚜렷한 사람들이 많아 조금은 주눅이 들기도 했다.(C)

제3일(7월 2일/목요일)

의견이 선택이 되든 안되는 간에 각자 생각하고 그것을 제시하며 또 자체 크리티킹하는 것이 의의가 있고 좋았다. 오늘은 이상하게 무지 진지하다.(B)

먼저 발표하기로 한 팀이 아직 정리가 안되어 우리가 먼저 하기로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했던 노고는 사라지고 사정없이 지적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침울했고, 밤을 새기로 했다.(C)

햄버거만 먹다가 김밥을 먹었더니 그저 행복시러웠다. 행복다웠다. 행복했다.(햄버거 감옥에서 김밥 감옥으로 이감…….)

비오는 날, 그냥 좋은 날, 옆 팀에서 조작한 비소리에 그냥 속아 넘어 갔다. (D)

밤 12시 천둥 번개와 더불어 비가 내

렸다. 빠삐용들은 우루루 창가로 몰려 떠들었다. 아쉽게도 비는 금방 그쳤고 덕분에 날씨는 조금 선선해졌다. 어수선했던 작업실은 또다시 열띤 작업열기 예 휩싸였다.(E)

제4일(7월 3일/금요일)

하루하루가 걱정이다. 무엇인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어떻든 방향은 찾아야 하는데 낮과 밤에 열심히 머리를 조아려도 깊은 자꾸 비뚤어지기만 한다. 어떻게 하지? 실마리가 있어야지 끝나고 집에 가지. 집에도 못가면 어떡해. 전체지도가 끝난 것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오늘은 웬지 잠도 오지 않는다.(A)

교수님의 다듬는 솜씨에 놀랐다. 우리들의 생각이 아직은 너무 짧다는 거.(B)

밤을 꼬박 지새면서 평면계획을 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과 다를 바가 없다. 어쩌면 밥만 축내는 것만 같았다. 아침먹고 조금 있다가 점심먹고 저녁먹고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이루어 놓은 것은 없다.(C)

이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 밥먹고 합시다.(E)

제5일(7월 4일/토요일)

작년보다 체육대회 시간이 짧긴 했지

만 그런대로 몇일간의 치루함을 달래는 의의는 있었다. 족발, 수육, 와!(입 벌어지는 소리)(A)

크리티크를 받고…교수님들도 고개를 갸우뚱 거리시면서 어렵다고 하시지만…모두들 얼굴은 심각하고 표정이 굳어 있다. 이럴땐 입큰 개구리 시리즈 얘기라도 해주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다.

놀랐다. 크리티크하실때는 그렇게 냉철하고 위엄있고 또 어렵게만 보이던 교수님과 건축사분들이 농구하면서 뛰어 다니시는 것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난다.(B)

체육대회후 우리는 조금 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쳤은 우리들 생각일뿐 얼마가 지난후 교수님들이 작업실에 오셨다. ‘이것은 좋지 않다. 다시 상의해 보아라’ 등등 그러나 우리의 의견은 바꾸지 않았다.(C)

1시 : 점심식사후의 크리티크-교수님들은 언제나처럼 날카롭게 우리들의 실수 또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다. 그리티크후의 허탈한 기분.

6시 : 족발잔치-빈약한 양으로 우리는 나무젓가락만 만지작 거렸다.

9시 : 크리티크를 기다리다 지쳤다.(E)

씩 평면과 입면이 바뀌면서 의욕이 떨어진다. 잠이 모자라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다. 식사후 얼마가 지났을까 교수님들이 작업실에 오셨다. 이제는 교수님들과의 입씨름도 힘들어졌다. 그래도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숙소에 가서 라면을 먹었다.(C)

도 모른다고. 하지만 해본 사람만이 안다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작품을 보면서 모두들 아쉬운 표정들을 보였다. 사실 모두들 7박 8일 동안 고생들 많이 했고 지금은 표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얻은 그 많은 것들을 언젠가 알게 되리라.(B)

오늘이 디자인캠프 마지막 날이다.

이것이 마지막 발악인가?

모두들 판넬과 모형에 온힘을 쏟고 있다.(C)

우리들의 이빠진 동그라미, 잊어버린 조각찾아 해메이던 디자인캠프의 날들이었다. 힘겨운 짹찾기인 만큼 얻은 짹을 미운 오리새끼처럼 더 큰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D)

새벽 5시-잉킹과 모형제작으로 밤을 새웠다. 계승츠레 밟아오는 창밖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검푸른 색이 꼭 바다위에 앉아서 바다속을 바라보는 느낌이다.

오후 6시-모든 작업은 끝났다. 허탈한 모습이다. 모두들, 무엇인가 더 해야할 일을 남겨 놓은 것처럼 서성거리고 있다.

마치고 나서-아무것도 모르던 우리에게 넓은 길을 안내해 주신 여러 교수님과 건축사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또 대전대학교의 조교님, 식당아줌마, 수워아저씨…모든분들께 도

감사합니다.(E)

제6일(7월 5일/일요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른해지고 축축 처진다. 그리고 하루에 한번

제7일(7월 6일/월요일)

도면작업, 모델작업. ‘꼴’이 모두 말이 아니다. 서로 바쁘다. 날은 왜 이렇게 덥지?(A)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할 작업도 많아 모두들 출렁 눈을 비비며 열심히 하는데 더욱 고맙고 또 잊지 못할 것이. 우리를 끔찍하게 쟁겨 주시는 조교 선생님들이 무지 감사하다.(B)

새벽 2시의 지도-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교수님이 차상한 할아버지 같다. 제자들과 밤을 새워가며 좀 더 많은 것을 제시해 주고자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좋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은 시간을 잊고 작업에 열심이다.(E)

제8일(7월 7일/화요일)

누가 그러더라. 이걸 보고 겨우 이것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투자했냐고 할지

제4차 건축디자인캠프 종합토론

○ 일 시 : 1992년 8월 6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대전건축사회 2층 회장실

○ 참가자 : 회장 송승호

회원 정인협, 박홍식, 최 진, 윤여경, 신교영, 이광수

(개 회)

○ 송승호

바쁘신 시간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제4차 건축디자인 캠프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7박 8일동안, 각대학 교수님과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무사히 대전대학교에서 마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캠프기간동안 매일 참석하여 수고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문제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보려고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주시어 앞으로의 디자인캠프가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술한 말씀을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년 처음 참가해주신 이광수 소장부터 이야기해 보시죠.

○ 이광수

올해 처음 참석을 했는데 여러 선배님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은 밑에서 써포트해 드리는 정도로만 했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느낀점은

첫째, 주제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산학협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7박 8일의 기간동안 과연 학생들이 얼마만큼 소화를 할 수 있느냐도 좀 의문시 됩니다.

○ 정인협

제 생각도 비슷한데, 첫째 우리가 당

초에 캠프의 목적과 달리 주제가 실현성이 없다 하여 금년에 실현 가능한 주제를 선택하려고 하였는데 안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뭔가 실현 가능성 있는 주제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방법도 좀더 구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지도위원도 정예화하여 누구 누구는 지도를 한다. 그리고 지도할때는 지도자가 그전날 참석치 못하였으면 누가 어떤식으로 전날 지도를 했나를 체크하고 나서 지도하는 방향이 팬참을 것 같습니다.

○ 신교영

많은 날들을 디자인캠프에 참석하여 학생들의 작품진행과정과 각 대학의 교수님들, 건축사들의 지도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각 팀들의 주제에 대한 개념, 또는 study 과정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한번은 디자인캠프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일부 학교의 교수님들은 critic에 불참하시어, 한 대학의 교수님들만 critic에 참석, 진행하게 된 바, 그 critic 내용이 학생들의 개념이나 방향, 즉 어제까지 study해온 형태의 발전이 아닌 전혀 새로운 idea를 제시하므로 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한듯 보입니다. 결국 교수님들의 그런 critic내용은 작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느낀 점은 대학 간의 교수님들간에서 지도의 방향이나 개념설정에 대해 논의가 있는 다음 critic이나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며, 건축사든 교수든간에 누가 지도를 하여도 시종일관 일관성 있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 이광수

현장설명을 24일 끝내고 30일부터

디자인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팀도 리더가 없어서 그 6일 동안 전혀 데이터조사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데이터조사를 과감하게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분석을 하고 어떻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 등으로 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윤여경

저는 협회쪽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건축사협회 선배 회원님들이 디자인 캠프가 뭔가를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후원하니까 참석하여 지도하는 선배님도 계시겠지만 참여하여 건축사협회에서 후원을 하는 것처럼 보여줘야지 디자인캠프를 대학 교수들이 하는 일을 건축사협회에서 그냥 가서 지켜보는 것처럼 그런 인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발언권이 없어요.

선배 회원들이 나오셔 같이 얘기를 하면 발언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수님들하고 저희 젊은 사람들하고의 대화가 단절이 되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중간에서 다끊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나이드신 소장님들이 나오시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느정도는..... 협회의 입김이 전혀 10%도 반영을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 정인협

그 문제는 나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원 참여문제는 우리 젊은 회원들이 리드하고 할 수 밖에 없어요.

젊은 세대가 이끌어 나가면 나이드신 분들은 따라 오시면 따라 오시는대로 두고 우리시대가 될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발언문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처음부터 참여를 하고 발언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보면은 영뚱한 얘기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무시당하고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 참여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쇠 진

디자인캠프를 처음으로 접하면서 산학협동의 장을 열어주신 각 대학의 교수님과 선배 건축사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 드립니다. 학생들의 신선한 생각과 꾸밈없는 표출을 접하며 기성인의 건축사로서 자아반성의 소리를 가슴속 깊이 느끼었다고나 할까요? 교수와 학생/학생과 건축사/학생과 학생/교수와 실무건축사간의 대화속에 디자인 캠프에 참여한 모든분들은 많은 것을 느끼었으며 우리 건축인의 지표를 다시금 생각하였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8일간에 걸쳐 조금이나마 동참하였던 후배로서 몇가지를 제안하여 다음해의 디자인캠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캠프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대학교 3,4학년 학생입니다. 학생이라는 장점은 무엇일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의 사고는 어는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자유스러운 방향으로 유도, 확장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경험의 바탕위에서 폭넓은 사고력이 발생되겠지만 학생의 순수함 그 자체의 자유스런운 사고력을 우리 기성인들은 받아들이고 이끌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내용 및 일정표의 수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비소집일의 강의

시간을 마지막날인 평가와 같이 한다면 학생 자신의 막연한 사고와 자신의 시행착오를 체험함으로서 좀 더 나은 건축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강의시간이 처음에 위치하니 학생들의 생각을 보이지 않는 틀속에 묶어놓는 양상의 일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중간평가 시간에 있어 교수님과 건축사님들의 지도 방법을 좀더 개발 연구 하였으면 하는 바 입니다. 나 개인의 성향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학생 작품을 보아 자유스러운 사고력 발생을 유도하였으면 합니다. 여러 방향의 사고력속에서 시행착오와 잘못을 느낄 때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산학협동 체제가 더욱 더 굳게 다져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째, 모든 건축사님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운영위원 몇 분의 건축사님과 소수 건축사님들의 참여로 산학협동 체제가 정립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교수님과 학생 그리고 많은 건축사의 참여가 있어야 심도있는 토론과 방향성이 접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바쁜 업무속에서 모든분의 참여는 어렵겠지만 우리 건축사협회의 주관아래 개최되는 행사이나 디자인캠프에 조금의 시간이라도 할애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92년 제4차 건축디자인캠프 행사를 운영하신 선배 건축사님들과 각 대학 교수님들께 진심의 감사를 드리고자 하오며 제5차 건축디자인캠프 행사에 있어서는 좀 더 알차고 내용있는 행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 박홍식

이번 행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런 모임은 언젠가는 한번 저 개인적으로라도 마련할려고 하였는데 회장님의 직접 자리를 만들어 주시니까 먼저 제 입장에서 짐도 가볍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지금 이 디자인캠프가 4회까지 진행되었습니까만 저는 사실 큰 관심없다가 이번에 책임을 맡아 가지고 하게 되고 나서 전보다 잘한다 못한다 보다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캠프의 목적인 산학협동을 달성코자 하려면 교수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해왔고 그래서 지금 4개 대학까지 가고 마지막 공업대학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보다도 충분한 개선책이 없을 때에는 일단은 보수적 측면인 현행 대로 디자인캠프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두번째는 각 대학교수님들의 지도방법 주제의 선정등에 문제가 없는건 아니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역시 대전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도 인정을 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업대학이 주관을 안하였기 때문에 한 싸이클이 지나간 다음에 바꾸자는 것은 현재 운영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우리 건축사들의 생각이고, 바람직하다는 애깁니다.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시행하면서 문제를 심층분석 창출하여 1년후 고민하고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해도 시간적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담당간사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잘할 수 있고 또 잘할 생각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집행하는 의미에서 제 의견을 거의 개진을 안하고 주욱 따라가면서 가운데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조정만 했습니다. 혹시 운영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담당간사로서 책임을 하고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 송승호

금번 디자인캠프에 처음 참가하신 여러 소장님들께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예민한 지적을 해주신점 같습니다. 이 광수소장님께서 지적하신 캠프의 주제 설정에 대한 지적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주제가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산학협동하에서의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1차, 2차 때에는 그런대로 주제가 균형 생활시설로서 각종 법 즉 건축법, 도시 계획법, 등의 규제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하여 각 건축사 사무소에서 검토하는 식의 방법이 이루어졌으나 3차, 4차에 있어서 공공시설을 주제로 삼고 보니까 그러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만 둘출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제설정에 적극 회원들이 참여하여 교수님들과 머리를 맞대며는 풀릴 수 있는 문제라 봅니다.

작년에 제가 취임하면서 나름대로 디자인캠프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의 흐름에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이번만 나온것이 아니고, 매번 반복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5차를 치루며는 각 대학에서 개최되었던 디자인캠프가 한 사이클이 지납니다.

그때에 정밀한 검토와 반성으로, 새로운 산학협동체인 디자인캠프에 반영된다며는 문제의 해결은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디자인캠프를 마친 학생들이 대전의 회원사무실에 입사를 하지 않고 서울에만 갈려고 한다는 여러 회원들의 불만의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캠프를 마친 학생들이 100% 대전에 남으리라고는 생각치 않았습니다. 또 학생들 개인들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해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6~7명정도가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차 대자인캠프가 끝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건축용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매번 디자인캠프를 치르면서 어느정도 수정되어, 금번 4차 캠프에서는 나름대로 정리되었다고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주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과 교수님들이 앞으로도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새로 협회에 가입하신 회원들의 적극 참여에 앞으로의 디자인캠프는 밝다는 생각을 같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회원들이 참여하니까 전년도까지 참여했던 회원들의 참여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원 참여 문제도 세밀한 분석하에, 주최자인 우리협회의 연구가 있어야 될 문제로 봅니다.

아무튼 이번 4차 디자인캠프는 새로운 회원들의 적극 참여가 큰 수확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 정인협

디자인캠프성과의 분석은 각자 견해 차가 있겠지만 저는 디자인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취업을 대전건축사사무소에 하든 안하든, 개의치 않고 다만 그 과급효과가……, 대전지역 건축과 학생들의 질적 향상으로 보고, 몇개 대학에서는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써클활동등 수업시간에 리더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송승호

디자인캠프의 운영은 참으로 고도의 기술이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각대학 교수님들과의 활동작품이어야 되다보니까 완벽한 결과 보다는, 원만한 결과의 만족을 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봅니다.

누가 주관을 하고, 누가 주최를 하든 완숙한 결과의 만족은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각대학의 순회가 끝나니까, 내년도캠프의 시작 때부터, 지금 우리가 제기하였던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운영하여 본다면은 싸이클이 끝나는 후년도부터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차이는 각자의 철학이 결정짓게한다고 봅니다. 회장이라서 매일 참석해야 되고 담당간사라 해서 매일 참가해야 된다는 식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고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디자인캠프에 대한 긍정적인 감각으로 면회날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한일의 써운 밀알이 된다는 각오로 캠프가 진행될때 처음 시작할때의 대전지역 건축디자인캠프의 원뜻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인협

내년도 디자인캠프의 방향을 180도로 방향을 돌릴수는 없고 종전대로 하되, 우선 전체를 훈련지 않는 범위내에서 두가지쯤, 즉 주제문제하고 지도관계를 재정립하여 시행하고 6차때나 가서 그동안의 여러분제를 들출, 검토, 토론, 결과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송승호

장시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은 바로 디자인캠프의 발전에 원동력이라 생각됩니다. 캠프는 지금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 검토될때 성공리에 될 줄 압니다. 우리 다같이 머리 맞대어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편집후기

지루한 장마와 더불어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래도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발전되어가는 우리의 디자인 캠프!

4차 캠프에 수고하신 대전대 학교의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내년에 다시 대전공업대학에 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92 제4차 건축디자인캠프

1992년 12월 1일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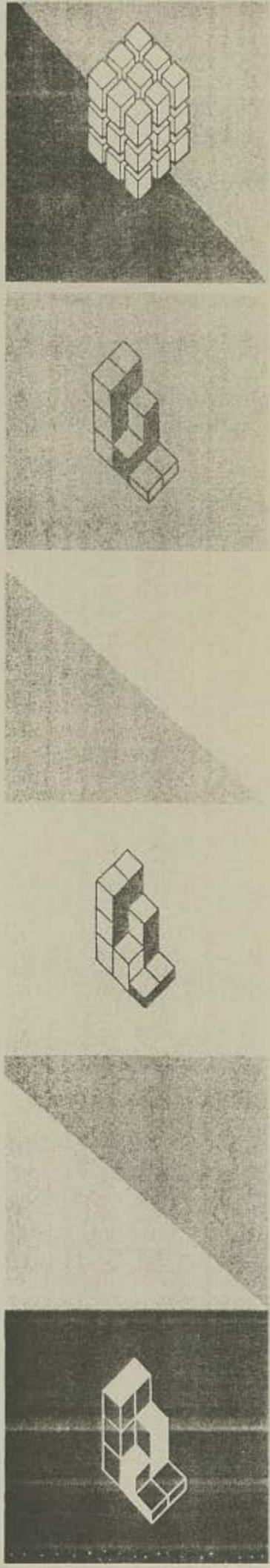
1992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 송승호

편집인 : 김상겸, 정인협

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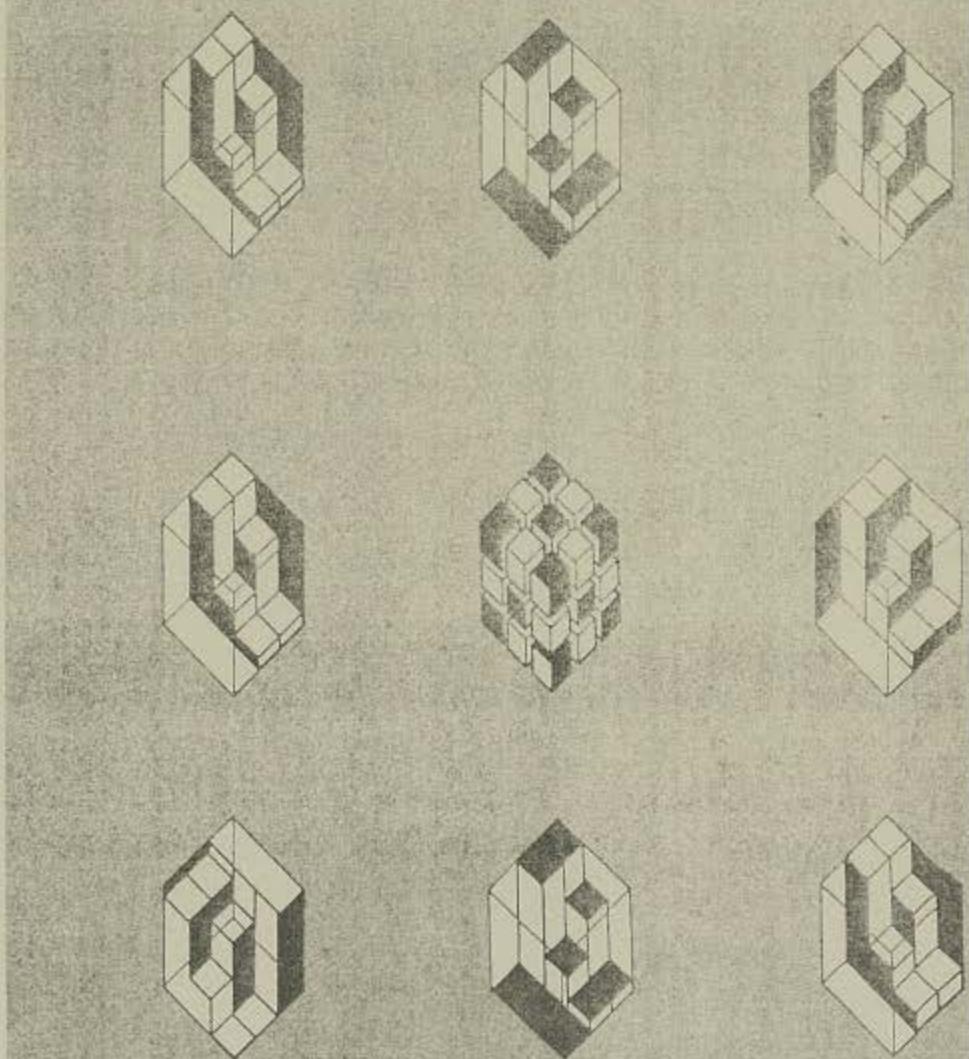
대전직할시건축사회



‘93 제5차

건축디자인캠프

주제: 도심지 소규모 공공시설 / 공중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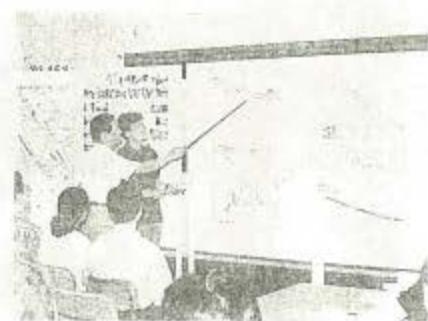
1993. 6. 28(월) ~ 7. 3(토) / 대전 산업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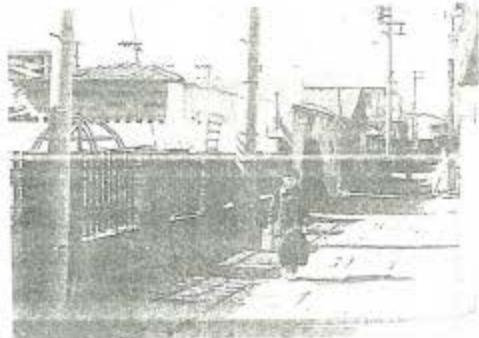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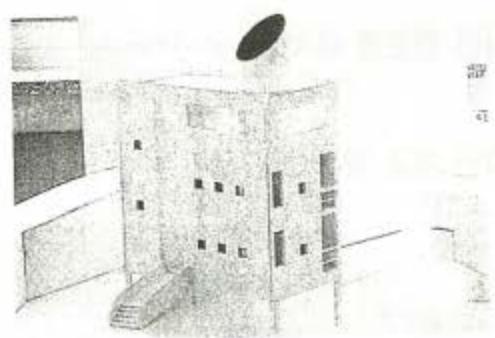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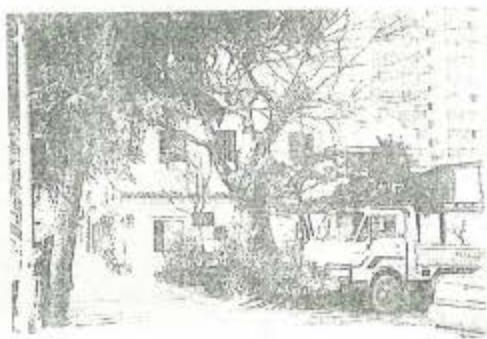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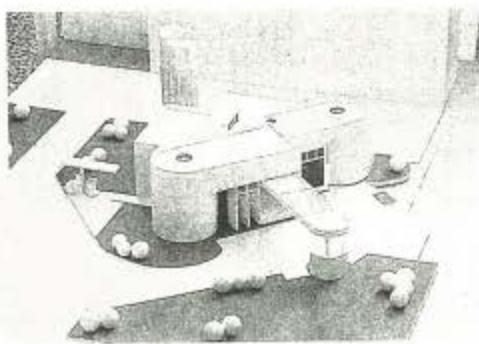
주최: 대한 건축사 협회 대전직할시 건축사회

주관: 대전 산업 대학교 건축공학과

제5차 건축 디자인 캠프 목차

1 문화창조를 위한 초석이 되어야.....	임근수 1
2 대전 건축 디자인 캠프: 체계적인 설계교육방식	송인호 2
3 운영개요	9
4 설계주제／프로그램	길성호 11
5 교육진행과정	16
6 계획안 및 평가 ...	유창열, 설용찬, 김억중, 여태석, 길성호 21
7 건축 디자인 캠프를 마치고	31
8 건축 디자인 캠프: 향후 방향에 대한 토론	34





1. 문화창조를 위한 초석이 되어야 ...

회장 임근수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건축사회

이제부터 건축 전문인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디자인 캠프를 개설하여 명실공히 이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과 건축문화 창달에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동안 우리협회에서는 다섯 차례의 건축디자인 캠프를 실시하였다. 주제하는 바와 같이 디자인 캠프의 목적은 건축설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실제상황을

부여하여 설계실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실무라는 체험을 통하여 보다 나은 건축인을 배출하려는 데 있으며, 나아가 건축분야에서 산학협동이라는 명분을 실현시키고 건축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인간이 창조되면서부터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인간의 생존이 존속하는 한 주거공간은 인간의 요구에 따라 더욱 개성있게 표현될 것이다. 주거공간이라 함은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주택 개념만이 아니라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문화가 발달하면서 계층별 요구도 다양해졌고 건축재료 역시 다양화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건축사들은 더욱 고충이 많아졌다. 건축설계는 물론이지만 건축 허가와 시공에 이르는 잡다한 과정 때문에 건축을 예술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감마저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의 건축 공간이 특징있는 건축물이 되어 다른 곳에서 이 고장으로 전학하려 올 수 있어

야 한다고 제안해 본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건축물이 역사성 내지 예술성을 지닌 명품으로 완성되길 기원해 마지 않는 다.

대전의 건축디자인 캠프는 건축과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각 대학이 주관하여 다섯 차례를 진행하였다. 물론 각 대학이 특색있게 독자성을 가지고 진행하였지만 시간과 재정 등의 한계가 있었으므로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디자인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각 대학의 설계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믿는다. 건축사와 교수 그리고 학생들 모두에게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건축 전문인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디자인 캠프를 개설하여 명실공히 이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과 건축문화 창달에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더욱이 이 지역 건축교육에 매진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건축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있는 건축사 모두에게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건축디자인 캠프가 더욱 발전 있기를 축원하는 바이다.

2. 대전 건축 디자인 캠프 : 체계적인 설계교육 방식

다섯 차례의 건축 디자인 캠프

송 인 호

한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1993년 7월 3일 저녁 일곱 시가 넘어서야 수료식을 할 수 있었다. 각 팀들은 트레이싱지 전지 크기에 잉크된 계획안과 1/30로 만들어진 모형을 전시하였다. 예정은 세 시로 잡혀 있었지만, 이렇게 늦어지리라는 것은 예상했던 바였다. 작품의 결과를 바라보는 심정은 예년과 비슷했다.

반쯤은 올해도 이만큼이나마 마무리했구나 하는 안도감으로, 반쯤은 무엇인가 넘어서야 할 벽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마음이었다.

대전의 건축 디자인 캠프는 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 건축사회가 주최하고, 각 대학이 돌아가면서 주관한다. 올해 제5차 캠프는 대전산업대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1989년 충남대 건축공학과를 시작으로, 1990년 목원대, 1991년 한남대, 1992년 대전대에서 각각 캠프가 진행되어 왔다. 대전시 내에는 모두 다섯 개 대학에 건축과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 주관하여 이제 한바퀴를 돋는 것이다. 다섯 차례를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체계와 독자성을 갖추어 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번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곤 하였다.

건축 디자인 캠프는 설계 교육을 통해 대전의 건축 문화의 위상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건축 실무와 교육의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대학간의 교류를 통하여 설계 교육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 교육 과정을 통하여 디자인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각 대학의 설계 교육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울러 캠프를 진행하면서 건축사와 교수, 교수 서로간에 자극을 받고, 또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목적들은 설계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설계 교육은 실무와 이론,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다섯 차례의 건축 디자인 캠프의 설계 교육을 설계 주제, 설계 개념, 교육 과정의 세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차(1989)	2차(1990)	3차(1991)	4차(1992)	5차(1993)
기 간	8.5-8.12	6.25-7.2	7.2-7.9	6.30-7.9	6.28-7.3
주 최	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 대전지회				
주 관	충남대 건축과	목원대 건축과	한남대 건축과	대전대 건축과	대전산업대 건축과
운 영 위원장	강우식	강우식	송승호	송승호	임근수
캠프장	박만식	박만식	박만식	박만식	박만식
참가학생	4명 × 5=20명		5명(4학년 2명 + 3학년 3명) × 5개 학교 =25명		

주제	도심 속의 건축	도심지 유아를 위한 놀이공간	도심 내 소규모 공공 건물	문화의 거리 중앙로	도심지 소규모 공공 시설
프로그램	소규모 상업 건물	유치원	파출소	'93 EXPO 관광 안내소	공중화장실
대지	모서리 대지 (태흥동 147-4 외)	놀이터 (태흥동 160)	짜투리 대지 (서로 다른 대지)	중앙로변 (서로 다른 대지)	도로변/공공용지 (서로 다른 대지)
초창강의	이광노(건축가의 위상)	서상우(미스 건축의 교훈)	안영배(한국 건축의 외부 공간)	고주석(환경건축에의 추구)	
주제강의	김억중(설계 작업 과정, 방식 및 주제)	안성찬(관련 법규 해석) 김억중(프로그램과 비평기준)	대전경찰서 보안과장 (파출소의 기능과 위상)	김상겸(설계주제/ 프로그램) 송인호(계획안의 표현)	길성호(설계주제/ 프로그램) 송인호(설계개념과 표현)
	강우식(건축 설계의 현실적 조건)	김경수(유럽 현대 건축)	송인호(계획안의 표현)	김형우(점·선·면의 구성체계와 해체의 시대정신)	박만식+최진(주제 관련 사례)
	박윤웅 외(모서리 건축 사례)	장태현(아동공원의 개념과 시설) 송광섭(유치원 건축 사례)	송승호(대전의 건축) 박만식(소규모 공공 건물 사례) 김정동(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오영석(구조계획원리) 박만식(형태구성의 원리)	
	· 건축사와 각 대학 설계담당 교수로 구성된 설계지도 위위 등이 공동 으로 지도	동일	동일 (팀별 지도와 전체 공동 평가로 구분)	동일 (팀별 지도와 전체 공동 평가로 구분)	설계지도위원 (tutor)의 전담 지도 (교수+건축사) ①박찬규+유창열 ②이기승+설용찬 ③김억중+신교영 ④김상겸+여태석 ⑤길성호+최진
기타			기술 관점(구조 분야) 에서의 설계 평가		

〈표1〉 건축 디자인 캠프 진행 개요(1989~1993)

설계주제 : 대지와 프로그램

프로그램/소규모 공공건축

1차에서 5차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은 소규모 상업시설, 유치원, 파출소,

관광안내소, 공중 화장실이었다. 1차와 2차의 프로그램은 보다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다. 1차의 경우는 대지의 규모와 법규에 의하여 용적이 결정되었고, 2차의 경우는 유치원의 기능으로부터 대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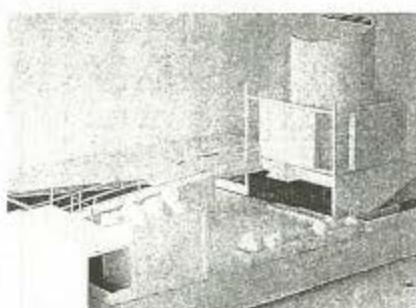
적인 규모가 결정되었다. 한편 3차에서 5차의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기능은 다르지만, 도시의 소규모 공공건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주 기능

	대지/팀	도시 맥락
1차	동일한 대지	도심의 직교하는 길에 면한 모서리 대지
2차	동일한 대지	도심 블록 내부의 어린이 놀이터 일부
3차	서로 다른 대지	도심 블록 내부에 주변건물로부터 벼려진 짜투리 땅/옛길과 새길이 만나면서 생긴 삼각형 대지/경부선 철도와 고가차도가 교차되는 모서리 대지/대형건물 앞의 공지/복개된 대전천 위의 인공공원
4차	서로 다른 대지	중앙로 주변의 대지 : 길에 면한 대형 건물의 선큰 가든/대형 배화점의 모서리/지하도 입구/ 은행 옆 옥외 주차장/복개된 대전천 위의 인공공 원과 가로와 만나는 부분
5차	서로 다른 대지	대홍동 도심공원(2차와 동일)/대전천변의 경로공원/ 보물산 입구의 구 대사동사무소 대지/대전천의 중교 옆 하천 대지/노후된 주거지 내부에 있는 인동사무소 옆 공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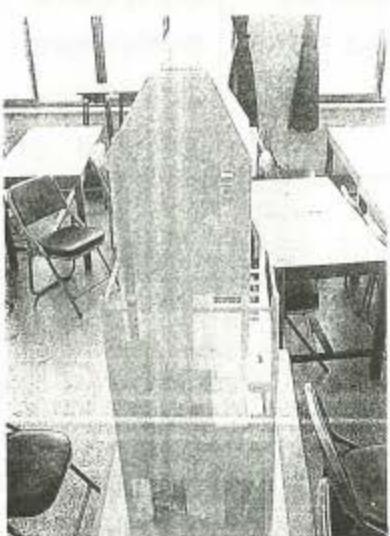
〈표2〉 대지와 도시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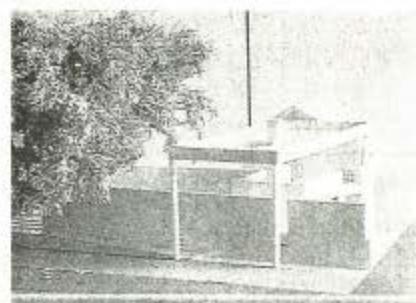
최종평가회 (3차/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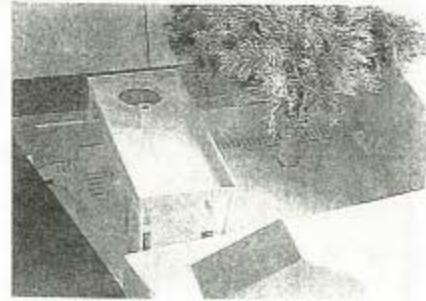
관광안내소 : 수직적 형태와 도시의 커
(4차/1992년)



파출소 : 에워쌈과 수직적 형태
(3차/1991년)



공중 화장실 : 구 대사동 사무소
(5차/199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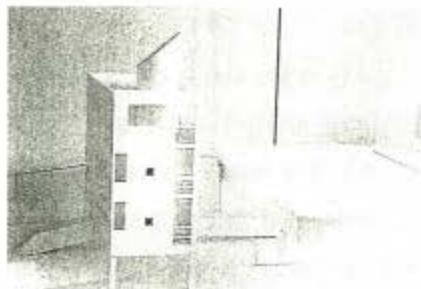


과 규모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였다. 각 팀들은 주어진 대지의 해석으로부터 형태의 유파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기능들이 능동적으로 부가하도록 하였다. 계획안은 기능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동사무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체국이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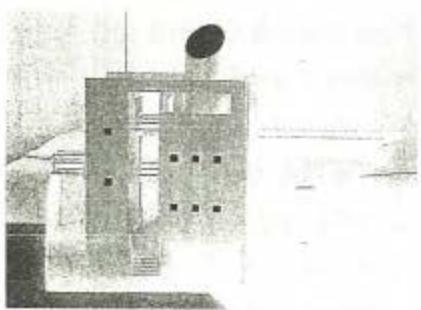
프로그램은 짧은 기간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가능한한 많은 시간을 건축적인 문제에 주목할 수 있는 작은 규모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규모는 작다하더라도 그것은 건축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선택된 소규모 공공건축이라는 프로그램은 규모는 작지만, 형태적으로 중요하게 표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도심의 대지

1차는 대전시의 중심지구의 한 모서리 대지이며, 2차는 도심의 블록 내부의 공원이었다. 다섯 팀이 동일한 대지를 대상으로 설계를 하였다. 두 길이 직교하는 모서리의 대지는 설계사무소로 의뢰되었던 대지로,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만족시켜야 했다. 건축법규와 주차대수에 따라 형태의 유파선이 결정되었다. 한편 도심공원의 대지는 블록의 내부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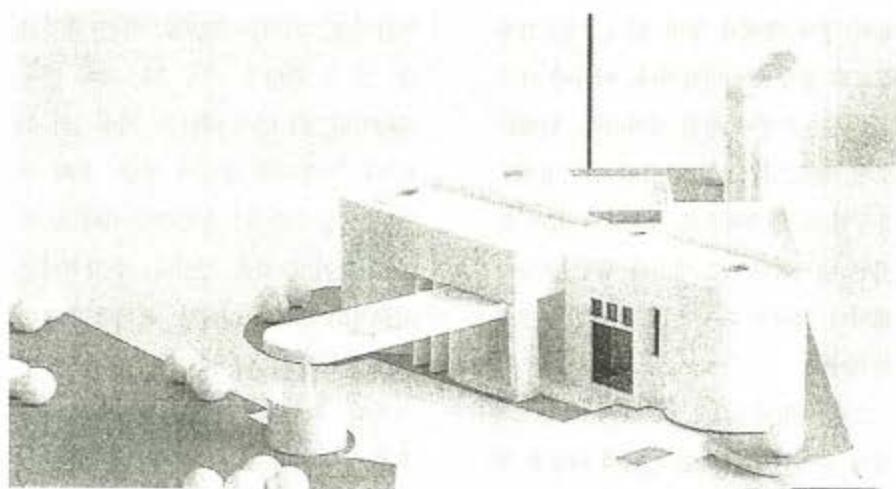


공중 화장실 : 중교천 옆 하천대지
(5차/1993년)



하며, 네 변이 길로 둘러싸여 있는 대지이다. 놀이터의 한쪽에 대지를 한정하여 계획하도록 하였다. 공원의 설계와 유치원과 공원이 만나는 방식을 남겨둔 채 건물을 설계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3~5차의 경우는 서로 다른, 다섯 개의 대지를 선택하였다. 1, 2차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대지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은, 자칫 하나의 모범적인 해답을 향하여 서로 경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 쉽다. 또는 동일한 설계 주제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정하는 등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될 위험성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3차의 대지들은 대전의 도시 구조적 특성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지들이다.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와 대전천, 그리고 직각 방향으로 놓이는 중앙로는



공중 화장실 : 대흥동 도심공원 (5차/1993년)

대전의 도시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구성 요소이다. 각각의 대지들은 이들 도시 구성 요소의 주변에 또는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 위치한다. 4차의 경우도 대전의 중심가로인 중앙로를 중심으로 다섯 개의 대지가 선정되었다. 각각의 대지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중앙로와 그 주변의 건물, 대전천, 지하도 등이 만나는 방식의 해석이다. 5차의 다섯 개의 대지들은 각 팀의 퓨터들이 선택하였다. 대지의 선택은 이미 설계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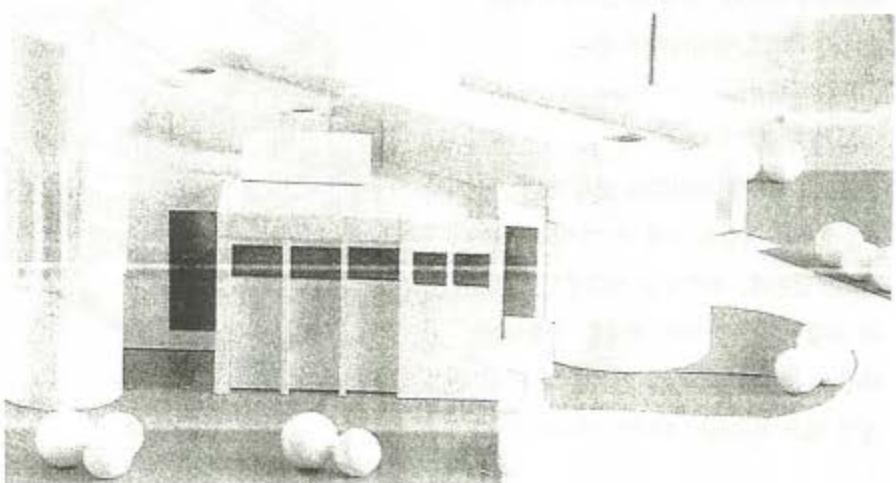
그러므로 전담하여 지도할 퓨터들이 직접 대지를 결정하는 것이, 곧 설계 지

도의 출발이라고 판단되었다. 선택된 대지들은 기존의 공공시설이 있던 자리 또는 도시 공원 등이다. 이 대지들 역시 대전의 도시 구조 속에서 의미있는 위치에 놓여있다.

도시와 건축이 하나의 문제

3차에서 5차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열다섯 개의 대지가 갖는 공통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그 대지들은 도시에 버려져 있던 땅이다. 비싼 땅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지을 만한 크기가 못되거나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남겨져 있던 대지이다. 둘째로 대지는 대전의 주요 도시 구성 요소



'93 제5차 건축디자인캠프

와의 관계 속에서 놓여 있다. 대전천과 철도와 중앙로에 면하거나, 이들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 면한 대지이다. 현재는 도시 맥락으로 보아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못했던 대지이다. 그 대지에 대한 건축적 해석이 각각의 대지를 풀어가는 첫번째 열쇠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대지로부터 설계개념이 얻어질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선택된 결과이다. 대지의 조건이 명확할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분명하며, 설계 작업 또한 명료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1차에서부터 강조되어 왔던 것으로, 도시의 기본 구조를 무시하지 말고 그것은 건축행위에 있어서의 개념의 추출, 형태적 사유와 가치 판단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김억중, '89 제1차 건축 디자인 캠프 보고서)

건축 디자인 캠프의 설계주제는 도심의 소규모 공공건축이다. 도심의 대지 위에 소규모 공공건축이라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설계과제이다. 결국 도시와 건축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다. 도시와 건축의 문제는 서로 분리된 개별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설계개념

사고와 형태를 이어주는 설계 개념

건축설계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반부는 사고를 구축하는 과정이고 후반부는 형태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김억중, '89 제1차 건축 디자인 캠프 보고서). 하나는 머리로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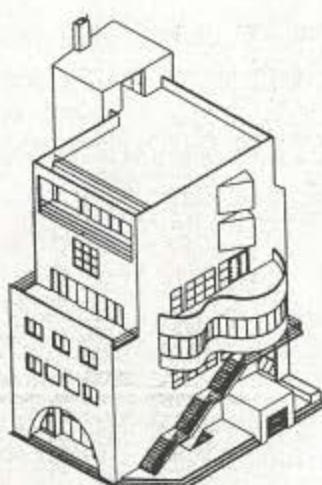
작업이고, 하나는 손으로 하는 작업이다. 그 두 과정을 이어 주는 것이 설계 개념이다. 이 설계 개념은 '자연과의 조화'나 '전통적인 공간의 연출' 등의 막연한 추상개념이나 슬로건이 아니고, 보다 건축적인 것을 말한다. 문학적이고 서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설계 개념은 설계안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는 데 있어 기준이 된다. 공동작업에 있어서는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언어가 되고, 대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된다. 건축사와 교수들이 계획안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과정도, 설계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계획안에 대한 지도와 평가는 사고의 내용이 적절한 설계개념으로 정리되었는가, 그리고 그 개념이 적절한 형태와 공간으로 구체화 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설계 개념이 형태와 공간으로 명료하게 표현된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는 인식이 비평의 기준

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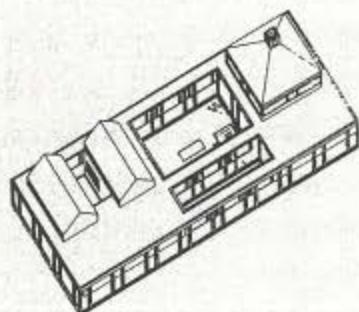
공부한 배경이 다르고 건축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작업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용어의 개념 정의가 필요했다. 사용하는 용어와 그것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 서로 달라서, 다른 뜻을 동일한 어휘로 표현하기도 한다. (건축형태와 공간) (Francis D.K Ching, Architecture : Form Space & Order)을 건축 디자인 캠프에서의 용어와 개념정의에 관한 교재로 정하였다. 학생들과 건축사와 교수들은 이 책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와 개념 정의를 중심으로 계획안을 설명하고 비평하였다.

계획안은 도면과 모형으로 표현된다. 도면과 모형 역시 자신들의 설계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표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단면 투시도 또는 단면 액소노메트릭을 통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단면, 평면, 입면을 설계 개념에 따라 입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표현한다. 모형은 1/30으로 만들도



설계 개념과 표현

교차로에 면한 네 모서리의 완성(1차/1989년)



격자 구조와 단위 공간 (2차/1990년)

록 하고, 내부가 들여다 보이도록 하였다. 모형은 계획안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면서, 공간들의 단면적인 관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설계 개념의 의미와 한계

1차에서 5차에 이르기까지 계획안들의 대부분은 세련된 형태로 완성되지 못한 채 마무리되어 있다. 몇몇 작품들은 설계 개념들이 적설적으로 옮겨져 있는 단계로 머무르고 있다. 설계 개념을 토대로 형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계이다.

계획안은 설계 개념을 토대로, 정교한 변형과 신중한 조작을 통하여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다수 대다수의 지도방식을 통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형태를 구축하는 과정은 손을 통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머리로 하는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분석과 함께, 손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교육 과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만일 설계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작업을 했으면, 비록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기본적인 형태 감각을 바탕으로 더 정리된 형태를 그려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디자인 캠프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 작업은 개인적인 창조의 과정이 아니라, 공동의 교육 과정이기 때문이다. 설계 개념은 사고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형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준다. 체계적인 설계 교육 과정은 이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진행 : 공동 작업과 설계 지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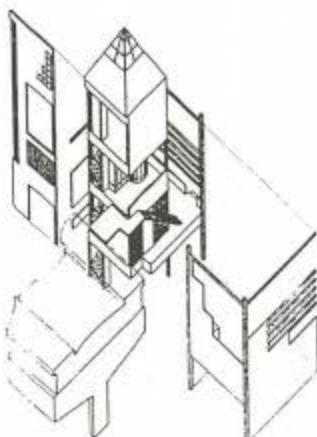
공동작업

학생들은 다섯 학교에서 다섯 명씩 모두 스물다섯 명이 참가하였다. 올해의 경우 그중 11명은 4학년 학생들로, 작년 또는 재작년에 이 캠프를 거친 학생들이고, 나머지 14명은 3학년들로 이번이 처음인 학생들이다. 서로 다른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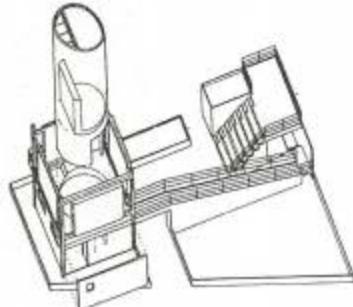
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다섯 명씩 한 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아직 의사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어휘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토론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공동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더욱이 7박 8일 또는 5박 6일이라는 짧은 기간은 팀워크를 조성하기에만도 부족한 시간이다.

예비소집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 캠프가 시작하기 며칠 전에 학생들에게 설계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하고 팀을 구성하고 대지를 부여했다. 그리고 개교식 전에 대지를 답사하고 분석하여 대지 모형(1/150)을 만들어 오도록 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미리 고제하고 설계 주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준비하여 디자인 캠프에 임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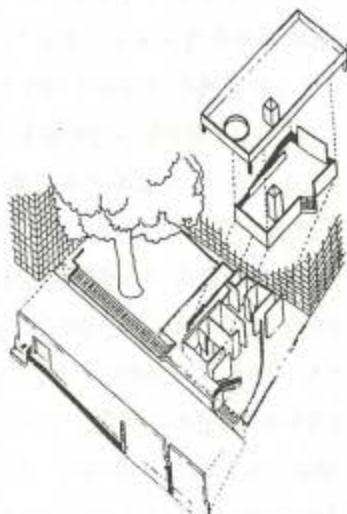
그렇지만 여전히 팀의 규모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섯 명이라는 숫자는 소규모 계획을 단기간에 서로 다른 성격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기에는 많은 숫자이다. 의견 조정이나 역할의 분



에워쌈과 수직적 형태 (3차/1991년)



수직적 형태와 도시의 커 (4차/1992년)



나무와 벽 (5차/1993년)

담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 작업의 의미와 효과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규모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동 설계 지도와 전담 설계 지도

교육과정은 강의와 지도 및 평가로 이루어진다. 4차까지는 몇몇 설계 담당 교수 및 건축사들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설계를 지도하고 평가했었다. 그러나 공동으로 지도하는 방식은 때때로 학생들에게 무책임하기 쉽다. 특히 형태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회적인 말이나 암시적인 스케치는 자칫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단계별로 정해진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도와 평가의 대부분은 설계 개념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고 있다. 형태를 구축하는 과정은 마지막 하루 이틀 정도로, 학생들에게 방임 상태로 남겨지게 된다.

학생들은 선생들이 일부러 애매하게 그려준 스케치를 가지고 고심하거나, 마지막 순간에 설계개념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맡은 부분만을 그려내기도 한다.

5차 디자인 캠프에서는 공동 지도 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담지도 방식을 도입하였다. 각 학교별로 교수 한 사람과 건축사 한 사람이 짝을 이루어 각각 한팀 씩을 전담으로 지도하는 투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투터들은 각각 대지를 선정하고, 팀별로 설계 과정을 지도하였다. 최종 평가를 포함하여 세 번으로 계획된 평가는 다섯 개팀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투터들과 설계지도위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사고와 형태를 구축하는 작업을 일관성

있게 투터 중심으로 진행하되, 그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또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각 투터들이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계 과정을 지도해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투터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다. 어느 정도까지 그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설계 과정의 주체가 학생인가, 투터인가에 대한 판단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무와 이론을 서로 보완해 주리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 팀에 두 명의 투터라는 방식도 애매하다. 지금까지 1차에서 5차에 걸친 건축 디자인 캠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 설계 지도방식에 투터시스템이 명확한 방식으로 접목됨으로써 체계적인 설계 교육 방식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3. 운영 개요

1. 목적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 건축사회와 대전지역 각 대학 건축(공)학과 교수들의 공동 노력으로 각 대학 건축(공)학과 3,4학년 학생중 건축설계분야로 진출할 뜻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제상황에서 공동으로 설계하는 연수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건축실무와 교육을 긴밀하게 연계시켜 건축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대학간 설계 프로그램의 교환과 발전의 기회를 가지며 이를 대전지역의 건축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2. 일정

- 예비소집 : 1993년 6월 25일(금)
09:00
- 캠프기간 : 1993년 6월 28일(월)-
7월3일(토)
- 개교식 : 1993년 6월 28일(월)
10:00

3. 장소

- 대전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
신관 2층

4. 참가학생 및 팀의 구성

- 5개교 각5명씩 25명 /
한팀 5명씩 5개팀 구성

• 참가학생명단 (학교별)

충남대 : 김진식(4), 조혜경(4),
변진희(3), 김재정(3),
김경배(3)

목원대 : 김경호(4), 양만직(4),
안재성(3), 박창옥(3),
이기옥(3)

한남대 : 정우영(4), 이용체(4),
최은주(4), 정락희(3),
김남식(3)

대전대 : 장인철(4), 송제현(4),
김윤탁(3), 김병일(3),
이홍주(3)

대전산업대 : 조은희(4), 이영은(4),

오한석(3), 김광식(3),

장정예(3)

* () 안은 학년

5. 설계주제

- 도심지 소규모 공공시설 /
공중 화장실

6. 대지

대전이라는 도시적 맥락속에서 도시와 건축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짜투리땅이나 유휴부지들 중에서 도시의 공공시설인 공중화장실을 계획하기에 적절한 5개 대지를 지형, 주변 환경, 도시구조와의 관계속에서 특성이 서로 다르도록 고려하여 선정한다
(대지개요/팀의 구성은 별첨1. 참조)

7. 교육내용 및 일정

- 별첨2. 일정표 참조

8. 강의

- 박만식 교수 (충남대)
- 최진 소장 (탑건축)
- 송인호 교수 (한남대)
- 이길주 소장 (청주건축)
- 김성호 교수 (대전산업대)
- 설계지도위원(전담 tutor)

9. 지도 및 평가

• 각 대학의 교수 및 건축사로 구성된 설계지도위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튜터(tutor)방식으로 지도(각팀별)하고 공개 평가(전체팀 참여)를 실시한다.

10. 조직

-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 건축사회
- 주관 : 대전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 후원 : 대한건축학회 대전·충남 지부
한국건축가협회 대전직할시 지부

11. 운영위원회

- 위원장 : 임근수(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 건축사회 회장)
- 부위원장 : 정인협(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 건축사회 부회장)
- 캠프장 : 박만식(충남대 교수)
- 총무 : 길성호(대전산업대 교수)
이길주(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 건축사회 간사)
- 재무 : 송하영(대전산업대 교수)
원유택(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 건축사회 감사)
- 홍보 : 김을용(대전산업대 교수)
설외 이상목(대한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 건축사회 출판 위원회 위원장)

• 설계지도위원

- 1) 전담지도위원
 - 1팀 : 박찬규 교수(충남대)
유창열 소장(동인건축)
 - 2팀 : 이기승 교수(목원대)
설용찬 소장(한 건축)
 - 3팀 : 김억중 교수(한남대)
신교영 소장(고유건축)
 - 4팀 : 김상겸 교수(대전대)
여태석 소장(태 건축)
 - 5팀 : 김성호 교수(대전산업대)
최진 소장(탑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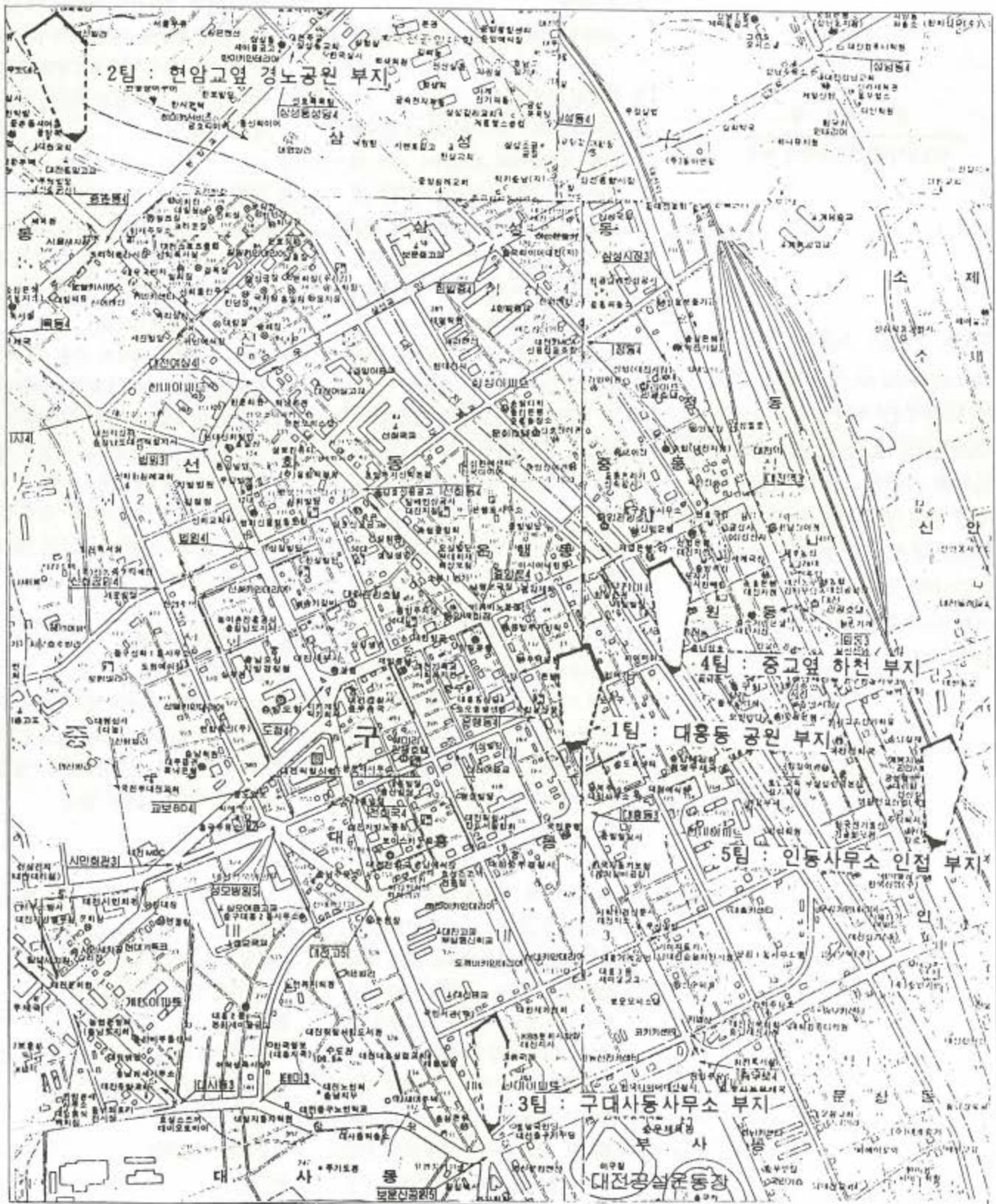
2) 평가지도위원

- 윤여경 소장(협 창 건축)
- 오종문 소장(다듬꼴 건축)
- 김동기 소장(고 유 건축)
- 이광수 소장(두 공 건축)
- 김학래 소장(도 시 건축) 외
각 대학교수 및 건축사 다수

3) 지도위원 간사

- 송인호 교수 (한남대)

- 팀별 부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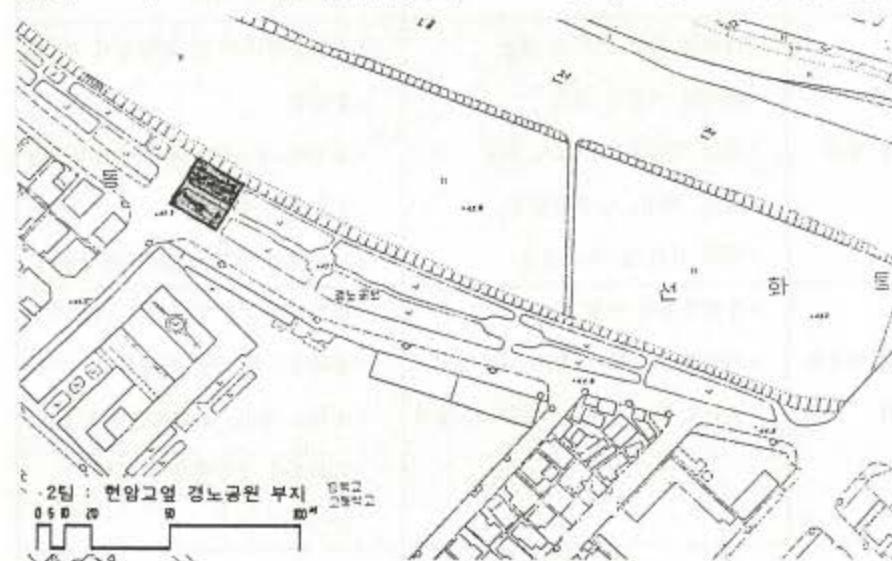


● 팀별 부지 위치도와 현황사진



● 1팀

대홍동 공원부지 (대홍동 166 번지)



● 2팀

현암교옆 경노공원 부지
(중촌동 382, 384 번지)



● 3팀

구 대사동사무소 부지
(대사동 101-1 번지)



〈별첨1.〉

대지개요 / 팀의구성

팀	대 지 위 치	도 시 맥 락	팀의 구성(학년)
1팀	대홍동 166번지 대홍동 공원부지	도심지 위치 위락, 업무혼재지역 동사무소에 인접	김경호(4), 장인철(4) 최은주(4), 김재정(3) 김광식(3)
2팀	중촌동 382, 384번지 현암교옆 경노공원 부지	고수부지내 큰 행사장소 EXPO연계천변 미관작업요망 경노공원내 식당, 매점위치	이용체(4), 조은희(4) 김경배(3), 김윤탁(3) 이기욱(3)
3팀	대사동 101-1번지 구 대사동사무소 부지	도시 가로변의 소규모 필지 보문산로 유입입구 도심지의 빈터(휴식공간)	양만석(4), 김진식(4) 김남식(3), 김병일(3) 장정예(3)
4팀	종교옆 하천부지	도시중심부에 위치 대전천변 공공하상 주차장과 연계	송제현(4), 이영은(4) 변진희(3), 박창우(3) 정락희(3)
5팀	인동 16-2 일부 인동사무소 인접 부지	주거지역의 공중시설 동사무소에 인접 불량시설의 개조	정우영(4), 조혜경(4) 이홍주(3), 안재성(3) 오한석(3)

〈별첨2.〉

교육내용 / 일정표

일 정	시 간	내 용	강의 / 진행	비 고
예비소집일/ 6. 25(금)	10:00 11:00 12:00 13:00 14:00	강의① 설계주제/프로그램 강의② 설계개념과 표현 : 도면과 모형 점심시간 팀구성, 대지부여, 준비사항 현장답사, 팀별 모임	김성호 교수(대전산업대) 설계지도위원(전남TUTOR) 송인호 교수(한남대) 설계 지도 위원 설계 지도 위원	09:00 학생집결
제1일 / 6. 28(월)	11:00 14:00	강의③ 주제관련사례 ⓐ국내사례 ⓑ공중화장실의 계획과 해외사례 지도 및 평가(I)	박만식 교수(충남대) +최진 소장(탐건축) 설계 지도 위원	10:00 개교식
제2일 / 6. 29(화)	19:00	공개평가(I)/대지분석, 계획개념		설계 지도 위원
제3일 / 6. 30(수)	14:00	지도 및 평가(II)	설계 지도 위원	
제4일 / 7. 1(목)	19:00	공개평가(II) / 기본계획안평가	설계 지도 위원	
제5일 / 7. 2(금)	14:00	지도 및 평가(III)	설계 지도 위원	도면 및 모형작성
제6일 / 7. 3(토)	14:00	전시 및 최종공개평가(III)	설계 지도 위원	15:00 수료식 17:00 종합평가회

* 지도 및 평가는 각 팀별로, 공개평가는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4. 설계주제/프로그램

길 성 호

대전산업대 전축공학과 교수

도시는 건축이 수용해야 하는 맥락(context)을 제시하며, 건축은 도시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매김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도시와 건축의 공존의 개념은 디자인 캠프가 추구해 온 일관된 주제로서 도심지 소규모 공공시설로서의 도시의 공중화장실이라는 주제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

1. 설계주제

도심지 소규모 공공시설/공중화장실

2. 주제의 해석

- 도시와 건축 : 도시공간과 그 도시공간의 조직속에서 계획되어 지는 건물은 불가분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닌다. 도시는 건축이 수용해야 하는 맥락(context)을 제시하며, 건축은 도시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매김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도시와 건축의 공존의 개념은 디자인 캠프가 추구해 온 일관된 주제로서 도심지 소규모 공공시설로서의 도시의 공중화장실이라는 주제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 되어야 한다.
- 도시맥락 : 도시의 공간구조에 있어서 도심지는 교통, 상업의 중심지 이자 인구의 집중이 발생되는 곳이다. 또한 도심지는 오랜 세월동안 도시공간의 질서가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오는 누적적인 공간구조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도심지속에 위치한 부지와 그곳에 수용되어질 기능은 도심지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있는 여러 도시환경 요소들의 충실햄 해석을 요구한다. 주어진 각 대지의 주변은 또한 가로에 면한 공공시설 물들 공중전화부스,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안내표시판등 과의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가로변에 활기있는 도시의 가로환경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공중화장실과 도심지 : 이번의 설계 주제는 도로와 건물사이의 소규모 필지와 공공 공간을 활용하여 도심지의 도시환경요소를 해석하고 도심 속에 의미를 갖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제안에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

관련주제의 건축적인 해결의 제안은 물론 공공장소에 대한 의미부여와 나아가서는 도심속의 오브제로서 도시의 상징이 될수 있는 제안이 요구될 수 있다.

3. 기능

- 대지와 기능 : 각기 주어진 대지는 그 대지가 지나는 잠재력과 주변의 여건에 따라 기능의 성격과 조건을 설정하도록 의도되었다.
- 규모 : 주어진 대지와 수용 가능한 기능의 적절한 설정으로부터 적정한 평면, 단면, 불륨의 형태를 결정한다.
- 부속시설 : 공중화장실의 시설과 병행하여 그 외부공간을 건축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지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속 시설을 자유로이 계획 할 수 있다.

4. 부지의 위치 및 특성

● 팀별 부지의 위치

5개의 선정된 부지는 대전이라는 도심의 구조속에서 독특한 장소적 특성을 갖는곳이 선정되었으며, 팀별 부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1팀

대홍동 공원부지(대홍동 166 번지)

▶ 2팀

현암교옆 경노공원 부지
(중촌동 382, 384 번지)

▶ 3팀

구 대사동사무소 부지
(대사동 101-1 번지)

▶ 4팀

중교옆 하천부지

▶ 5팀

인동사무소 인접부지
(인동 16-2 번지)

● 팀별 부지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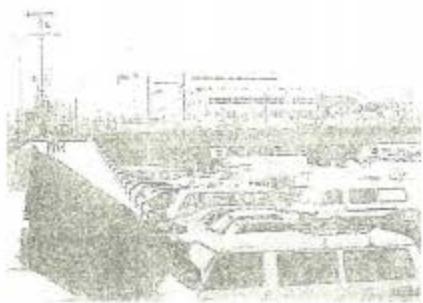
선정된 5개팀의 부지를 도시백락적 측면, 물리적 측면, 기능적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팀별부지	도시백락적 측면	물리적 측면	기능적 측면
1팀 대홍동 공원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내의 소공원중 도심에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 • 80년대 후반 부터 위락시설들이 확장되는 지역으로 이용율을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의 중심도로(남북도로)의 한블럭 뒷편 공원 부지내에 위치하여 접근성 양호 • 중규모 오피스, 위락시설, 음식점등 다용한 용도의 건물이 주변에 밀집해 활용성이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지역내의 개방공간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공원부지내 위치하여 이용율이 많음 • 기존 동사무소 옆에 위치해 관리면에서도 유리 •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남쪽면을 정리하는데 기여
2팀 현암교옆 경노공원 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변도로 연결천변 미판저해요소 (EXPO관련) • 천변 고수부지에서의 각종 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천 물이 흐르고 있음 • 대지에 레벨차 있음 • 기존 시설물로는 노인간이 식당, 매점, 공중화장실 • 기타 의자 및 녹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노공원내의 현 화장실이 불결, 불량함 • 모임의 장소로서의 공중화장실의 수용력 부족 • 기존시설 인접해 있어 관리용이
3팀 구 대사동사무소 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지 가로변에 위치 • 보문산 공원 이용자들의 진입부분 • 도심속의 남겨진 부지로서 동네의 휴식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에 인접 • 기억의 요소로서 정자 나무밑의 소규모 공원과 주거지역과의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정차장에 인접하여 대기시 공공시설의 이용 가능성 • 소규모 매점, 공중화장실이 들어감으로써 공간활용의 질이 높아짐
4팀 중교옆 하천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중심부에 근접한 위치 • 대전천변 • 교량과 천변도로가 만나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 레벨차가 있음 • 경사면이 있음 • 대전천 물이 흐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상 주차장이 있음 • 가구점이 집중되어 있음 • 보차 분리되지 않은 하상 주차장 입구
5팀 인동 사무소 인접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지역과 철도변 사이의 저소득 서민층의 집단주거지에 위치 • 영세필자로 구성된 협소한 부지 주변은 신·구의 주거형태가 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에 인접한 평坦한 지역임 • 주변을 주거지역(1-2층)이 밀집 • 기존 화장실은 주거용 부속건물과 함께 혼재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민 주거지역 주민의 공동 이용시설 • 남·여 구분이 안된 낙후된 시설로 리노베이션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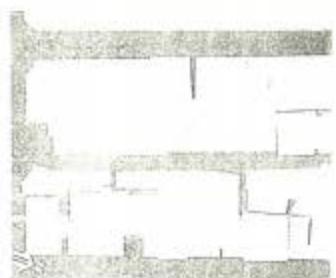
제5장 주도



● 4팀
중교옆 하천부지



● 5팀
인동사무소 인접부지
(인동 16-2 번지)



'우3 제5차 국제디자인캠프'

5. 교육 진행 과정

현장답사, 팀별모임
지도 및 평가
진선경기
전시 및 최종공개평가
수료식

● 예비소집일 / 6월25일(금)

디자인 캠프 개최 3일전에 소집된 예비소집일에는 각대학 교수 및 건축사로 구성된 설계지도위원 및 운영위원과 5개대학에서 참석한 25명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눈후 강의와 토론을 거친후 팀구성과 현장답사를 진행하였다.

10:00 강의 ①

• 설계주제/프로그램

제5차 디자인 캠프의 주제는 「도심지 소규모 공공시설/공중화장실」로서 길성호 교수(대전산업대)의 설계의 주제와 이와 관련된 기능 및 부지의 위치에 대한 총괄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있은후, 각 팀별로 설계지도위원들이 준비한 대지의 상황과 특성에 대해 슬라이드와 보충설명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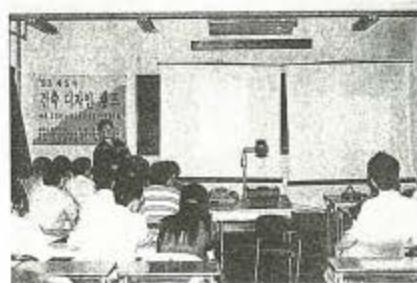


11:00 강의 ②

• 설계개념과 표현: 도면과 모형

송인호 교수(한남대)가 담당한 「설계개념과 표현」에 대한 강의는 계획안이 갖는 도면의 의미와 내용, 입체적 표현방식, 모형, 제작 도면의 구성 등 캠프 과정동안 숙지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슬라이드와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디자인 캠프 과정중에 요구되는 도면의 종류, 모형의 스케일과 표현방식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참고 자료의 제시와 함께 자세한 보충설명이 있었다.



13:00 강의 ③

• 팀구성

점심식사 후 5개대학에서 참가한 25명의 학생들은 한팀당 5명씩 5팀으로 구성 되었다. 설계지도위원이 각팀별 구성원에게 대지의 분석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이 있은후 분석 대지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14:00

• 현장답사, 팀별모임

각 팀별로 부여받은 대지의 도면과 사진기, 측량도구 등을 점검하면서 팀별로 대지를 설계지도위원과 함께 답사하여 분석한 후 곧 귀가하여 캠프가 개교되기 이전에

대지와 주변의 모형(site model)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 제1일 / 6월 28일(월)

10:00

• 개교식

5개대학의 참가학생 25명과 대전 지역의 건축사, 교수들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대전산업대학교 신관 2층 건축공학과 강의실에서 제5차 디자인 캠프의 개교식이 거행되었다.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가 있은 후에 대전건축사협회 대전직 할시 건축사회 임근수 회장의 개회사, 한국 건축사협회 대전직할시 박갑순 지회장(대전산업대 교수)의 축사와 대전 산업대학교 강용식 총장의 격려사 등이 있었고, 곧이어 조은희 학생대표(대전 산업대 4학년)의 학생선서, 경과보고, 내·외빈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11:00

• 개최강연

개교식에 이어 박만식교수(충남대)와 최진소장(탑건축)이 담당하는 국내·외 화장실의 계획과 해외사례에 대한 주제관련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최진소장이 담당한 국내사례에 대한 강연에서는 대전 지역 근교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의 실태를 기능, 규모, 동선, 입면,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 등이 슬라이드와 함께 제시되었다. 박만식교수가 담당한 해외사례에 대한 강연에서는 유럽과 일본의 공중변소의 새로운 계획방향과 참신한 설계개념 및 설계시 고려해야 할 기본요소등이 슬라이드와 함께 제시되어 공중변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설계 접근태도를 활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4:00

• 지도 및 평가(I)

첫날에 진행된 지도 및 평가는, 각 팀별 설계지도위원들이 담당지도 팀들의 대지분석과 부지모형에 대해 검토하고 토론하는 시간이다. 각 팀별로 대지의 상황과 주변과의 관계, 주제, 부여된 기능 등에 대한 분석과 종합화 작업이 담당 설계지도위원들의 지도하에 이루어져 공개평가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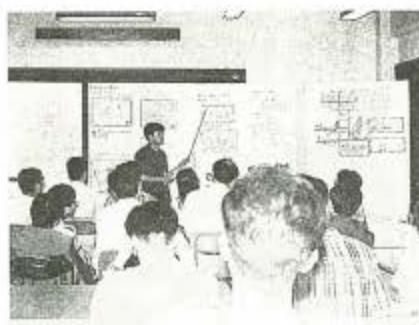
● 제2일 / 6월 29일(화)

19:00

• 공개평가(I) / 대지분석, 계획개념

제1차 공개평가는 설계강의실에서 5개팀의 학생들과 설계지도위원, 대학교수, 건축사, 내·외빈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송인호교수(한남대)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1차 공개평가에서는 주로 대지의 해석과 개념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며, 개념의 건축적 해결은 2차, 3차의 공개평가시에 진행하기로 한다는 사회자의 설명이 있은후, 각 팀별로 준비된 분석도면과 모형들을 판넬에 부착한 후 디자인 팀원이 함께 나와 공개적으로 발

표하였고, 이에 대한 설계 지도위원과 건축사, 교수님들의 질문과 답변 및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일부팀은 상당히 정리된 도면표현과 개념설정이 이루어 졌으나,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부지 해석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팀들은 다소 초조해 하는 마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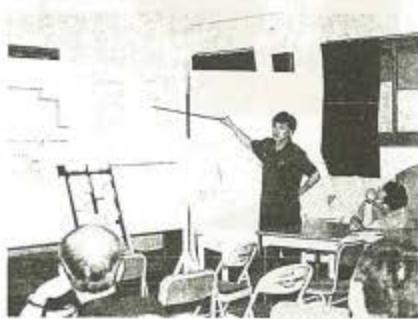


● 제3일 / 6월 30일(수)

14:00

• 지도 및 평가(II)

격일제로 진행되고 있는 각팀별 설계지도위원의 자체지도와 평가가 두번째로 진행되었다. 전날 공개평가시 지적받은 문제점과 미비한점,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 팀에서 토론을 거쳐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차 캠프와는 달리 일정이 압축된 탓으로 축바 한 시간안에 각팀별로 설계개념을 설정하고 발전을 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기에 각 팀별로 분주하게 협의하는 모습이 눈에 띠었다. 정리가 안된 팀들은 이웃팀들의 진행을 관찰하는 모습이다.



● 제4일 / 7월 1일(목)

19:00

• 공개평가(Ⅱ) / 기본계획평가

두번째 공개평가에서는 디자인 개념의 발전과 결과적인 형태에 대한 중점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진행이 빠른 팀을 구체적인 설계 개념에 대해 자세하게 평가와 토론을 할 수 있었으나, 아직까지 대안의 모색에 여념이 없는 팀은 정리되지 않은 초조함을 보여주었다. 캠프가 3일 남았는데 밤샘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 제5일 / 7월 2일(금)

12:00

• 천선경기

당초 프로그램에 없었으나 피곤에 지친 팀원을 회복하기 위해 간단한 농구게임을 갖기로 하였다. 학생 팀과 설계지도위원회 팀으로 대항하여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며, 풍성한 수박파티로 쌓인 피로를 풀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았다.

14:00

• 지도 및 평가(Ⅲ)

팀별로 진행된 설계지도위원회의 마지막 지도와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각팀들은 시간의 촉박함을 느끼는 듯 더욱 분주한 모습들이었다. 일부팀은 도면과 모형의 예비작업에 들어간 반면, 일부팀은 아직 정리된 도면이 나오지 않아 마감 하루전까지 고통하는 모습이다.

● 제6일 / 7월 3일(토)

20:00

• 전시 및 최종공개평가(Ⅲ)

당초 14:00 시에 예정된 전시 및 최종공개평가가 작업의 지연으로 인해 20:00시에나 진행될 수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밤샘하며 작업했지만 4차캠프와는 달리 압축된 일정속에서 학생들은 시간에 쫓기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건축사회 회장 및 캠프장을 비롯한 많은 건축사, 교수들과 언론사(건축과 환경)가 참석한 가운데 각팀별로 간략한 발표와 자유질문 시간이 있었으며, 이어서 캠프장의 총평이 있었다.



'93 제5차 건축디자인캠프



21:00

•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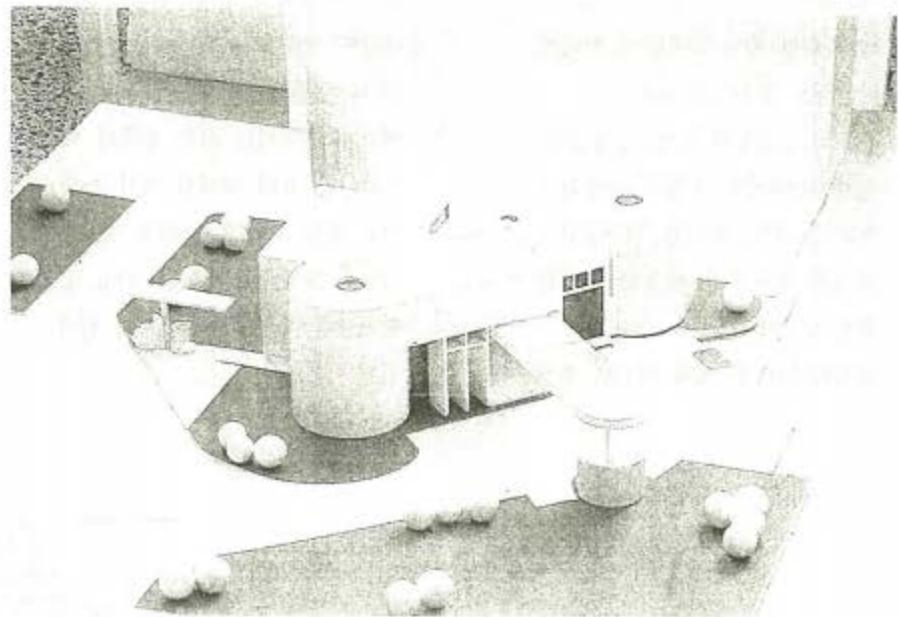
수료식은 임근수회장(건축사회)의 인사, 수료증 수여, 주관부서 인사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마무리하여 자진 학생들은 그동안의 피로도 잊고 5박6일간의 긴 훈련을 마친 뿐듯한 마음으로 수료증을 가슴에 품고 지도해 주신 건축사 및 교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6. 계획안 및 평가

● 1팀: 대흥동 공원 공중화장실

김경호(목원대4년), 장인철(대전대4년),
최은주(한남대4년), 김재정(충남대3년),
김희식(대전산업대3년)



도심의 상업지역이 공원쪽으로 밀려온
에 따라 주도로쪽의 개방성을 부여하고
기존 화장실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출발했으며, 가로와 공원과 화
장실의 매개체의 전이공간과 프라이버
시의 확보를 설계의 주안점으로 설정하
였다.

여기에서 외부활동을 위해 벤취와 음수
대, 공중전화바스를 모임의 장소로 활용
하고자 하였고, 친창이나 측창을 도입해
서 밖과 아늑한 화장실의 분위기를 연출
했으며, 여성의 화장대, 어린이변소, 대
기실 등의 공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설
계하였다

평가: 유창열(동인건축 소장)

80년대 이후, 부지주변에 5,6층
이상의 사무소 및 복합건물들이
하나 둘 자리잡는 대전시 도심에
서 유일하게 보존된 도시여유공간
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지이
다. 1팀에 부여된 중요한 과제로
는 첫째로 부지내 북쪽면에 자리
잡은 기존의 동사무소와의 관계
설정, 두번째로는 도로와 공원과
의 정확한 성격부여로, 도로에서
공원내로의 접근유도와 부지내 공
중화장실의 식별성 고려, 그리고
세번째는 새로운 개념에 의한 공
중화장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문
제였다. 처음 결정한 부지 위치에
서 북동측 코너로 부지를 옮겨간
분석과 그에 따른 결정은 좋은 판
단이었다.

기존 동사무소 건물이 철거된 후의
시점도 고려되었고, 북서쪽의 건물
들도 철거되는 것 등, 접근방법
의 폭이 넓어진 점도 아주 좋았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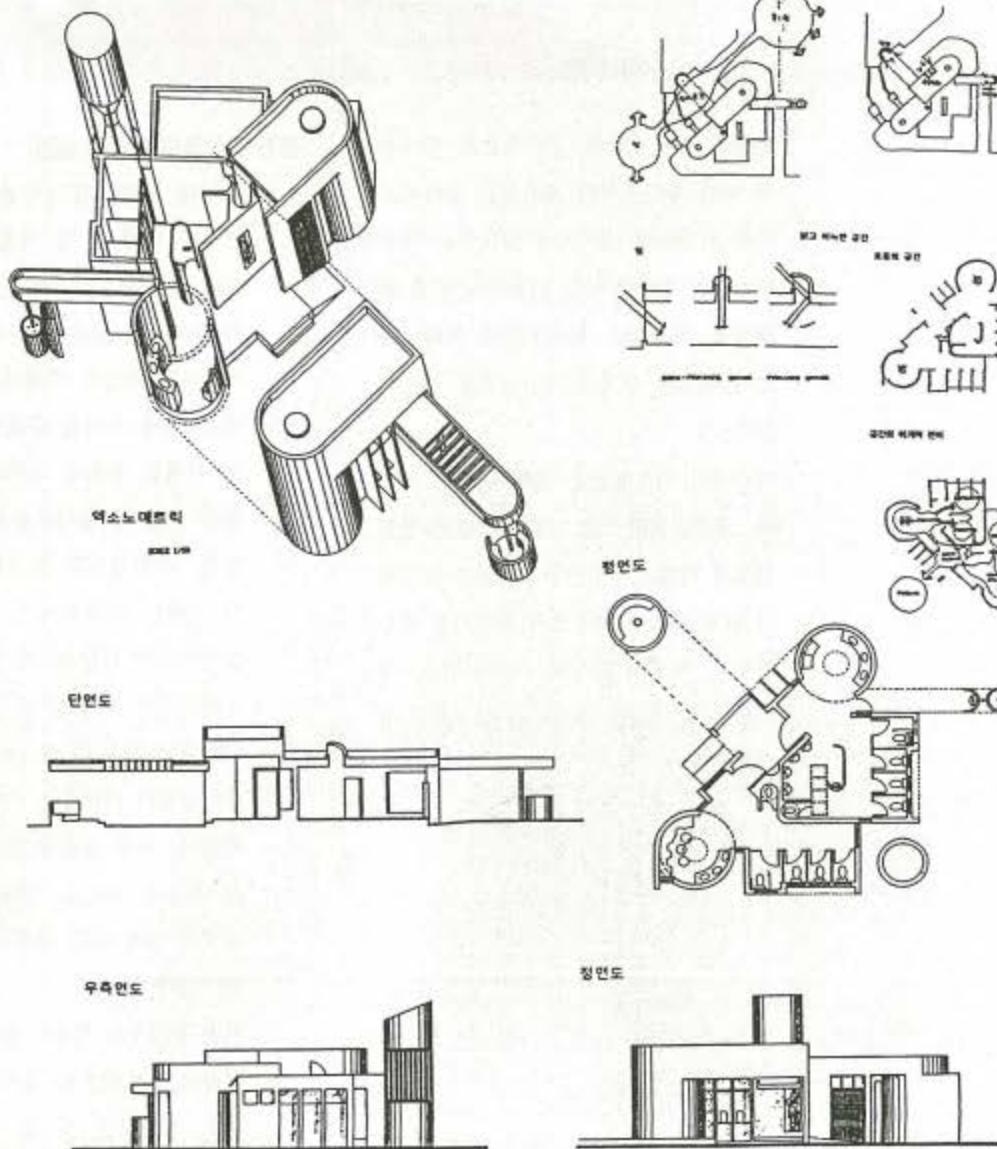
나, 옮겨간 후부터 기능보다는 형태에 대한 강한 의욕들이 지배적 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45도의 진입축의 설정, 진입공간, 전이공간에서의 공원과 공중화장실과의 연결, 이러한 외부공간의 위계를 이용하여 해결한 수법은 좋은 방법이었다.

진입하면서 두 개의 매스로 분절

하여 연결하고 틀을 만들어주는 다양한 형태를 보여 주는 것까지는 아주 좋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매스가 커보이는 것은 원쪽의 매스가 처음보다 약해진 데서 느껴지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계획한 것이, 공원규모에 비해서 건물규모가 커진 점이 아쉽다.

우리 현실에서 새로운 공중화장실의 개념은 무엇일까, 모든 문제점을 축축적으로는 어디까지 해결한 것일까,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이 가로변의 오브제로서 과연 완벽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들이 1팀에게 부여된 의문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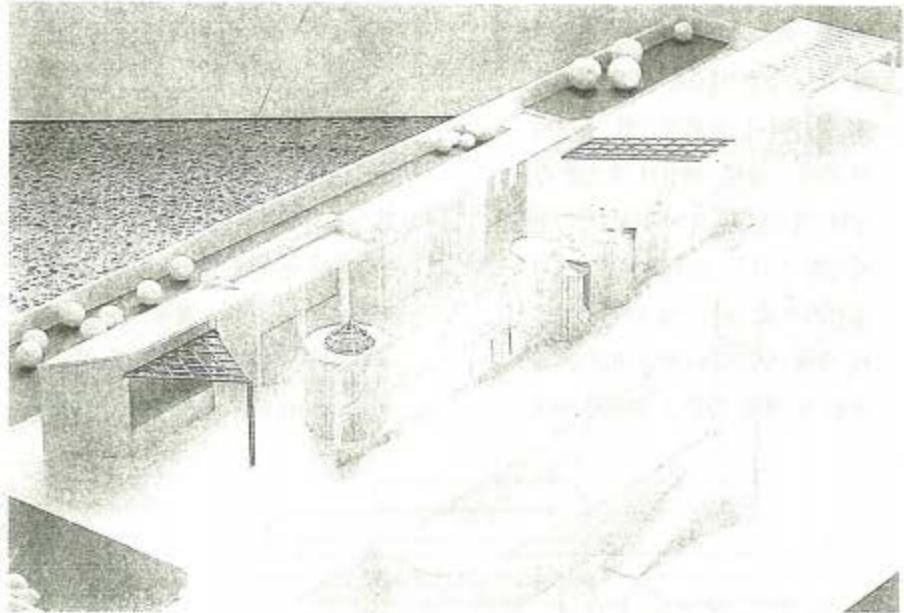


● 2팀: 현암교 경노공원 공중화장실

이용채(한남대4년), 조은희(대전산업대4년)

김경배(충남대3년), 김윤탁(대전대3년)

이기욱(목원대3년)



현암교 경노공원은 북쪽으로 대전천이 흐르고, 그 사이에 약 60미터 폭의 고수 부지를 접하고 있는 길고 좁은 공원이다. 중촌동 중앙중학교 사이의 도로에서 진입하는 동선과 고수부지와 경노공원을 효과적으로 묶을 수 있는 공원의 중심부에 공중화장실이 위치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설계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공원내에서 화장실(남, 여 화장실 3개, 장애자 화장실 1개)은 자유스러운 배치를 한다.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화장실을 유니트화 한다.

북쪽과 남쪽으로 접한 동선으로부터 차단하여 성격이 다른 공간을 조성한다. 이것은 축을 강조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북쪽에 흐르는 대전천은 지역적인 중요한 요소이므로 벽을 많이 열리게 하여 시선을 트이게 한다.

유니트의 사인이 되도록 색깔이 있는 프레임을 벽의 양끝에 매달았다.

평가: 설용찬(칸건축 소장)

도시 공원 속에 계획되는 공중화장실은 복잡한 도심속에서 요구되는 기능과는 다르게 공원 속의 여유공간에 조화될 건축물이어야 한다.

2팀에 주어진 현암교 옆의 경노공원 부지는 대전천을 따라 좁고 길게 놓여져 있으며, 주변에 프로젝트와의 연계성을 가질 건축물이 없고 비교적 나무가 많은 천변의 공원이었다. 이런 부지 상황하에서의 건축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하기에 2팀 학생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기존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 찾기에 고심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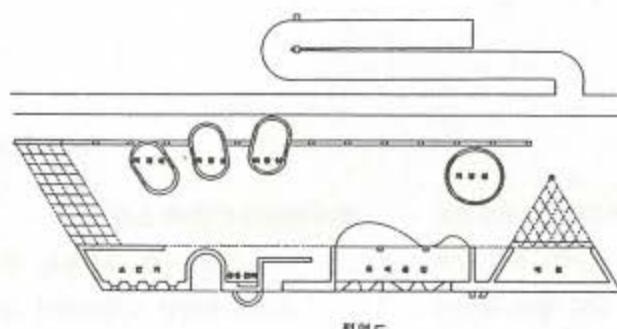
우선 유니트 화장실에 대한 내부 기능과 조형상의 문제는 시간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불결하고 구석으로 숨어 버리는 화장실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깨끗하고 편리하고 시작적인 즐거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유니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방향의 의미로 인정되나 비현실적인 측면이 더 많다. 둘째, 대전천 쪽으로 형성된 격자형 벽은 현암교 건너편에서의 시각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으나, 두꺼운 벽 속에 부분적 디자인 요소로 변화를 둔 후면 벽은 느슨하게 쉬고

있는 공원 속 사람들에게 높게 막힌 벽이 되어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되었다. 그 다음으로, 좁고 길다란 선형 공간 속에 또 다른 막힌 공간, 즉 화장실로 인한 작은 불턱이 형성되어 공원에 무거움을 느끼게 하지 않았나 한다. 결국 유니트의 나열보다 공원 속에 놓여질 가구(furniture)로서의 시각적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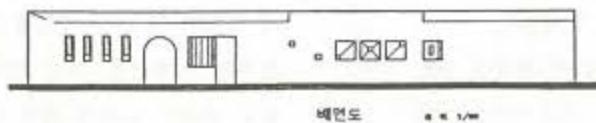
을 줄 수 있는 건축 형태 속에서 기능을 찾아야 했고, 경직된 기존 화장실의 개념에서 훌훌 벗어나서 건축적 측면보다 도시 환경적 측면에 더 가까이 갈 필요가 있었다. 캠프기간은 학생들에게 건축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지만 작품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짧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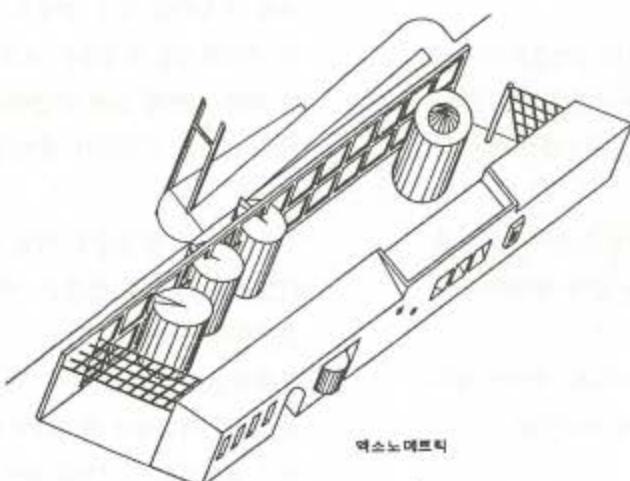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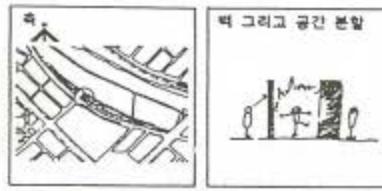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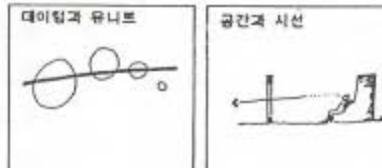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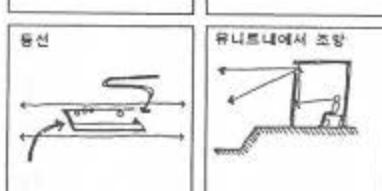
액스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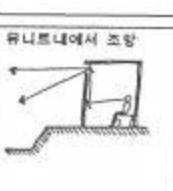
벽 그리고 공간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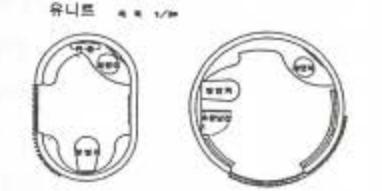
공간과 시선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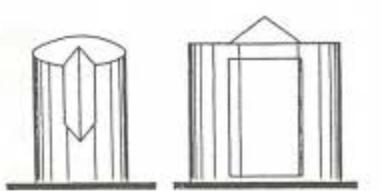
유니트내에서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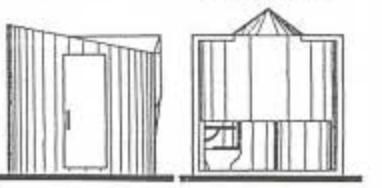
일반 화장실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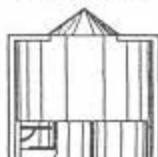
장애인 화장실 평면



장애인 화장실 일면



일반 화장실 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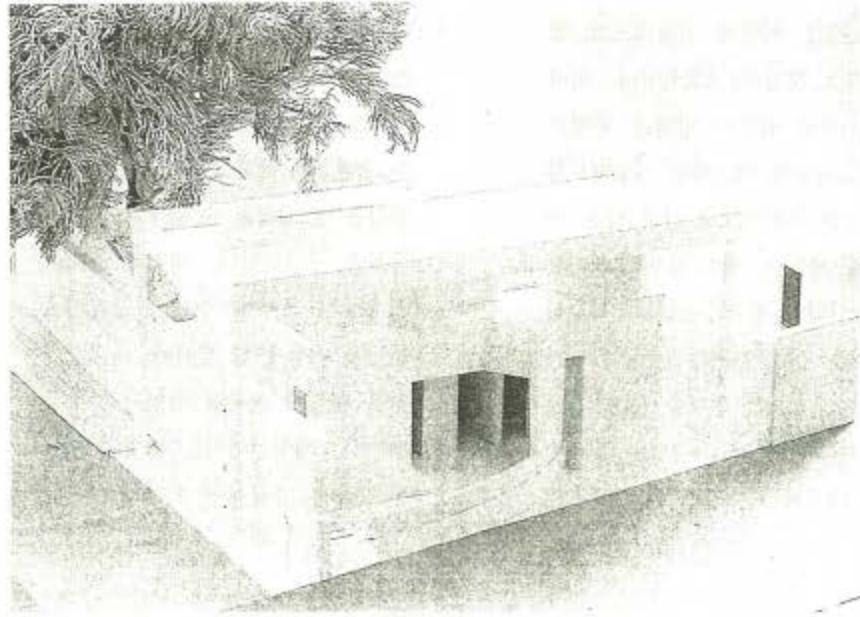


장애인 화장실 일면

● 3팀: 구 대사동사무소 부지내

공중화장실

양만직(목원대4년), 김진식(충남대4년),
김남식(한남대3년), 김병일(대전대3년),
장정예(대전산업대3년)



대지는 대사동에 위치한 구 대사동사무소 자리이다. 대지는 5거리를 기점으로 한 22미터의 4차선과 13.5미터의 2차선을 접하고 있는 남향의 부정형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보문산이 흔히 바라다 보이는 조망을 갖고 있다.

다른 대지와의 상이점은 16미터 높이의 고목나무가 대지 전체를 덮고 있다는 것이다. 대지 앞에 있는 세 그루의 나무가 대지 내부로의 인지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베어 버린다는 가정하에 설계에 들어갔다. 공간은 정자개념으로 구성했는데, 이는 대사동의 입구에 위치해 동구나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평면은 나무를 중심으로 한 원을 사용하였고, 입면은 도시적 맥락에서 보아 주변이 6층 정도의 규모로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고목의 수직적 성격을 강조하고, 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얇은 수평요소를 사용했다. 정자의 위치는 고목에 가려지지 않고 보문산으로의 시야가 좋은 동쪽에 위치시켰고, 화장실을 그 아래 두어 외부에서 인지 가능토록 상징화시켰다.

마당과 정자의 상호연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 단을 만들었으며, 대지 전체의 건축적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동선을 길게 하였으며, 주변환경이 변하여도 현대지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물로 마감하였고, 화장실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건축적 경험이 가능하게 하였다.

평가: 김억중(한남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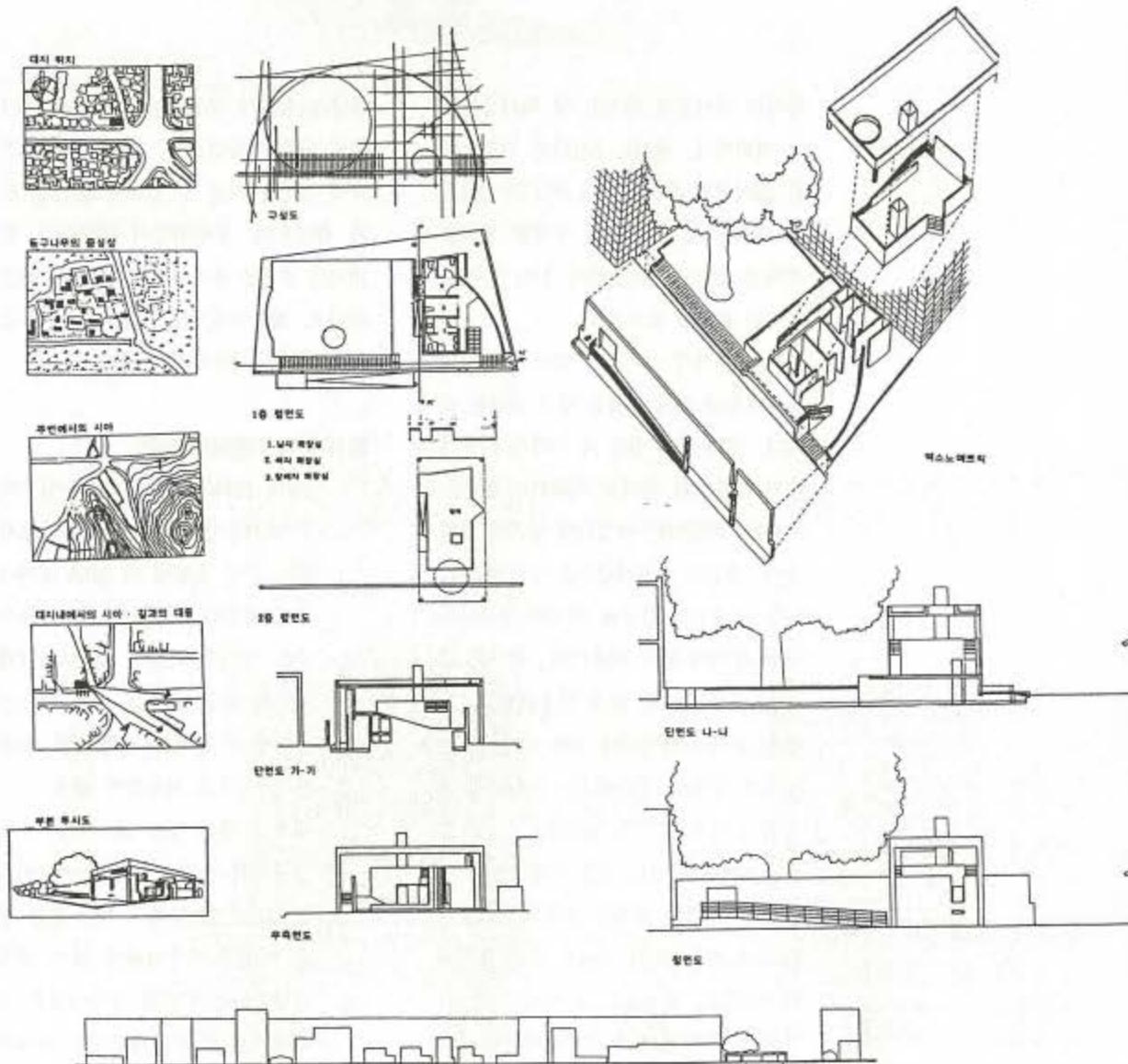
3팀의 대지는 보문산 공원 입구의 구 대사동사무소가 있던 자리로서 과거 동네 초입에 서 있던 정자나 무가 여전히 보존되어 있고, 동사무소 이전과 더불어 빙터로 남게 되면서 인근 주민은 물론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좋은 휴식공간으로 사랑받아 왔다.

대지가 처해 있는 도시적인 스케일에서의 문제는 약200m에 이르는 30m 철면도로의 시작 또는 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 것과 기념물이라 할만한 정자나무를 형태적으로 잘 드러내면서도 본래의

장소성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잘 정의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따라서, 주된 해결의 방향을 주변의 중, 소규모의 매스와는 대조되도록 가능한 수평적으로 길고 낮은 매스로 채우고, 매스 상부의 피막은 그 열림의 정도가 크도록 하고(1층에는 공중화장실, 2층에는 정자 공간), 매스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정자나무로부터 가능한한 멀리한 후 나무와 매스를 형태적으로 결

합시키기 위해 수평 방향을 강조하는 긴 벽을 주요 요소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로서 긴 벽의 전후좌우는 물론 긴 벽과 나무, 정자사이 공간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된 동선을 구성하였다. 대지의 스케일에서의 문제는 주변 건물과의 접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옥외공간을 어떻게 분화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계획안에서는 접합의 대안으로서, 불규칙한 모양의 대지

주변과 계획된 매스, 옥외공간 사이를 물로 채워 주변 매스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형태변화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디자인 캠프 중 투터(Tutor)로서 참여학생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개념의 구축과 그에 따른 형태구성의 과정을 명료하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디자인의 한 방법을 간접경험케하려 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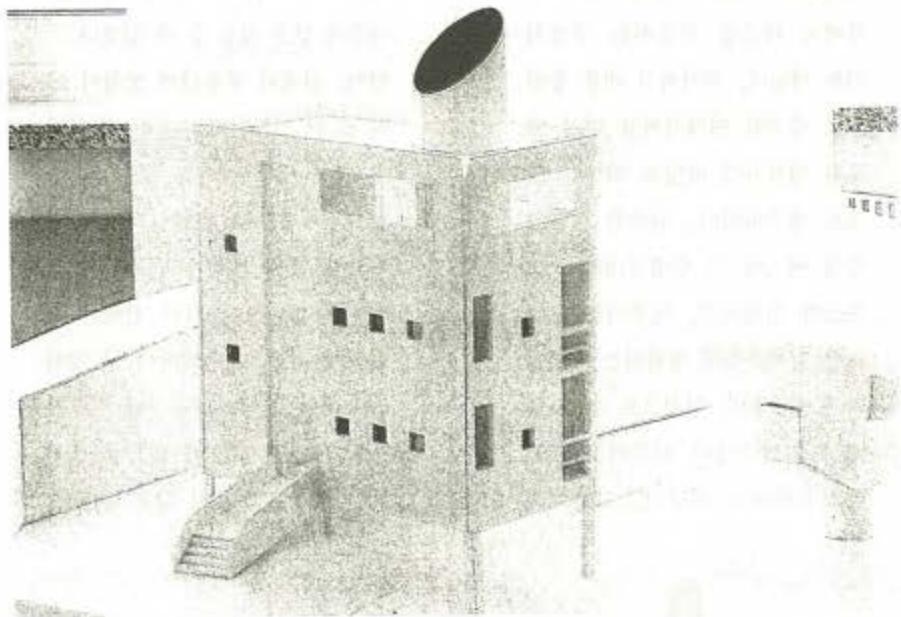


● 4팀: 중교옆 하천 공중화장실

송제현(대전대4년), 이영은(대전산업대4년)

변진희(충남대3년), 박창욱(목원대3년)

정락희(한남대3년)



부지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동선의 혼잡과 장소성의 결여 등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문제해결의 주안점으로 두고 공중화장실을 계획하였다. 우선, 동선의 혼잡은 보차분리가 되지 않는 것과 상하 레벨차에서 발생한다. 화장실은 이 두 가지의 동선체계를 확립시켜 주는 매개체가 된다. 화장실을 통해 정립되는 동선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주차장에서의 접근으로 주차의 한계를 정해 주고 보행동선을 끌어들임으로 해결하고, 둘째는 상하 레벨차는 세 방향에서 오는 동선을 하나로 받아 위 레벨로의 연결을 원활하게 한다. 셋째로는 흥명상가를 잇는 산책로 조성인데, 버려진 공간의 활용과 꽃집사용자의 화장실 이용을 해결하는 것이고, 넷째로는 건너편 주차장으로부터의 연결로 기존 징검다리를 변형시켜 옛시절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장소성의 결여는 기존 꽃거리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산책로와 연결시키고 완성점을 화장실에 둘으로써 해결

한다. 또한 다리의 수평성에 대조시켜 수직적 매스로 처리함으로써 오브제의 성격을 부가했다. 두 가지와 더불어 물로의 조망과 내부기능에 휴게 기능을 부가하고 태양열 시스템을 도입하는 설비 측면을 고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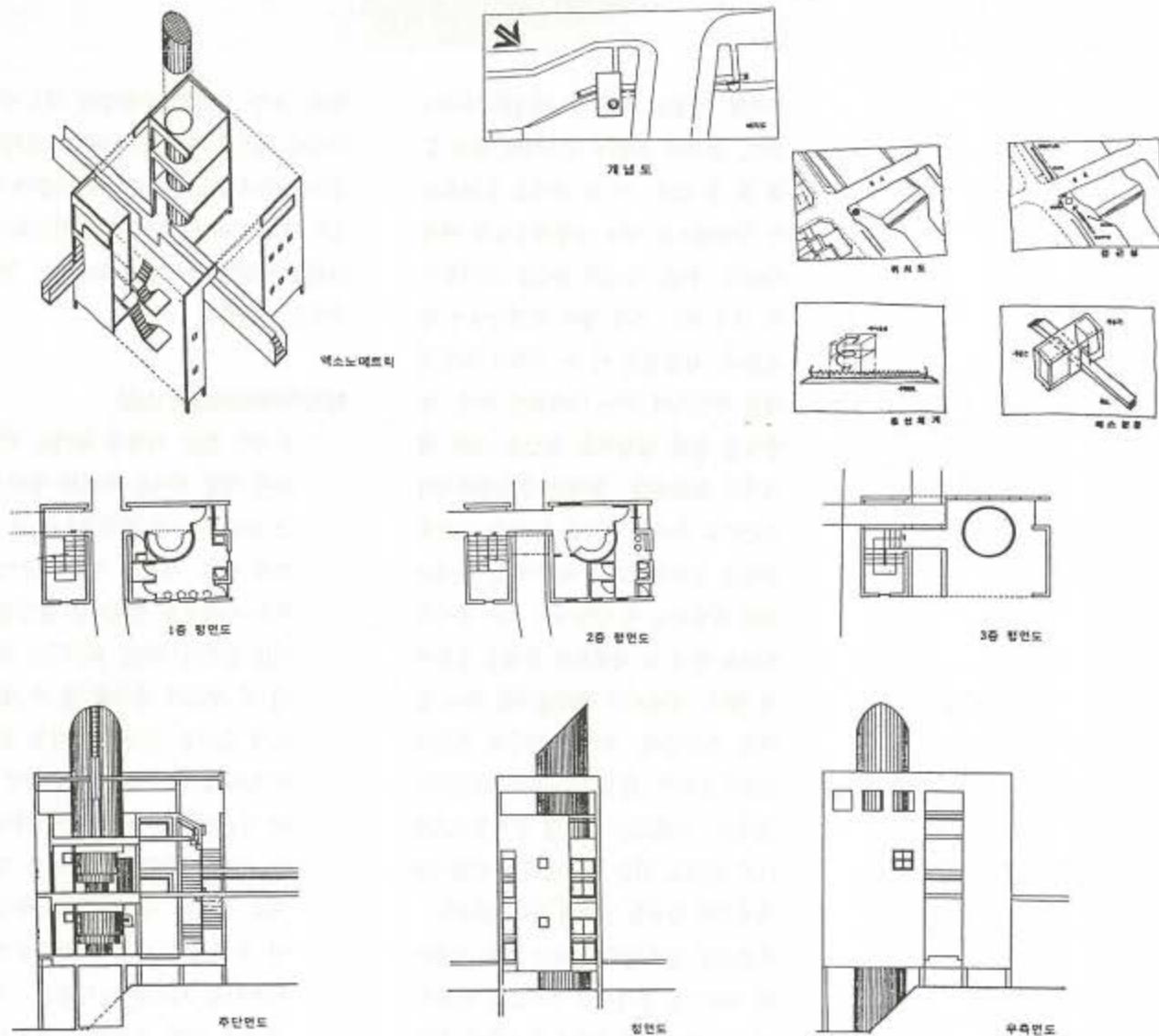
평가: 여태석(테건축 소장)

도시의 특정 지역에 놓이는 건축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 장소를 가장 건축적으로 잘 정리해 주고, 적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출발점은 어떤 것인가? 일단, 도시구조 속에서 이 장소가 정리해 줄 수 있는 도시 동선을 설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도시 경관에 대한 고려 및 주변의 기존 영역에 대응하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된 것은 수직적인 육면체와 내부의 원통형으로 이루어진 매스를 보행동선, 특히 교량에 의해 차단된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새로운 동선요소가 하부에서 매스를 관통하는 구성의 기본 개념에, 수직적인 내부 동선으로 상부와 연계시키고 다시 도로와 연결시킨 방법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단순한 형태의 수직 매스에 긴 수평형태의 동선요소가 삽입되고, 내부기능을 고려한 상하좌우의 변화있는 내부공간과 상응하는 원칙으로 외부 형태와 입면구성이 이루어진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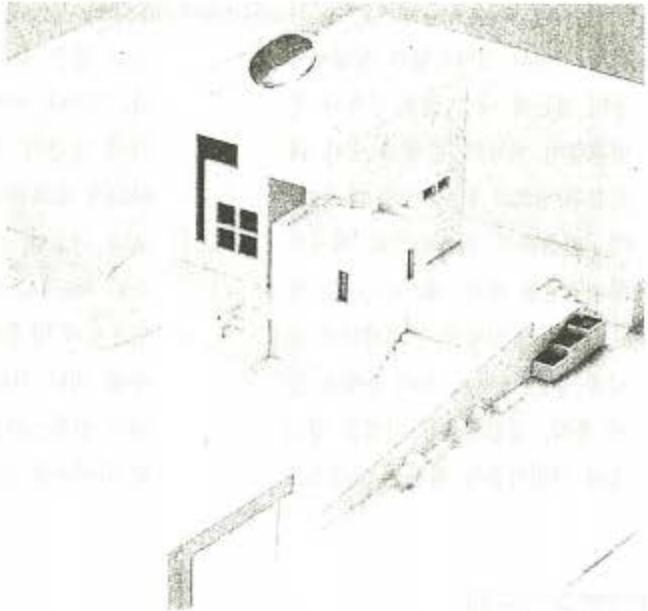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겠다. 먼저, 전체와 부분간의 조절이 아직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 질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스케일의 타당성 확보가 주위 맥락에 근거하여 채택되어 임의성에 의한 선택이 깊이있게 검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의 공간과 형태를 상상하고 구축할 때 단순한 상식이나 타성에 의하지 않고 항상 스

스로 의문을 던지는 작업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도 이러한 관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마지막으로, (무리한 요구이겠지만) 상세를 마치면서 건축적 상상력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생각, 토의, 표현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역시 아쉬운 점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 5팀: 인동사무소 공중화장실

정우영(한남대4년), 조혜경(충남대4년)
이홍주(대전대3년), 안재성(목원대3년)
오한석(대전산업대3년)



부지 주변은 신, 구의 주거형태가 혼재하여 밀집해 있다. 주변 건물이 고층화될 것을 가상하여 마당개념을 도입해서 열린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고저차를 두어 안마당을 형성하고, 어린이의 놀이공간과 화장실과의 연결을 고려하고, 마당과 도로와는 약한 의미의 경계를 둔다는 개념으로 시작하였다.

우선 화장실 공간을 높여 마당공간을 명료하게 했고, 램프와 나무들을 선적으로 배치시켜 마당의 경계를 두었으며, 서측 벽면에 마운트를 만들어서 어린이 화장실로의 연결을 고려했다. 큰 매스와 작은 매스를 기능상으로 분리시켜 각각 어른 화장실과 어린이 화장실을 수용했고, 각각의 매스에 광정(光井)을 도입하여 자연의 빛을 건물 내부로 끌어들였다. 기존의 화장실은 공동변소의 의미였으나 부지에 복지관이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를 고려하였으므로 계획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의 의미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평가: 길성호(대전산업대 교수)

5팀의 계획부지는 인동사무소에 인접한 복지관 신축예정지로서, 이 곳의 모퉁이에는 주변의 영세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화장실이 협존하고 있다. 특히, 주변환경은 영세 서민층의 낙후된 주거지와 상가가 혼재되어 있는 상업지역으로, 향후 어느 정도 주변환경이 정비된다고 가정할 때, 이 지역에는 동사무소 및 복지관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부지의 오픈스페이스만이 지역주민들의 유일한 쉼터공간으로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5팀은 이 부지를 예워싸고 있는 지역적 맥락을 해석해 나감으로써, 계획부지가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성을 최대한 살펴보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 추출된 설계개념은 마당공간의 성격부여와 이에 대응되는 기능적 및 형태적인 공중화장실의 건축적 해결방안이었다.

먼저 빈터로 남겨진 마당의 성격